제 8 차
ACTS 신학포럼

The 8th ACTS Theological Forum

ACTS 신학과 신약신학의 과제

ACTS Theology & the Task of New Testament Theology

일시 : 2019년 4월 22일(월), 12:00-14:40

장소 : 본교 강당

ACTS 신학연구소

http://ti.acts.ac.kr

ACTS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1. 발표 (Presentation)

1) **김규섭 교수** (Dr. Kim, Kyu Seop, New Testament Studies) ---------- A1-25
초기 교회 문헌 연구의 관점에서 본 ACTS 신학 - 신앙운동의 의의

2) **한상화 교수** (Dr. Han, Sang Hwa, Systematic Theology) ---------- B1-3
"초기 교회 문헌 연구의 관점에서 본 ACTS 신학 - 신앙운동의 의의"에 대한 논평

3) **허주 교수** (Dr. Hur, Ju, New Testament Studies) ---------- C1-26
신학교육기관으로서 ACTS가 지향해야 할 신약학 분과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제언

4) **이한영 교수** (Dr. Lee, Han Young, Old Testament Studies) ---------- D1-4
"신학교육기관으로서 ACTS가 지향해야 할 신약학 분과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제언"에 대한 논평

5) **허주 교수** (Dr. Hur, Ju, New Testament Studies) ---------- E1-3
이한영 교수의 논평에 대한 답변

2. 일정 (Schedule)

12:00-12:20	개회기도 및 'ACTS 신학공관 선언문' 낭독 및 설명	안경승 교수
12:20-13:00	초기 교회 문헌 연구의 관점에서 본 ACTS 신학 - 신앙운동의 의의	김규섭 교수
13:00-13:10	논평	한상화 교수
13:10-13:20	질의응답 및 토론	
13:20-13:40	사진촬영 및 휴식	
13:40-14:20	신학교육기관으로서 ACTS가 지향해야 할 신약학 분과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제언	허 주 교수
14:20-14:30	논평	이한영 교수
14:30-14:40	질의응답 및 토론	
14:40	폐회	

Part 1

ACTS 신학공관운동 및 신앙고백서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 ACTS Statement of Faith)

ACTS 신학공관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2015. 4. 15.

'ACTS 신학공관(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神學共觀)'은 1998년부터 본교에서 추진해 온 공동연구작업으로서 ACTS의 신학적 입장과 선교적 사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실천하려는 신학운동이다. ACTS는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공관함'(=함께 봄)으로써 이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하는 길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기독교의 중심진리'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기독교의 중심진리'(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를 강조하고 전파하려는 운동이다. '기독교의 중심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선포하였고, 교부들과 교회의 교사들이 전승하였으며, 모든 역사적 신앙고백들 가운데 명시되어 온 핵심진리이다. 그것은 '대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거룩함을 얻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메시지로 요약된다. 이 중심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로서(눅 24:25-27, 44-48; 요 5:39; 20:31; 딤후 3:15-17) 성경의 계시를 올바로 해석하는 궁극적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ACTS는 구원 얻는 믿음의 출발점과 기초가 되는 이 중심진리의 우선적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2. 바른 신학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바른 신학을 세우는 운동이다. 현대에 이르러 자유주의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주의 신학조차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사조 이래 합리주의 사상과 역사관을 바탕으로 성경의 초자연적 계시를 경험과 이성의 잣대로 해석하고, 기독교를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의 개념들로 체계화하고, 기독교의 핵심 내용보다 지엽적인 주제들만을 집중하여 다루고 있다. 보수주의 진영의 일부 신학도 주요 교리들을 수호하고 변증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비평학의 해석방법론을 비롯하여 믿음의 전제와 상충되는 인본주의적·경험론적 방법론들을 차용함으로써 기독교의 핵심과 무관한 세부사항들을 놓고 무익한 공론에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ACTS 신학공관' 운동은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전반적으로 중요시하지 않거나 왜곡하는 현대 신학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한 운동이다.

3. 참 신앙인 양육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공동체의 '신앙운동'을 통해 올바른 '신앙인'을 키워내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도 절실히 요구된다. 다원주의 시대라 일컫는 21세기에 들어와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 신학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시되고 있다. 전 세계 교회는 과학

주의적 세계관과 세속주의의 도전 앞에서 전통적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신학적으로 정통 교리에 입각한 복음적 신앙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부패로 인하여 끊임없이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큼 세속화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교리적 승인의 문제로 축소하여 이해함으로써 명목상의 고백만 있을 뿐 실제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전인적 삶의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CTS는 이 중심진리가 가르치는 구원의 내용을 올바로 제시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운동'을 병행하여 신학과 신앙, 교리와 실천, 믿음과 행함이 통합된 성령 충만한 참 신앙인을 키워내려고 한다.

4. 교회연합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고백하는 모든 개신교파들 사이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운동이다. 성경은 교회가 동일한 신앙고백 위에서 일치와 연합을 힘써 이루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20세기에 일어난 범세계적 교회연합운동은 신앙의 동질성보다는 기구적 통합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또한 신앙의 핵심이 아닌 부차적 교리의 입장에서 분리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성경의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개신교 교파들은 중심진리에 대한 동일한 신앙고백 위에 세워져 왔고, 그들의 교리적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지난 세기의 극심한 분열의 역사와 상처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개교회-교단 중심의 경쟁적 확장이나 선교의 방식은 지양하고, 다른 교파라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ACTS는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만연한 심각한 교파간 대립과 분열상을 극복하고, 아시아와 세계에 중심진리로 하나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5. 교회회복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개신교 교회의 교사들이 각 시대마다 올바르게 강조한 신학과 실천의 내용을 '기독교 중심진리'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수립하려는 운동이다. ACTS는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공관하는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함으로써 교회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것은 '아세아 복음화'를 위하여 설립된 '신본주의-복음주의' 신학교인 ACTS가 오늘날 혼탁한 현대 신학의 시류와 세속화된 교회의 현실에 직면하여 우선적으로 수행하려는 신학운동이다.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2015. 6. 3.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is a joint research project which has been carried out since 1998. Its purpose is to clarify and articulate the theological position and missional task of ACTS. With a primary emphasis on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in all areas of theory and practice of Christian theology, ACTS intends to propose a way to apply and embody this truth in all aspects of Christian faith and life.

1.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Movement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is committed to emphasizing and propagating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is the core truth proclaimed by Jesus Christ and his apostles, transmitted by the church fathers and teachers, and clearly stated in all historic confessions of faith. It can be summarized as the message of salvation which declares that one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sanctification by faith in the one and only Savior Jesus Christ who died and was resurrected for our redemption, and finally enter the eternal kingdom of God. This central truth is a grand theme that runs throughout the entire Bible (Luke 24:25-27; 44-48; John 5:39; 20:31; II Timothy 3:15-17) and serves as the ultimate criterion by which biblical revelation can be correctly interpreted. ACTS intends to emphasize the preeminent importance of the central truth, the starting point and foundation of faith that leads to salvation.

2. Sound Theology Movement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is committed to constructing a sound theology that promotes faith by presenting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in a simple and definite way. In the present, not to mention the liberal theology, even the conservative theology fails to present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explicitly. Since the Enlightenment, the liberal theology has interpreted the supernatural revelation of the Bible in light of experience and reason alone based on rationalistic line of thought and view of history. It has stereotyped Christianity as some fragmentary, abstract philosophical concepts, while it focuses on the peripheral rather than the essential themes of Christianity. Though some conservative theologies do defend and justify principal doctrines, there is a tendency to become engaged in futile academic discussions around the particulars that are irrelevant to the core of Christianity. They tend to borrow humanistic and empirical methodologies, such as critical hermeneutical methodology, that conflict with faith premises. In light of the modern theologies that either neglect or distort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it is imperative that a movement such as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should

emerge.

3. True Believer Nurturing Movement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nurtures true believers through the communal "faith movement." In light of the reality of the present day church, this movement is greatly needed. In the 21st century, the so-called "age of pluralism," the orthodox doctrines and theology are neglected in an unprecedented manner. The global church, confronted by the scientific worldviews and challenges of secularism, is on the verge of losing orthodox faith. The majority of the Korean church today, despite its heritage of evangelical faith based on theologically orthodox doctrines, has become secularized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continually accused of moral corruption. The primary reason for such accusation is the failure of the Korean church to properly demonstrate a transformed holistic life which bears fruit of repentance through salvation by faith. She has reduced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to doctrinal assent which leads only to nominal confession. In response, by presenting both the content of salvation—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and the communal "faith movement," ACTS intends to nurture true Spirit-filled believers who can integrate theology and faith, doctrine and practice, and faith and action.

4. Church Unity Movement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is committed to establishing a unified church in Jesus Christ in collaboration with all Protestants who confess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The Bible teaches us to be of one accord and unity built upon the same confession of faith. However, the global ecumenical movement of the 20th century had deviated from biblical teaching by prioritizing institutional mergence rather than homogeneity of faith. On the other hand, the attempts to justify divisions based on secondary, not core, issues related to faith, also are contrary to biblical teaching. Since the Reformation, the Protestant denominations have been built on the same confession of faith in terms of the central truth and their doctrinal differences were not a matter of essence. The Korean church in the 21st century has the task of overcoming the history of wounds resulting from intense dissensions of the past century. The local church/denomination-oriented competition in terms of expansion needs to be subdued, and respect and collaboration between denominations should be encouraged. Therefore, ACTS intends to overcome the serious problem of denominational conflicts and schisms prevalent in the Korean church and to help contribute to building a unified church with the central truth both in Asia and around the world.

5. Church Renewal Movement

"ACTS Theological Synopsis" is committed to establishing theology that revives the church. It is dedicated to research in both theology and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as rightly emphasized by the Protestant church teachers in each era. ACTS intends to contribute to church restoration as it applies and embodies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in all theoretical and practical areas of Christian theology. It is this theology movement that ACTS, a "theocentric-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founded for the "evangelization of Asia," is committed to achieve in the face of the contemporary reality of the turbid state of theology and the secularized condition of the church.

ACTS 신앙고백서

우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음 항목을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위한 필수적인 믿음의 조항으로 고백한다. 우리는 초대교회 주요 신조들과 종교개혁의 대표적 신앙고백 및 복음주의 선언들의 신앙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내용을 믿는다.

1. 구약과 신약 정경 66권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신자들의 신앙과 삶을 위한 최종적인 규범이다.

2.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한 하나님으로, 본질과 속성이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도 동등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의 은혜롭고 선하신 뜻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신다.

3.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뜻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도록 되었으나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

5.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며 성도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보혜사시다. 그는 죄인을 부르셔서 죄를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시는 양자의 영이시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인격으로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을 주신다.

6. 참된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 성도가 이루는 그의 몸으로서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인 보편 교회이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워 주신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영적 성숙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7.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또한 그가 명하신 대로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여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이 땅 위에 확장하는 영적 공동체이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한 책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사명을 가진다.

8.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모든 죽은 자는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을 받아 의인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며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와 함께 새로워진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ACTS Statement of Faith

As the members of ACTS/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community, we here profess the following indispensable articles of faith pertaining to our belief and life. We believe in the core content of confessions contained in the major creeds of early church, Reformation and evangelical declarations.

1. The accurate and infallible Word of God as being the sixty-six canon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constitute the ultimate authority and norm for the faith and life of the saints.

2.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re one God, who are of one substance and equal in power and glory. The triune God creates, provides and saves according to His gracious and righteous will.

3.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only incarnated Son of God, is truly divine and truly human. Being born of the virgin Mary, He died on the cross as the atoning sacrifice and on the third day He rose from the dead and ascended to Heaven. On the last day, He shall come again from being at the right hand of God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to completely consummate the Kingdom of God.

4. Humankind wa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for divine fellowship and to rule over all creation. However, due to the disobedience of the first man, Adam, and his fall, he was separated from God, the source of life, and was plunged under the dominion of sin and death. Likewise, in Adam, the entire humanity has become sinners and subject to eternal death, but those who hear the Good News and believe in Jesus Christ shall have eternal life through His unlimited saving grace.

5. God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the truth, who witnesses concerning Christ and is the Helper to the saints. He is the Spirit of adoption who, by calling sinners to repentance, imparts regeneration,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until the glorious inheritance of the heavenly Kingdom. The Holy Spirit dwells in the saints and enables them to enjoy the enlightenment of the Word. He bestows the full power to serve and nurtures a mature transformation of personal character into the image of Christ for the ministry of God's kingdom.

6. The true Church is one holy apostolic universal Church, made of a body formed by the faithful saints united with Christ, through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Baptism and Eucharist are two sacraments instituted by Christ, the head of Church, and are the visible Word that must be continuously administered for the strengthening of faith

and for spiritual maturity.

7. The primary mandate of Church is to offer a worship in Christ that is acceptable to God. It is also to form Christ witnessing community by making disciples through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among all nations as Christ has commanded. The church in the world is a spiritual community that expands God's ruling upon the earth against the authority of the evil spirit that opposes God. As a holy community that loves God and its neighbors, it holds a mandate not only of bear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edification of a just society, but also to carry out Christian love for the sake of the poor and the oppressed.

8. At the end of the age, the Lord Jesus Christ will return to the world in His glory. At that time, all the dead shall be raised and stand before God's judgment. The righteous shall enjoy eternal blessing and the unrighteous shall receive eternal punishment. In the new heaven and new earth, the saints shall praise God forever and rule with the Lord over the renewed creation.

Part 2

초기 교회 문헌 연구의 관점에서 본 ACTS 신학-신앙운동의 의의

김규섭 박사 (신약신학)

초기 교회 문헌 연구의 관점에서 본 ACTS 신학/신앙운동의 의의

김규섭 교수

[초록]
본 소논문에서 우리는 ACTS 신학/신앙운동의 개요와 의의를 살핀 이후에, 한철하 박사의 초기 저작인 『고대 기독교 사상사』를 간략하게 살핀다. 우리는 한철하 박사의 초기 저작인 『고대 기독교 사상사』와 후기 저작인 『21세기 인류의 살길』 그리고 ACTS 신학/신앙운동 문서 사이에서 어떤 연속성이 있음을 고려한다. 이 연속성은 죄 사함의 복음, 산 신앙, 교회 연합에 대한 강조와 연관된다. 또한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2세기 교회 문헌인 『디오그네투스 서신』을 고려하면서, 이 문헌을 통해 ACTS 신학/신앙운동을 공관할 수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소논문은 초기 기독교 연구가 ACTS 신학/신앙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탐색한다.

1. 서론

본 논고에서 필자는 초대 교회 문헌의 관점에서 ACTS 신학/신앙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이하, ACTS)는 아세아와 세계 선교를 담당하기 위해 신본주의와 복음주의의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이며, ACTS는 개교 이래로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복음과 선교의 일꾼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감당해왔다. ACTS가 당면했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ACTS에 주어진 선교적, 교육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에는 ACTS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깊이 있는 헌신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통된 이해의 근간에는 학성 한철하 박사에 의해 주창되고, ACTS 교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지향/발전시키고 있는 ACTS 신학/신앙운동이 존재한다. ACTS 신학/신앙운동은 ACTS 구성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연구되었고, 신학의 각 분야가 ACTS 신학/신앙운동과 어떻게 조화롭게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문들도 계속적으로 발표되었다.[1)]

본 논고에서 우리는 ACTS 신학/신앙운동이 초대 교회 문헌 연구와 어떻게 조화되며, 초기 교회 문헌 연구가 ACTS 신학/신앙운동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한 예비적 고찰을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본 소논문은 두 가지 논의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ACTS 신학/신앙운동의 성격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한 이후에 한철하 박사의 초기 저작 『고대 기독교 사상사』과 ACTS 신학/신앙운동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의 사례 연구(test case)로서 2세기 초기 교회 문헌인 『디오그네투스 서신』(Epistle to

1) 예를 들어, 허주, “ACTS 신학-신앙운동,” 「ACTS 신학과 선교」 (서울: 그리심, 2005), 198-228; 신성욱, “ACTS 신학-신앙운동을 중심으로 본 구속사적 설교의 한계와 대안,” 「ACTS 신학저널」 38 (2018), 247-293; 한상화, “‘ACTS 신학’의 정체성—‘신학공관’과 ‘기독교 중심진리’,” 「ACTS 신학저널」 28 (2016), 9-42; 장해경. “‘ACTS 신학공관’이란 무엇인가?” 「ACTS 신학저널」 26 (2015), 141-187; 이수인, “ACTS 신학-신앙운동, 그 신학적, 교회사적 의의,” 「ACTS 신학저널」 27 (2016), 119-173; 김재윤, “ACTS 신학-신앙운동, 그 공헌과 전망,” 「ACTS 신학저널」 24 (2015), 87-119; 김성진, “ACTS 신학-신앙 운동 이해와 나아갈 길,” 「ACTS 신학저널」 21 (2014), 139-174; 강창희, “ACTS의 정체성과 신학교육,” 「ACTS 신학과 선교」 12 (2008), 45-121; 박응규, “ACTS 신학공관과 교회사 연구 해석에의 적용,” 「ACTS 신학저널」 23 (2015), 103-156; D.A. Carson, “Response to the ACTS Theological Synopsis,” 「ACTS Theological Journal」 7 (1988), 22-23; 김한성, “ACTS 신학-신앙 운동 이해와 교육 선교적 의의,” 「ACTS 신학과 선교」 13 (2013), 609-643; 안점식, “ACTS 신학-신앙 운동과 선교지 신학교육에의 적용 가능성,” 「ACTS 신학과 선교」 13 (2013), 439-472.

Diognetus)을 간략하게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ACTS 신학/신앙운동이 초대 교회 문헌 연구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2. ACTS 신학/신앙운동의 기본 정신

본 섹션에서는 ACTS 신학/신앙운동의 성격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한상화 교수는 ACTS 신학 공관 운동의 발전 단계를 다음과 같은 3 단계로 분류한다.

1) ACTS 신학의 기초와 정립: 1 단계(1968-1993)
2) ACTS 신학과 신학공관: 2 단계(1994-2010)
3) ACTS 신학-신앙 운동의 재개: 3 단계(2011-현재)

이러한 ACTS 신학 공관 운동의 발전 단계에 대하여 한상화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ACTS 신학 공관 운동은 "어느 한 사람의 주도가 아닌 교수 공동체 전체의 합의와 자발성을 지향하면서 지속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장해경 교수는 ACTS 신학 공관 운동의 기원을 1968년에 결의된 'CATS' (Center for Advanced Theological Studies)의 설립 계획서에서 발견하고자 한다.[3] 명시적으로 ACTS 신학 공관운동은 1994년 한철하 박사의 논문 "ACTS 신학공관 제안"에 따라 성립되었다. 한철하 박사는 ACTS 신학 공관 운동이 "칼빈 신학의 핵심을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공관"하는 것이며, 이것이 웨슬리의 신학과 병행되는 것이라고 말한다.[4] 한철하 박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대한 발견은 "1989년 7월에 평북노회신학사조연구위원회에서 발간한 『우리의 신앙』 서문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쓰는 가운데 비로소" 되어진 일이라고 언급한다.[5] 그 중심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며, "복음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일"이며, 죄 사함과 회개의 복음에서 발견된다고 한철하 박사는 진술한다.[6] ACTS 신학 공관 운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한철하 박사의 언급에서 잘 엿볼 수 있다.[7]

> 기독교 종교의 이 중심진리는 한 마디로 말해서 "복음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진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일치하여 주장한 "이신득의"(justificatio sola fide)의 진리요,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Pelagius)를 반대하여 세웠던 "sola gratia"의 진리요, 사도 바울이 먼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롬 3:28)고 선언한 진리입니다.

ACTS 신학 공관 운동은 일종의 "중심 진리 운동"으로서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으로서 요약될 수 있다:[8]

---

2) 한상화, "'ACTS 신학'의 정체성," 18.
3) 장해경, "'ACTS 신학공관'이란 무엇인가?" 143.
4)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양평: 칼빈아카데미, 2016), 411.
5)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324.
6)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324-325.
7) 한철하, "ACTS 신학공관 제안," 1.
8)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진, "ACTS 신학공관(ACTS Theological Synoptic

> 'ACTS 신학공관'은 '기독교 중심진리'(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를 강조하고 전파하려는 운동이다. '기독교의 중심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선포하였고, 교부들과 교회의 교사들이 전승하였으며, 모든 역사적 신앙고백들 가운데 명시되어 온 핵심진리이다. 그것은 '대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거룩함을 얻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메시지로 요약된다. 이 중심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로서(눅 24:25-27, 44-48; 요 5:39; 20:31; 딤후 3:15-17) 성경의 계시를 올바로 해석하는 궁극적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ACTS는 구원 얻는 믿음의 출발점과 기초가 되는 이 중심진리의 우선적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이러한 기독교의 중심 진리 운동은 기독교의 근본인 핵심 진리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인본주의적, 경험론적 방법론을 지양하며, 전통적 신앙을 유지하고, 참된 신앙인을 양육하는 실천적 목표를 지닌다. 특히 이러한 신학 공관 운동은 교회 연합 운동으로서, 기구적 통합이 아닌 신앙의 동질성을 확인하며, 종교 개혁 이후 여러 교파/교단의 신앙을 아우르는 동일한 성경적 신앙 고백을 세우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공통된 신앙 고백은 교파/교단간의 경쟁과 분열의 경험과 역사를 화합과 협력의 역사로 바꾸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심 진리 운동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삶의 전 영역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9)]

이러한 차원에서 허주 교수는 다음과 같이 ACTS 신학-신앙 운동의 본질적 성격을 요약한다.

> ACTS 신학-신앙운동에 있어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성격은 기독교 종교에 중심진리가 있다는 것이며, 이 중심진리가 '구원'임을 천명하는 것이다...한철하 박사는 칼빈의 이같은 구원 중심(summa)의 신학이 개별적 각론(pars)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관찰함으로써, 신학적 중심임을 관찰하고 있다.

그러므로 ACTS 신학-신앙운동은 중심 진리 운동으로서 그 중심과 각론의 관계를 고찰하는 운동이다. 또한 한철하 박사는 『21세기 인류의 살 길』에서 서양신학의 몰락과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현대신학의 인본주의적, 이성중심적 접근, 스콜라주의화에 대한 비판을 모색한다.[10)] 서양 현대의 사조 속에서 상기의 이성중심적 접근, 비판적 접근, 스콜라주의화로 인하여, 방법론적 오류를 저질렀고,[11)] 이것은 불신앙과 이성에 대한 우상숭배를 저지르는데 이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서양 신학은 많은 경우에 복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중심에 대한 관심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었으며, 이것은 한철하 박사의 초기 저작인 『고대 기독교 사상사』와 후기 저작인 『21세기 인류의 살 길』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ACTS 신학/신앙 운동은 무엇보다 성경에 기초하는 운동이다. 예를 들어, 한철하 박사는 기독교 종교의 기초를 성경에서 발견한다. 『21세기 인류의 살 길』에서 기독교

Movement)," 미출간 (2015. 4. 15), 1.

9) "ACTS 신학공관," 1-2.

10)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356.

11)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358.

종교의 기초인 '하늘의 심판'에 관하여, 예수님과 신약성경의 구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한철하 박사는 논의를 시작한다.[12] 신앙의 목표에 관해서도 한철하 박사는 성경적인 근거를 모두 탐구하며,[13] 칼빈과 웨슬리의 주장이 성경과 합치된다는 것을 진술한다. 물론 한철하 박사는 칼빈이 말하는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지만,[14] 이러한 칼빈의 언급이 성경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칼빈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해석은 전통에서 시작했지만, 성경에서 근거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전통으로 돌아와서 그 전통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하는 해석학적 나선(hermeneutical spiral), 혹은 해석학적 선순환의 한 과정을 보여준다. 이것은 단순히 전통으로부터 신앙의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거나(reading in), 해석자의 선입견을 투영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적-언어적 성경 해석을 한 이후에, 다시 전통과의 상호작용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러한 한철하 박사의 성경과 성경 해석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그의 신학의 기초가 칼빈과 웨슬리 뿐만 아니라, 바로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또한 한철하 박사가 다음의 항목들에 계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죄 사함의 복음에 대한 관심; 2) 산 신앙에 대한 강조; 3) 교회 연합에 대한 관심. 첫 번째로 한철하 박사는 죄 사함의 복음에 분명한 방점을 둔다. 한철하 박사의 『21세기 인류의 살길』에서는 '죄 사함'이라는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조한다. 예를 들어서:

> 예수님의 행하심 역시 같은 한 가지 일에 집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었습니까? 보혈로 우리 죄를 속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15]

한철하 박사는 위에서 예수님의 행하심은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함이었다는 점을 역설한다. 우리는 죄 사함에 대한 관심을 한철하 박사의 저작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견한다. 또한 한철하 박사는 죄 사함의 복음을 회개와 연결한다:

>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값없이 죄 사함을 받은 후에, 또한 "회개"하고 "중생"하여, "거룩함"도 얻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들어감을 얻습니다.[16]

이와 같이 한철하 박사는 "죄 사함을 받은 후에" 회개하고 중생하여 거룩함을 얻어야 함을 바르게 진술한다. 한철하 박사는 회개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한다. 그는 "회개와 중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진술한다.[17] 또한 한철하 박사는 "회개 없이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역설한다.[18]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뿐 아니라, 회개하고 중생

---

12)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38-44.
13)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58-68
14)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52.
15)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57.
16)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86.
17)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87.
18)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91.

하여, 성화에 이른다. 회개는 신생(newness of life)을 동반해야하고, 또한 거룩한 생활을 동반해야 한다는 칼빈의 입장을 한철하 박사는 다시 한번 확인한다.[19] 이와 같이 한철하 박사의 죄 사함과 회개의 복음은 칭의 뿐 아니라 성화를 아우르는 통전적인 것이다. 즉, 한철하 박사가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영혼 구원이 아니라 전인 구원이며, 성화와 영화를 아우르는 통전적인 개념이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집중되지만,[20] 이것은 신자의 행실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철하 박사의 관심은 "죄 사함과 회개"의 복음이고, 이것이 한철하 박사의 관심이 칭의와 성화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목표지점을 향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철하 박사의 구원관이 통전적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측면 즉 '산 신앙'(living faith)에 대한 강조이다.[21] 한철하 박사는 웨슬리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심령 속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언급하고 나서, 이 "산 신앙"이 일어나야한다는 점을 언급한다.[22] 그러므로 죄 사함과 회개의 복음은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신앙이다. 한철하 박사는 계속해서, "한국이 살 길은 정직과 선함과 하나님의 의"라는 점을 역설한다.[23] 즉, 한철하 박사가 말하는 복음은 정적이고, 사변적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것이다. 한철하 박사는 영국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영국 교회는 외적 종교였지만, 웨슬리는 자기의 종교를 내적 종교로 부르며, "즉 영혼의 내면 세계에 변화를 일으킨 점에 있어서 형식화되어 버린 '외적 종교'와 다르다"고 말한다.[24] 한철하 박사는 또한 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심령, 인식, 욕망, 탐욕과 같은 단어들을 즐겨 사용한다. 이것은 "복음이 먼저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생활화되고,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변화를 받아 열매 맺게 되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25]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해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한다.[26]

세 번째는 교회 연합에 대한 한철하 박사의 관심이다. 한철하 박사는 칼빈 신학의 웨슬리적 실천이 바로 ACTS 신학이라고 말한다.[27] 한철하 박사는 "참된 기독교 종교를 세우고 실천하기에 힘쓰는 하나의 신학을 지향하는 신학교는 찾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ACTS는 "Calvin-Wesley" 신학을 가르친다고 말한다.[28] 다른 한편 ACTS가 교회 연합적 신학을 지향하는 것은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을 동시에 지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교회 연합적 신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한철하 박사의 다음 진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ACTS의 신학이 별다른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의 신학입니다. 사도들의 신학입니다 교회의 신학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29]

---

19)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196.
20)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104.
21)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167.
22)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초판)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168.
23)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초판), 169.
24)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초판), 211.
25)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초판), 213-214.
26)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초판), 258.
27)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410.
28) Ibid.

ACTS는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 연합적이지만, 동시에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한 교회 연합적이다. 왜냐하면 참된 기독교 신학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철하 박사는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한 두 종류의 신학적 조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진정한 교회 연합적 신학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한철하 박사는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철하 박사는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적합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성경에 근거한 신학을 추구해야 함을 역설한다.[30]

우리는 이와 같은 측면이 ACTS 신학/신앙 운동의 문서들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논문 "ACTS 信仰運動의 方向"에서 한철하 박사는 ACTS 신학/신앙 운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31]

> ① 칼빈-웨슬레이의 참 信者의 標準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罪에 대하여, 따라서 죄인 괴수들임에 대한 悔改운동 (하나님께 대한 悔改).
> ②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罪를 赦하여 주심에 대한 信仰운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信仰).
> ③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聖靈주심으로 子女됨을 우리 靈魂 속에 인치심으로 인한 子女生活운동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말할 나위 없이 ACTS 신학/신앙 운동은 죄 사함의 복음에 기반하며, 이것은 단지 바른 신학의 운동일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산 신앙을 위한 신앙 운동이기도 하다.

또한 ACTS 공동체는 ACTS 신학/신앙운동이 특정 교리 중심이 아닌 교회 연합적 선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바르게 인지한다. 예를 들어서, 한상화 교수는 "기독교의 중심진리는 '복음 신앙을 통한 구원'인데, 이는 하나의 특정 교리나 이론적 원리로 제한될 수 없는 광범위한 구원의 실재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기독교 종교의 중심축을 이룬다"는 점을 언급하며,[32] "ACTS 신학에는 기독교 본래의 순수한 성경적 신앙을 중심으로 연합하고자 하는 참된 교회 일치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33] 이것은 ACTS 신학/신앙운동이 교회 연합적 운동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

29)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415.

30) 이러한 생각은 ACTS 신학/신앙 운동의 방법론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철하 박사는 헤르만 도여베르트의 초월적 방법론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체계에 접근할 때, 그 체계의 근본동기(ground motive)를 찾아서 그것을 공평하게 평가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의 위치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종합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한철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신학공관" 제안," 「성경과 신학」 22 (1997), 23. 초월적 방법론은 이수인 교수가 언급하는 것 같이,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다른 상대방의 신학적 업적을 송두리째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 버리는 '초절적 비판'과 달리 상대방의 체계의 "근본 동기"(ground motive)를 찾아본 후 그 근본 동기를 공평하게 평가하여 그의 업적의 의미나 가치를 자리매김하고 종합해 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수인. "ACTS 신학-신앙운동, 그 신학적, 교회사적 의의." 「ACTS 신학저널」 27 (2016), 152.

31) 한철하, "ACTS 信仰運動의 方向," (ACTS 교수세미나, 1999. 11. 3), 3.

32) 한상화, "'ACTS 신학'의 정체성," 9.

33) 한상화, "'ACTS 신학'의 정체성," 38.

요컨대, ACTS 신학/신앙운동은 이성중심적, 스콜라주의적 한계를 극복하는 신학운동이며, 성경적 신학을 도모하고, 사변적 신학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을 도모하는 신앙운동이다. ACTS 신학/신앙운동은 그 제안과 발전에 있어서 성경적 근거에 대한 해석학적 관심, 죄 사함의 복음에 대한 관심, 산 신앙에 대한 강조, 교회 연합에 대한 관심을 지닌다. 우리는 ACTS 신학/신앙 운동의 이러한 측면이 초대 교회 문헌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아래에서 고려할 것이다. 먼저 우리는 다음 섹션에서 한철하 박사의 『고대 기독교 사상사』를 검토할 것이다. 『고대 기독교 사상사』를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ACTS 신학/신앙 운동의 연구에 있어서 『고대 기독교 사상사』를 검토한 연구는 아직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대 기독교 사상사』는 한철하 박사의 후기 저작에서 거의 인용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는 『고대 기독교 사상사』가 ACTS 신학/신앙 운동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고대 기독교 사상사』가 바로 본 글의 세 번째 섹션에서 논할 초대 교회 문헌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저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초대 교회 문헌 연구의 한 예로서의 『고대 기독교 사상사』

우리가 ACTS 신학/신앙 운동을 초대 교회 문헌 연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기 이전에, 먼저, 초대 교회 문헌에 대한 연구가 ACTS 신학/신앙 운동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먼저 ACTS 신학/신앙 운동이 나타나기 이전인 1960-1970년대에 저술된 한철하 박사의 저작을 통하여, 초대 교회 문헌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1970년에 출간된 『고대 기독교 사상사』는 한철하 박사의 신학과 사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한철하 박사의 『고대 기독교 사상사』의 저술 방법론의 기본적 성격에 대해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1) 교리사적 태도; 2) 신앙의 역사로서의 『고대 기독교 사상사』.

첫 번째로 이 저작이 기본적으로 교리사적 태도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리사의 서술 방식은 1) 교리 발생의 상황 제시; 2) 교부들의 발언과 사상의 요약; 3) 교리 공식화로 볼 수 있다. 한철하 박사의 『고대 기독교 사상사』도 이러한 서술 방식을 대체로 따른다. 또한 교리사를 수평적 방법과 수직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34] 수평적 방법이란, 어떤 시대의 교회사 속에 나타난 교리의 형성, 발전의 전체를 요약, 취급하는 것이고, 수직적 방식은 특정 교리를 선택해서 그 교리의 발전을 추적하는 것이다. 한철하 박사의 『고대 기독교 사상사』는 수직적 방법에 따라 쓰여진 저작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한철하 박사의 『고대 기독교 사상사』 서술이 아돌프 하르낙(Adolf Harnack)의 교리사 서술 태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특히 헬라 문화와 기독교 교리 발전의 관계에 대하여 한철하 박사의 서술은 하르낙의 교리사 서술과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다. 하르낙은 헬라 문화와 기독교 교리 발전의 관계를 정-반-합의 헤겔적 변증법적 역사 서술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하르낙은 고대 교회의 교리사에서 교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교리(Dogma)는 개념과 발전(Ausbau)에 있어서, 복음의 토양으로부터 비롯된, 헬라적 정신의 발현(Werk)이라 할 수 있다."[35]

그러나 한철하 박사는 하르낙적 교리사 서술과 다른 방식을 취한다. 한철하 박사는

---

34) 김광채, 『고대 교리사』 (서울: 보라상사, 2003), 29.

35) Adolf Harnack, *Lehrbuch der Dogmengeschichte I* (Freiburg: J.C.B. Mohr, 1888), 20.

헬라적 발전보다는 초대 교회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일종의 중심진리)에 역점을 두며, 이 본질이 초대 교회에서 보존되었고, 이 본질은 다름 아닌 성경과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점을 역설한다.[36] 이러한 『고대 기독교 사상사』의 서술 태도를 예고한 논문은 1960년에 『신학지남』을 통해 발표한 "교리사에 있어서의 현대사조"이다. 이 논문에서 한철하 박사는 인본주의적 사조로부터 기독교의 본질을 구분해 내려고 한다.[37] 마찬가지로 『고대 기독교 사상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본주의적 태도를 역설한다. 교리사적 태도는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의 구분, 즉 가변적인 역사적 상황과 부수적 요소들과 기독교의 본질적 요소를 구분해내는 것이다. 한철하 박사는 이러한 교리사적 태도를 통하여 고대 교회의 교리들을 분류, 분석하며, 그 가운데 고대 교회가 변함없이 붙잡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이러한 한철하 박사의 방법론은 고대 기독교 사상사의 통일성을 논하는 측면과 연결된다。한철하 박사는 자신의 관심사가 사상의 핵심, 즉 통일점에 있음을 『고대 기독교 사상사』의 서론에서 밝힌다.[38]

> '사상'은 인간이 가지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사상을 만드는 존재이다. 그리고 사상에는 어떤 핵심, 즉 통일점이 있다. 이 통일점을 중심으로 모든 정신 활동이 의미의 통일을 얻게 된다.

이렇듯 통일점에 대한 관심은 『고대 기독교 사상사』에 투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철하 박사는 교리사적 방법론을 통하여, 성경적, 사도적 신앙의 통일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대 기독교 사상사』를 저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통일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고려해 볼 것이다.

두 번째로 한철하 박사는 무엇보다도 교리사를 '신앙'의 역사로 파악한다. 이것은 한철하 박사가 『고대 기독교 사상사』를 '교리의 역사' 혹은 '개념의 역사'가 아닌 신앙의 역사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것은 교리사가들이 흔히 관심을 가지는 단순히 '신앙의 표현(Glaubensausdruck)의 역사,' 혹은 '신학의 역사'가 아닌, '신앙 자체의 역사'에 한철하 박사가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신앙은 '성경의 신앙'을 지칭하며, 신앙 자체의 역사를 탐구한다는 말은 성경으로부터 전수된 초대 교회의 신앙의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경의 신앙"을 "교리사에 등장하는 여러 사상, 교리, 신조의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철하 박사는 역설한다.[39]

또한 한철하 박사는 1964년에 출판한 다른 논문에서 조직/역사신학자 뿐 아니라 성서학자로부터 받은 영향을 언급한다. 맥코믹 신학교에서 구약학자이자 성경고고학자인 조지 어네스트 라이트 교수(George Ernest Wright)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조지 어네스트 라이트의 성경의 역사적 신학적 해석법은 나에게 계시의 역사성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주었다"는 점을 진술한다.[40] 이 점은 한철하 박사는 초기부터 성경 연구의 역사적 측면과 성

---

36) 아돌프 하르낙에 대한 한철하 박사의 비평은 그의 저작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15-16, 198 등.

37) 한철하, "교리사에 있어서의 현대사조," 30-49.

38) Ibid.

39)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16.

40) 한철하, "내가 영향받은 신학자와 그 저서," 『기독교사상』 8 (1964), 48. 세속화 이론에 대한 한철하 박사의 비평과 반론에 대하여, 한철하, "한국 교회의 신학적 과제: 윤성범 교수에게 답한다," 『기독교사상』 116 (1968), 84-89. "현대 사조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의 피조성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의 작용의 결과"라는 한철하 박사의 비평은, 한철하, "교리사에 있어서의 현대 사조,"

경의 역사성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물론 한철하 박사는 성경 연구와 교리사 연구를 구분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교리사 연구에 있어서의 표준이 되며," 또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한철하 박사는 말한다.[41] 한철하 박사는 성경 연구와 교리사 연구의 관계를 일종의 해석학적 순환의 관계로 파악한다:[42]

> 교리사의 각 시대의 신앙 사상은 성경의 신앙에 비추어서 이해되며, 비판되어야 하며, 또 한편 성경의 신앙은 교리사상의 각 교회의 신앙적 노력과 그 업적을 통하여 더 밝아지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해석학적 순환은 이후의 저작인 『21세기 인류의 살 길』에서도 발견된다.[43] 한철하 박사는 단순히 교리를 진술하는 데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토대 위에서 교리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이해하는데도 관심을 두는 것이다.[44]

또한 이것은 의미 있는 진술일 수 있다. 왜냐하면 교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으로 고백해야 할 내용에 대한 교회 회의의 합의 사항 내지 결정사항"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45] 그렇다면 한철하 박사는 『고대 기독교 사상사』의 관심이 단순히 '교회 회의 합의' 보다 넓은 것에 있음을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철하 박사는 본서의 제목을 '고대 기독교 교리사'가 아닌 '고대 기독교 사상사'라고 정한 것이 의미 있음을 양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철하 박사는 교리와 사상의 차이점은 크지 않다고 말하고, 사상과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양면이라고 말한다.[46]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 면으로 더욱 굳어진 규격화된 신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상과 교리는 구별된다고 한철하 박사가 말한다. 그러므로 한철하 박사가 언급하듯이, 교리는 일반적으로 신조의 형식으로 격식화되며,[47] 신앙의 규칙(regula fidei)로서 교회 회의에서 고백되는 내용이기도 하다.[48] 그렇다면 『고대 기독교 사상사』의 관심은 기존의 교리사보다 폭넓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한철하 박사는 기독교 사상의 교리의 본원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초대 교회의 가르침

『신학지남』 27 (1960), 49.

41)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16.

42)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16-17.

43) 예를 들어,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52.

44) 한철하 박사는 어거스틴에게서도 사도적 신앙의 계승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철하 박사는 하나님을 봄(visio dei)의 개념을 설명하면서"그리고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 자체를 논하며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지 플라톤 철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지적한다.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85. 그렇다면 어거스틴이 플라톤 철학을 통하여 새롭고 독자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기독교 신앙 자체에 정초하고 있음에 한철하 박사는 관심을 둔다. 마찬가지로 어거스틴에 있어서의 바울의 영향은 지대하며,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바울의 영향 하에 있었"고, "교직의 자리에 오른 후부터는 더욱 열심히 바울서신들을 공부"했다는 점을 언급한다.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78. 또한 한철하 박사는 어거스틴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바울을 상기한다: "교회와 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갈 5:6)고 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다."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90. 이상의 경우들을 고찰해볼 때, 『고대 기독교 사상사』를 서술하면서, 한철하 박사의 주요한 관심사는 성경적, 사도적 신학과 신앙의 계승, 발전을 살펴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5) 김광채, 『고대 교리사』, 1.

46)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12.

47) 신조가 교리보다 범위가 좁은 것이라는 점을 한철하 박사는 언급한다.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13.

48)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11.

은 “신앙에서 신앙에로 직접 교회의 모체 속에 산 전통으로서 전달됨이 사실”이라고 말한다.[49] 초대 교회가 “산 신앙”의 전통(파라도시스)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의 진술로부터 알고 있다고 한철하 박사는 진술한다(예로서 성경 인용은 고전 15:3; 살후 2:15; 딤전 6:20; 딤후 3:6 등이다). 교회는 여러 다른 문화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 고백의 형식으로 신조를 제정”하였다.[50]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살아있는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보존해왔다. 한철하 박사는 이렇듯, 『고대 기독교 사상사』의 서두에서 자신의 관심이 살아있는 신앙의 전통의 전달을 관찰하는데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한철하 박사는 고대교회사를 사변적 신학 논쟁사로 파악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일관된 사도적 신학과 실천적 신앙을 읽어내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철하 박사는 『고대 기독교 사상사』를 서술할 때, 시대별 차이 뿐 아니라, 연속성에 분명한 방점을 둔다. 이 연속성은 다름 아닌 기독교의 중심(summa) 혹은 본질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철하 박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고대교회사를 고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명히 한철하 박사는 『고대 기독교 사상사』에서 “객관적, 분석적 태도”로 고대교회사를 고찰한다고 천명한다.[51] 그렇다면 우리는 ACTS 신학/신앙 운동과의 공통 관심사를 『고대 기독교 사상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1) 죄 사함의 복음에 대한 관심; 2) 산 신앙에 대한 강조; 3) 교회 연합에 대한 관심. 이러한 내용적 관심은 『고대 기독교 사상사』에서 직접 진술되는 것 뿐 아니라, 사상사의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한철하 박사가 선별, 채택, 배열한 것에서 암시되며, 사상사의 의의에 대해서 한철하 박사 자신이 직접 진술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발견된다. 이 점은 위에서 말한 『고대 기독교 사상사』의 내용적 초점과도 관련될 것이다.

첫 번째 내용적 초점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다. 먼저 한철하 박사는 복음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대 기독교 사상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오늘의 세속 사회는 저와 같은 서양의 중세적 생의 체계를 깨뜨리고 나와서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면서 줄달음 치고 있다...서양의 이 제 3세 문명을 길러낸 교회는 이제는 그 노쇠증을 철저히 드러내고 있다...소위 교회 밖에도 신국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하여 교회사에 있어서 역사의 의미를 찾던 태도를 지양되어야 하고, 역사의 의미의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52]

한철하 박사는 자연과 은총의 이층 구조에서 은총의 우위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 세속사회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유효하며, 어떤 것보다 의미가 있다. 한철하 박사는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만일 교회가 ‘가진’다고 자처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면 벌써 모든 일이 결판이 났을 것이다.”[53] 한철하 박사는 속사도 교부들도 이신칭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역설한다.[54] 또한 터툴리안도 회개와 죄 사함의 가르침을 지녔다.[55] 또한 어거스틴의 가르침에서 죄 사함의 복음에 대한 중요성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분명

49)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17.
50)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18.
51)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16.
52)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322.
53)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322.
54)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1.
55)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103-105.

히 드러난다.[56] 또한 어거스틴의 은총의 교리에도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분명한 강조가 나타난다.[57]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있어서 인간의 죄악과 원죄의 깊이가 드러난다는 점을 한철하 박사는 지적한다.[58] 이것은 카르타고 회의에서 죄와 은총에 대한 헌장에서 분명히 나타난다.[59] 이 은총의 교리가 영원한 타당성을 지니는 성경적 교리임을 역설하면서, 이 어거스틴의 사상은 성경, 특히 바울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철하 박사는 설명한다.[60] 한철하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 은총의 교리가 확립되었음을 말한다: "은총의 교사 어거스틴을 통하여 또한 이 카르타고 회의를 통하여 교회는 기독교는 영원히 죄와 사죄의 은총의 종교임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61] 그러므로 『고대 기독교 사상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초대 교회에서 전승되어 온 '복음'이며, 한철하 박사는 이 복음이 종교 개혁 시기의 산물이 아니라, 초대 교회부터 이어진 가르침이라고 관찰한다.[62]

두 번째는 산 신앙에 대한 강조이다. 초대 교회 신앙 고백은 분명히 신본주의적, 즉 하나님 중심적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복음이라고 한철하 박사는 말한다. 또한 한철하 박사는 이 복음을 믿는 초대 교회의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산 신앙'(living faith)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한철하 박사는 신앙에 대한 강조를 서론에서부터 거론한다.[63] 또한 한철하 박사는 이그나티우스를 비평하는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 기억'을 물려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64]고 말하며, 또한 "이 신앙, 이 태도 없이 기독교회는 닥쳐 오는 2백년에 대한 박해를 결코 이겨내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말한다.[65] 또한 한철하 박사는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사랑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강조한다.[66] 한철하 박사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권위"와 "이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탐색을 한다.[67] 그러나 한철하 박사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사변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신앙으로 시작하여 이성의 힘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을 봄'(visio dei)에 이른다는 어거스틴의 확신은 그 일생 동안 변함이 없었다"라고 말한다.[68] 또한 한철하 박사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어거스틴에게 중요한 것은 신플라톤주의 철학 그 자체가 아니요 신앙과 그 내용을 아는 지식이다."[69] 한철하 박사는 어거스틴이 이지적인 헬라철학과 자신의 가르침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70]

즉 감관적인 사물을 다 피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비감관적인 예지적인 것

---

56)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92ff.
57) 예를 들어.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77.
58)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96.
59)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303-304.
60)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78-283.
61)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304.
62) 이러한 초점은 또한 복음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초점이며, 이 시대가 되찾아야하는 점이라는 것을 역설하는 다음의 저작에서도 확인된다. 한철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평북노회신학사조연구위원회 편; 서울: 기독교문사, 1990), 9-41.
63)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18.
64)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2.
65)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2-23.
66)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90.
67)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62-285.
68)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74.
69)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91.
70)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83.

> 을 추구하는 헬라 사상과 기독교 신앙을 구별하고 있다. 즉, 형상-질료(form-matter)의 헬라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중심한 사고에로 돌이키고 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신앙에 복무하며, 가르침을 전파한다고 한철하 박사는 평가한다:[71]

> 그리하여 신국이 지상을 순례하는 동안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봉사하여야 할 것이며, 그들의 경건과 종교가 손해를 받지 않는 한 이 세상의 평화를 하늘의 평화에 종속시킨다. 그는 하늘의 평화를 바라보며, 그 평화를 모든 이웃과 나누기를 힘쓴다."

앞서서 한철하 박사는 어거스틴을 다루기 전에 앞서 클레멘트를 다룰 때, 클레멘트가 이신칭의에 대한 가르침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한철하 박사는 클레멘트의 선행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며, 어두워진 깨달음이 빛을 받게 되고, 모든 덕을 허락하시는 것도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72] 그렇다면, 성도가 삶과 신앙에 있어서 성도의 자력으로 어떤 공로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살아야한다는 점을 한철하 박사는 로마의 클레멘트의 저작을 통하여서도 발견하는 것이다.[73]

세 번째는 교회 연합에 대한 관심이다. 앞서 말했듯이, 한철하 박사가 사상의 폐쇄성을 극복하고,[74] 좁은 의미의 신조사가 아닌 "결국 사상이든 교리든 신조든 간에 모두 계시의 책인 성경에 의하여 규정될 때 각각 그 기능들을 잘 발휘하게 될 것이다"[75]라고 언급하는데서 이러한 관심이 잘 드러난다. 다시 말해, 교회의 연합은 개인과 공동체가 성경적 가르침에 정초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레니우스의 가르침에서와 같이 온 세계의 교회가 하나의 신앙을 공유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76] 키프리안의 가르침과 같이 교회의 일치를 지켜야 할 일이다.[77] 한철하 박사는 칼케돈 공의회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이 하여 온 세계 교회는 다 함께 칼케돈에 모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78] 또한 칼케돈의 결론도 교회의 일치와 가르침의 통일성과 관련됨을 한철하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79]

> 칼케돈의 결론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가 길이 간직하여 갈 신앙의 규준으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은 그의 모든 구원의 사업의 기초이며 그의 영원한 구원의 사업은 변하는 시대가 새로 발견하는 여러 가지 의의의 불변한 기초로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80]

---

71)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320.
72)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5-26.
73)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5.
74)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14.
75)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15.
76) 참조.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50.
77)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110.
78)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42.
79)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50.

또한 한철하 박사는 교회의 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81]

> 그러므로 모든 분열, 교회로부터의 분열 등은 사랑을 깨뜨리며 성령의 생명을 질식케 한다...사랑의 역사는 카톨릭 교회(보편적 교회) 안에 실지로 나타나나 분열자들에 있어서는 나타날 수 없다.

한철하 박사에 의하면 교회의 일치는 중요하며, 분열은 성령의 생명을 질식케 하는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 한철하 박사가 말하는 교회의 일치는 무조건적 일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일치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철하 박사는 키프리안이 교회의 일치를 말하였지만, 그의 가르침에서 "제도적 교회"가 절대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을 바르게 지적한다.[82] 또한 교회의 일치가 중요하지만 도나티스트들에 대한 징계는 타당한 것이었다: "어거스틴은 이상과 같은 사랑의 징계의 원리에 따라서 도나티스트를 강제로 탄압하여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였다."[83] 그러므로 한철하 박사는 교회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그의 저작에서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한철하 박사의 『고대 기독교 사상사』의 방법론과 내용의 관심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고대 기독교 사상사』의 방법론은 1) 교리사적 태도; 2) 신앙의 역사로서의 『고대 기독교 사상사』로 요약할 수 있으며, 또한 『고대 기독교 사상사』의 저술에 있어서 고대 교회의 가르침의 통일성에 관심을 두며, 이 통일성은 성경적 기원에서 말미암는다. 또한 내용적으로 『고대 기독교 사상사』로부터 ACTS 신학/신앙 운동과 유사한 관심사를 우리는 발견한다: 1) 죄 사함의 복음에 대한 관심; 2) 산 신앙에 대한 강조; 3) 교회 연합에 대한 관심. 여기에서 ACTS 신학/신앙운동에 대한 한철하 박사의 제안은 그의 초대 교회 연구와 완전히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ACTS 신학/신앙운동에 대한 자료들과 한철하 박사의 후기 저작에서는 어거스틴을 제외한 교부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ACTS 신학/신앙운동이 초기 교회의 신학과 문헌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기독교 사상사』와 이후의 ACTS 신학/신앙운동의 문서들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대 기독교 사상사』를 저술할 때의 상황과 80-90년 대 이후의 문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고대 기독교 사상사』에 ACTS 신학/신앙운동의 씨앗이 없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ACTS 신학/신앙 운동과 『디오그네투스 서신』

위에서 논의한 한철하 박사의 ACTS 신학/신앙 운동의 근본 취지와 학성의 초기 저작인 『고대 기독교 사상사』의 연속성을 고려해보았다. 본 섹션에서 위의 관찰들이 초대 그리스도교 문헌 연구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 간략하게 고려해 볼 것이다. 우리가 이 섹션에서 살펴볼

---

80) 또한 어거스틴은 교회 분열과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 "어거스틴은 이 교회 분열의 기원은 결국 형제에 대한 증오라고 단정하였다."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89.

81)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90.

82)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115.

83)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92. 도나티스트파의 교만과 분리에 대한 또 다른 비평은 한철하, "완전론자와 분리주의자에 대한 칼빈의 논박 - 칼빈 기독교강요 IV, I, 12-16," 『신학지남』 30 (1963), 41.

『디오그네투스 서신』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인 의미의 '연구'라기 보다는 문헌에 대한 간략한 소개 차원에서 그칠 것이며, 주로 『디오그네투스 서신』을 ACTS 신학/신앙 운동의 관점에서 공관할 수 있는지 고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특히 2세기 교회 문헌의 신학적 다양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동시에 어떠한 중심(summa)이 존재하는지를 『디오그네투스 서신』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2세기 중반 혹은 후반,[84]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디오그네투스에게 헌정된 호교론적 문헌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을 변증하며, 불신자인 디오그네투스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도록 유려한 헬라어 문장을 통하여 권유한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믿지 않는 이에게 이방종교/유대교와 구분되는 기독교의 성격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뿐 아니라, 신앙을 가지도록 권면하는, 전도를 위한 문서이며, 또한 새로운 삶과 윤리를 논하는 권면적 성격을 지닌다. 16세기의 출판업자 스테파누스가 이 문헌에 서신이라는 명칭(Πρὸς Διόγνητον Ἐπιστολή)을 붙인 이래로,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일반적으로 서신이라는 제목이 붙지만, 이 문헌은 사실 서신은 아니다. κράτιστε Διόγνητε (디오그네투스 각하여)라는 문헌의 시작 부분은 서신적 서론이 아닌 헌정의 형식이다. 게다가 본 문헌은 서신적 결론을 지니고 있지 않다. 당대 권면 장르는 대개, "...에게"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2세기 저자인 순교자 저스틴의 첫 번째 변증(The First Apology)도 『디오그네투스 서신』과 유사한 서론을 가지고 있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고대의 장르 분류에 따르면 수신자에게 그의 생활방식을 바꾸라고 촉구하는 권면으로서 전형적인 프로트렙시스(protrepsis)의 장르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본 문헌에 대한 일반적 명칭인 『디오그네투스 서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본 문헌을 호칭할 것이다.[85]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 합의되지 않는 이슈가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폴 포스터(Paul Foster)는[86] 『디오그네투스 서신』 (이하 Diogn.) 10:6[87]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μιμητής θεοῦ)라는 개념이 신화(deification)의 개념의 전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한편에서 앙리 마루(Henri Marrou)는 Diogn. 10:6의 μιμητής θεοῦ가 헬라 철학에서 영웅적 인물에 대한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88] 그러나 우리는 10:6에 나타난 μιμητής θεοῦ가 신화의 개념 혹은 영웅적 인물의 개념을 반영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에베소서 5:1에서 우리는 이미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μιμηταὶ τοῦ θεοῦ)이 되고"라는 구절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저자는 이러한 바울의 구도를 그대로 따라간 것으로 볼 수 있다.[89] 우

---

84) 기원후 2세기 중반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경우로는 W.H.C. Frend, *The Rise of Christianity* (Minneapolis: Fortress, 1984), 236.

85) 독일에서는 『디오그네투스 서신』를 Brief (서신; Brief an Diognet)이라는 제목 뿐 아니라, Schrift (문헌; Schrift an Diognet)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86) Paul Foster, "The Epistle to Diognetus," *Expository Times* 118 (2007), 166.

87) Diogn. 10:6: "그러나 이웃의 짐을 자기가 대신 지는 사람, 자기의 처지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나은 경우에 자기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베푸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웃이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본받는 이들입니다."

88) Henri I. Marrou, *À Diognète* (Paris: Cerf, 1951), 216.

89) "신을 본받음" 혹은 "신의 행실을 본받음"이라는 개념은 헬라 사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념으로서 신화(deification)와 별개의 개념일 수 있다(예를 들어, Dio Chrysostom, I.37). 즉, '신의 행동'이 인간의 행동의 모본(archetype)이 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라톤에게도 mimesis 라는 개념이 중요했지만, 이 개념에서 신의 행동이 인간의 행동의 paradeigma 혹은 모범(archetype)으로서 역할을 한다. Marie-Élise Zovko, "The Divine Poet: Mimēsis and Homoiosis Theoi in Plato," in *The Many Faces of Mimesis: Selected Essays from the 2017*

리가 『디오그네투스 서신』을 Diogn. 10:6을 통하여 영웅화 혹은 신화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유추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어떤 학자[90]는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기독론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된 기독론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예수님의 신성을 결코 축소하지 않는다. 첫 번째로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후대 교회의 본격적인 논쟁 이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디오그네투스 서신』에서 종속론(subordinationism)을 발견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해석일 수 있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기독론적으로 불가해한 개념을 억지로 해설하려고 하지 않으며, 또한 스콜라적인 사색을 하지 않고, 최대한 단순하게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로고스 기독론(7:2)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사색적으로 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과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창조 중보자직에 대한 묘사 내에서 로고스 기독론을 해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암시한다. 예를 들어, Diogn. 9:6에서 "하나님은...구세주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분[즉, 구세주 예수님] 안에 양식을 주시는 분, 아버지, 스승, 조언자, 의사, 인식, 빛, 명예, 영광, 힘, 생명 등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구세주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는 분명히 성육신을 의미한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디오그네투스 서신』이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신약의 구도(특히 요한복음 14:8-14)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대체로 신약성경의 표현과 사고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기독론적인 측면도 분명히 발견된다.[91] 또한 Diogn. 9:2에서 "바로 그 분께서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αὐτὸς τὰς ἡμετέρας ἁμαρτίας ἀνεδέξατο)라는 표현에서 주어 "그 분"은 문맥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둘 다를 의미할 수 있다. 죄악을 짊어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것을 떠맡은 분은 그리스도이시기도 하다. 이 표현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실상 동일시되고 있다. 9:1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은 "그 아들과 더불어 운영된 것이다"(σὺν τῷ παιδὶ οἰκονομηκώς)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또한 9:2의 표현은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저자에 따르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고기독론을 전제하고 그의 구원론적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ACTS 신학/신앙 운동과 『디오그네투스 서신』이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는가?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죄 사함의 복음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다. 『디오그네투스 서신』

Symposium on the Hellenic Heritage of Western Greece (Fonte Aretusa: Parnassos, 2018), 90.

90) Marrou, *À Diognète*, 100.

91)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성경 사용에 분명한 관심을 보인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저자는 자신이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다고 단언하며(11:1), 구약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선조들에 대한 존중을 천명한다(11:5-6). 필자의 계산으로는 『디오그네투스 서신』에 나타난 성경의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암시(allusion), 메아리(echo)를 포함하여, 성경이 반영되거나 사용된 경우는 모두 66차례에 이른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주요 논증은 성경을 통해 구성되며, 특히 바울 서신과 베드로전서가 반복적으로 인용된다. 바울 서신은 주로 구원론적 논증을 위하여 사용되며(예를 들어, Diog. 9:5과 로마서 5:18-19를 비교하라),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나그네됨, 윤리적 권면을 위하여 사용된다. 참조. Helmut Koester, *Synoptische Überlieferung bei den apostolischen Vätern* (Berlin: Akademie-Verlag, 1957).

에서 어떤 학자는 속죄의 핵심은 '도덕적 감화'에 있다고 본다(예를 들어, H.G. Meecham).[92] 그러나 미첨은 『디오그네투스 서신』에서 속죄의 대속적 성격이 중심에 놓여있음을 놓친다. 속죄의 대속적 성격에 대한 저자의 관심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분명히 발견된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원죄와 죄악의 만연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바로 그 분께서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ἀνεδέξατο). 그 자신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αὐτὸς τὸν ἴδιον υἱὸν ἀπέδοτο λύτρον ὑπὲρ ἡμῶν). 즉, 죄인들을 위해 거룩하신 분을 악인들을 위해 결백하신 분을,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 의로우신 분을, 부패한 사람들을 위해 불변하시는 분을, 죽을 사람들을 위해 불멸하시는 분을 대속물(λύτρον)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분의 의로움이 아니면 무엇이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가 아니라면 우리의 범죄와 불경건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오 감미로운 교환이여! 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일하심이여! 오. 예상치 못한 선하신 행동이여! 많은 사람들의 범죄함이 한 사람의 의 안에서 감취어졌으므로, 한 사람의 의로움이 많은 사람의 죄를 의롭게 합니다.(ἑνὸς πολλοὺς ἀνόμους δικαιώσῃ). 하나님은 과거에는 우리 본성의 무능함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현재는 우리에게 불가능하던 구원을 줄 권능을 가진 구세주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Diogn. 9:2-6).

위에서 구원의 동인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이 언급된다. 무엇보다도 위의 인용에서 '형벌대속'에 대한 관점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의의 전가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도 저자는 언급한다. 특히, Diogn. 9:3-4에서 "그 분의 의(ἐκείνου δικαιοσύνη)가 아니면 무엇이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가 아니라면 우리의 범죄와 불경건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δικαιωθῆναι)?" 그리고 또한 9:5에서 "오! 감미로운 교환이여"(ὦ τῆς γλυκείας ἀνταλλαγῆς)라는 표현은 저자가 속죄를 '대리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이 표현의 의미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물(λύτρον)이 됨으로써 "감미로운 교환"이 일어났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어졌다는 기독론적 강조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8:9-11; 9:1; 10:2 등).[93] 단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신약성경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예: 롬 8:32; 갈 2:2: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94] 특히 그 자신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셨다"(αὐτὸς τὸν ἴδιον υἱὸν ἀπέδοτο λύτρον ὑπὲρ ἡμῶν)라는 표현은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저자가 1세기 초대 교회의 '내어줌의

---

92) H.G. Meecham, "The Theology of the Epistle to Diognetus." *Expository Times* 54 (1943), 99-100.

93) 이 측면에 관해서는 Brandon D. Crowe, "Oh Sweet Exchange!: The Soteriological Significance of Incarnation in the Epistle to Diognetus," *ZNW* 102 (2011), 103.

94) 내어줌의 공식(surrender formula; 요 3:16; 롬 8:32; 갈 2:20)와 보냄의 공식(sending formula; 갈 4:3; 롬 8:5 등)에서 내어주거나 보냄받은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된다. 이것은 신약교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전통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식'을 보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어줌의 공식이란 내어주는 행동의 주어로서 하나님 + 내어줌의 동사(ἀποδίδωμι 혹은 δίδωμι) + 내어줌이 대상(즉, 하나님의 아들) + 내어줌의 목적(즉 우리의 구원)으로 표현되는 양식이다. 이러한 양식은 요한복음 3:16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τὸν υἱὸν τὸν μονογενῆ)를 주셨으니(ἔδωκεν)" 혹은 로마서 8:32에서 "자기 아들을(τοῦ ἰδίου υἱοῦ)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와 같은 형식으로 발견된다. 내어줌의 공식은 신약 교회가 고백하던 신앙고백 양식이었을 것이고,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이 '양식'이 2세기 후반에도 보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Diogn. 9:2에서도 '그 자신이'라는 주어는 하나님께서 내어줌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적(emphatic) αὐτός (그 자신)와 더불어 드러내며, 내어주심의 동사(ἀποδίδωμι)와 내어줌의 목적어로서 하나님의 아들(τὸν ἴδιον) + 내어줌의 목적(ὑπὲρ ἡμῶν)이 분명히 드러난다. 게다가 Diogn. 9:2의 내어줌의 공식은 "바로 그 분께서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받으셨습니다(즉, 대신 짊어지셨습니다)(αὐτὸς τὰς ἡμετέρας ἁμαρτίας ἀνεδέξατο)라는 구절에서 '대신 감당함'이라는 대속적(substitutionary) 문맥 속에서 언급된다. 이것은 『디오그네투스 서신』 저자가 1세기 교회가 간직했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내어줌의 공식'을 변형 없이 충실하게 간직하고 고백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철하 박사가 말한 바와 같이, "신앙에서 신앙에로 직접 교회의 모체 속에 산 전통으로서 전달"된 한 예를 보여준다.[95]

또한 "우리를 위하여(ὑπὲρ ἡμῶν)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는 Diogn. 9:2의 표현은 최근 신약학계에서의 속죄의 본질에 대한 논쟁에 분명한 시사점을 준다. 왜냐하면 최근에 실리어스 브라이텐바흐(Cilliers Breytenbach)와 그의 제자 크리스티나 에쉬너(C. Eschner)는 "우리를 위하여(ὑπὲρ ἡμῶν)"라는 신약성경의 형식이 단순히 "...의 이익을 위하여(for the sake of...)"라는 의미이지, '누군가를 대신하여' 라는 '대리적' 속죄의 의미를 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96] 왜냐하면 브라이텐바흐와 에쉬너는 "우리를 위하여(ὑπὲρ ἡμῶν)"라는 구문이 대리적 의미(instead of...)로 사용되는 종교적 용례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Diogn. 9:2는 브라이텐바흐와 에쉬너의 주장에 대한 중요한 반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Diogn. 9:2-3은 "우리를 위하여(ὑπὲρ ἡμῶν)"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물(λύτρον)이 됨으로써 "감미로운 교환"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이것은 저자가 표현하는 속죄의 대신적 측면(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측면)과 연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유창한 헬라어 사용자인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저자는 ὑπὲρ ἡμῶν에서 대신적 의미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죄 사함의 복음과 속죄의 대속적 측면에 대한 분명한 강조를 보여준다.[97]

---

95)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17.

96) Cillers Breytenbach, "The Septuagint Version of Isaiah 53 and the Early Christian Formula 'He Was Delivered For Our Trespasses'," *Grace, Reconciliation, Concord: The Death of Christ in Graeco-Roman Metaphors* (NOVTSup 135; Leiden: Brill, 2010), 84. 크리스티나 에쉬너(Christina Eschner)는 자신의 스승의 논지를 더욱 발전시킨다. 그녀는 칠십인역 53:6, 12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번역한 것에 관하여, 번역자들이 그리스와 로마의 비극, 대중적 잠언의 표현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C. Eschner, *Gestorben und hingegeben "für" die Sünder: Die griechische Konzeption des Unheil abwendenden Sterbens und deren paulinische Aufnahme für die Deutung des Todes Jesu Christi* (2 vols.; WMANT 122; Neukirchen-Vluyn:Neukirchener, 2010), 2.314-317.

97) 이러한 복음에 대한 관심은 2세기 문헌에서 드문 것이 아니다. 우리는 2세기 초반의 문헌인 폴리갑의 『빌립보서』에서 다음의 구절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의의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감미로운 교환”(τῆς γλυκείας ἀνταλλαγῆς)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칭의와 구속을 의미하는가? 이 구문의 의미는 그 문맥 속에서 유추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이 구문은 다음의 구조 속에서 등장한다(Diogn. 9:4-5).

> A ἐν τίνι δικαιωθῆναι δυνατὸν τοὺς ἀνόμους ἡμᾶς καὶ ἀσεβεῖς ἢ ἐν μόνῳ τῷ υἱῷ τοῦ θεοῦ;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가 아니라면 우리의 범죄와 불경건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
> B ὦ τῆς γλυκείας ἀνταλλαγῆς (오 감미로운 교환이여!)
>
> B’ ὦ τῆς ἀνεξικνιάστου δημιουργίας(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일하심이여!)
>
> B” ὦ τῶν ἀπροσδοκήτων εὐεργεσιῶν (오. 예상치 못한 선하신 행동이여!)
>
> A’ ἵνα ἀνομία μὲν πολλῶν ἐν δικαίῳ ἑνὶ κρυβῇ, δικαιοσύνη δὲ ἑνὸς πολλοὺς ἀνόμους δικαιώσῃ. (많은 사람들의 범죄함이 한 사람의 의 안에서 감취어졌으므로, 한 사람의 의로움이 많은 사람의 죄를 의롭게 합니다.)

위의 Diogn. 9:4-5는 ABB’B”A’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와 A’는 유일한 분(A: μόνῳ) - 한 분(A’: ἑνί), 범죄함(A: ἀνόμους) - 범죄함(A’: ἀνομία), 의로워짐(A: δικαιωθῆναι) - 의로워짐(A’: δικαιώσῃ)의 관점에서 분명한 평행을 나타낸다. BB’B”는 “오”(ὦ)라는 감탄사가 이끄는 일련의 감탄문들이다. “감미로운 교환”의 개념은 이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BB’B”는 분명히 A와 A’에서 이루어진 구원 사건에 대한 감탄과 경이의 표현이다. A와 A’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한 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의 죄악이 어떻게 의로워 질 수 있는 지를 논의한다. 그렇다면 “감미로운 교환”은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지와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맥락에서 언급된 것이다. 그렇다면 “감미로운 교환”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분의 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구원론이 ‘바울적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서술하는 학자는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신약학 교수인 브랜든 크로우(Brandon D. Crowe)이다. 크로우는 특히 Diogn. 9:5b가 로마서 5:18b-19와 평행을 이룬다는 점을 지적한다.[98]

Diogn. 9:5b	로마서 5:18b-19
ἵνα ἀνομία μὲν πολλῶν ἐν δικαίῳ ἑνὶ κρυβῇ, δικαιοσύνη δὲ ἑνὸς πολλοὺς ἀνόμους δικαιώσῃ. (많은 사람들의 범죄함이 한 사람의 의 안에서 감취어졌으므로, 한 사람의 의로움이 많은 사람의 죄를 의롭게 합니다.)	οὕτως καὶ δι’ ἑνὸς δικαιώματος εἰς πάντας ἀνθρώπους εἰς δικαίωσιν ζωῆς· ὥσπερ γὰρ διὰ τῆς παρακοῆς τοῦ ἑνὸς ἀνθρώπου ἁμαρτωλοὶ κατεστάθησαν οἱ πολλοί, οὕτως καὶ διὰ τῆς ὑπακοῆς τοῦ ἑνὸς δίκαιοι κατασταθήσονται οἱ πολλοί.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보증을 붙잡읍시다. 그분은(ὅς)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ὅς) 나무 위에서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며, 그분은(ὅς)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시고, 그 분의 입에서는 어떤 간계도 발견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모든 것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내를 본받읍시다(Polycarp. *Phil.* 8:1-2a).” 폴리갑은 베드로전서 2:22-24를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98) Crowe, “Oh Sweet Exchange,” 108.

위에서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저자는 분명히 로마서 5:18b-19의 신학적 내용 뿐 아니라 구체적인 어휘들을 반영하고 있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저자는 로마서와 같이 "많음"과 "하나," "죄악됨"과 "의로움" 대조하고 있고, 또한 한 분의 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점이 진술되고 있다. 이러한 대조는 9:5b(앞 페이지의 구조에서 A'에 해당)에 나타난 다음의 abb'a' 역교차 구조를 통하여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99]

a ἵνα ἀνομία μὲν πολλῶν (한편 많은 이들의 죄악이)
b ἐν δικαίῳ ἑνὶ κρυβῇ, (한 분의 의로움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b' δικαιοσύνη δὲ ἑνὸς (다른 한편으로 한분의 의가)
a' πολλοὺς ἀνόμους δικαιώσῃ. (많은 이들의 죄악을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위의 abb'a' 역교차 구조는 위에서 말한 대조법이 단지 우연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의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구도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정교한 역교차 구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Diogn. 9:5a의 "감미로운 교환"(τῆς γλυκείας ἀνταλλαγῆς)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 번 알려준다. 즉, 9:5a에서 abb'a'의 구조는 "감미로운 교환"은 한 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의롭게 된 것이고, 한 분이 속죄 제물됨으로 한 분의 의로움이 많은 이들의 죄악됨이 용서받았다는 것과 연결된다. 그렇다면 '교환'은 '속죄' 그리고 '칭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0] 그러하면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죄사함의 복음에 대한 사도적 가르침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강조를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보여준다. '산 신앙'이라는 표현 자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할 지에 대해서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자세하게 강조한다. 앞서 말했듯이 프로트렙시스(protrepsis)로서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이전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라는 일종의 권면 장르이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순교적 삶에 대해서 말하며, 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한다(7:7-9; 10:7-8). 저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과 구분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지니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하며, 지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시민이다(5:8-9).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민족이며, 새로운 생활방식을 지니고 있다(1:1).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인류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2:1).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5:11).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5:12), 경멸당하지만, 그 경멸 안에서 영광을 본다(5:13). 그리스도인들은 능욕을 받으면서도 축복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존경한다(5:14-15). 이러한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권면과 묘사는 『디오그네투스 서신』이 쓰여진 2세기 후반 교회의 생생한 신앙과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지닌 새로운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며, 이것은 위에서 우리가 논한 '산 신앙'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교회 연합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디오

99) Crowe, "Oh Sweet Exchange," 105.

100) 이러한 "놀라운 교환"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로움)이 우리의 의로 '전가'되었다는 측면을 암시할지도 모른다.

그네투스 서신』에서 명시적으로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교회는 이미 연합되어 있는 교회이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은 '정체성'과 관계된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민족'(καινὸν γένος), 즉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제 3의 민족으로서 존재한다(1:1). 그리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켜주는 것은 새로운 민족으로서의 연대성이다. 이 점은 『디오그네투스 서신』에서 풍성한 신학적 함의를 제공해준다. 이방인 신자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구분된 새로운 인류이기 때문이다.[101]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유대인이라는 이전의 민족적 정체성은 큰 의미가 없다. 이전에는 이방인, 유대인이라는 견지에서 민족 간의 구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이전의 민족적 정체성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은 새로운 연합과 일치를 창조한다. 이렇듯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연합을 민족적 고찰(ethnic reasoning)의 관점에서 묘사하는데 관심을 둔다. "새로운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새로운 민족"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연합적 함의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제의를 드리는 이방인들, 그리고 성전 제사에 종속된 유대인들과 구분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제사를 이미 드리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적 삶과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구분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며,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산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새로운 인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디오그네투스 서신』이 암시하는 연합은 공통된 신앙 고백을 통한 연합 뿐 아니라, 공통된 실천을 통한 새로운 인류로서의 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디오그네투스 서신』에서의 연합은 함께 고난당하며, 그 고난을 견디며(10:8),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자를 사랑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통하여

---

101)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헬라 철학(혹은 paganism)과 유대주의를 배격한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저자는 하나님을 불 혹은 물과 동일시하는, 만유재신론적 헬라 우주론에 대한 비판을 8장에서 논의한다. 그리스도교는 신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배울 수 없다(4:6). 또한 5:3에서 기독교신앙은 인간적 학설을 앞세우지 않는다(οὐδὲ δόγματος ἀνθρωπίνου προεστᾶσιν). 그렇지만 『디오그네투스 서신』이 철학의 가치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한편으로 철학과 기독교를 구분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을 변증적, 선교적 차원에서 도덕철학적(moral-philosophical) 표현으로 설명한다. 9:1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욕정과 쾌락과의 무질서한 충동을 따라 살았고(ἀτάκτοις φοραῖς φέρεσθαι, ἡδοναῖς καὶ ἐπιθυμίαις ἀπαγομένους), 하나님은 이것을 간과하셨다(εἴασεν). 욕정, 쾌락, 무질서한 충동은 헬라 도덕철학에서 자주 등장하던 표현들로서, 철학적 교양인이 피해야하는 대상이다. 그렇다면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이러한 도덕철학적 표현을 빌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이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7:1에서 영혼이 육신에 존재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표현도, 영혼과 육신의 관계를 빌어, 해당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마찬가지로, 헬라 철학에서 종종 사용되는 표현이다. 중기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영혼과 육신의 관계를 유대인과 애굽인의 관계로 표현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혼과 같고, 갈대아 우르는 육신을 뜻한다. 영혼과 육신의 알레고리는 족장/유대인과 세상/애굽/갈대아우르의 관계를 표현하는 필로의 중요한 플라톤 인간론적 표현방식이다. 그리고 막 회심한 사람을 아기로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표현은 당대 도덕철학, 특히 스토아 철학의 도덕적 성장(moral progress)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다. 그렇다면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헬라 철학과 구분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관심을 표현하면서,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상당 부분 철학적이다. 이것은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저자가 철학자라거나 그리스도교를 철학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 언어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선교적 목적에 따라, 철학적 언어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타나는 연합이다(참조: 10:3-5). 그러므로 『디오그네투스 서신』에서의 연합은 새로운 민족으로서의 연합이며, 새로운 실천을 통한 연합니다.

이렇듯,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공통점에 따라서 묘사한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당시 2세기의 그리스도교의 여러 유파에 따라서 지엽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기독교의 특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에 관심을 두며, 이 보편적 기독교는 사도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은 그들의 신앙에 따른 삶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분명히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구분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체성을 세우는데 관심을 둔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방편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민족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지닌다(1:1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공통된 실천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참된 신앙 고백 뿐 아니라 참된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새로운 민족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초기 교회 문헌의 가치를 위와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혹자는 속사도문헌과 2세기 변증적 문헌들이 신약성경 혹은 3세기 이후의 교부문헌들보다 뒤떨어진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반면 우리는 분명히 위에서 『디오그네투스 서신』이 초기 교회의 신학과 신앙에 대한 생생한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본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을 통해 초기 교회가 사변적이고 사색적, 이성적 신앙 뿐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철하 박사도 속사도 교부와 2세기 초기 기독교 문헌의 가치에 중요성을 둔다. 한철하 박사는 속사도교부들의 가르침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들은 사도들에게서 직접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을 물려받은 자들이었다.”[102] 또한 한철하 박사는 속사도 교부들이 “사도들의 신앙을 산 인물들로서 계승하여, 그 생동력을 잃지 않고 다음 시대로 전달”했다는 의의를 서술한다.[103] 또한 한철하 박사는 ‘속사도 교부들과 성경’이라는 별도의 섹션을 마련하여, 속사도 교부와 성경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물론 한철하 박사는 속사도 교부들의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두지만(예를 들어, 21페이지), 또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속사도 교부들이 성경을 어떻게 충실하게 진술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수했는가이다. 이러한 강조는 속사도 교부 이후의 2세기 기독교 문헌에 대한 언급에서도 나타난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한철하 박사의 언급에서도 나타난다:[104]

> 클레멘트의 신학을 헬라 철학적으로만 보려는 것은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윌슨(W. Wilson)이 바로 지적한 바와 같다. 클레멘트를 위시한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들의 그 주요한 관심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구주이신 인격적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철하 박사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저작을 성경과의 연속성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한다. 그렇다면 한철하 박사는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뿐 아니라, 속사도 교부와 알렉산드리아의

---

102)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17.
103)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22.
104)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사』, 68.

클레멘트도 성경적인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2세기 문헌 중에서 주로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의 저작과 3세기 이후의 교부들에 집중적인 관심을 표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혹은 3세기 이후의 교부들 뿐 아니라, 복음과 산 신앙의 증인으로서 속사도 교부들의 문헌과 『디오그네투스 서신』과 같은 2세기 중후반 변증문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디오그네투스 서신』의 몇 가지의 측면들을 생각해보았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1세기 교회의 복음이 2세기 교회에서 상실되지 않고, 보존되고 고백된 한 예를 보여준다. 위에서 논했듯이 한철하 박사의 『고대 기독교 사상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초대 교회에서 전승되어 온 '복음'이며, 한철하 박사는 이 복음이 초대 교회부터 이어진 가르침이라고 관찰한다. 우리는 같은 측면을 『디오그네투스 서신』에서 발견한다. 죄 사함과 회개의 복음과 산신앙을 보여주는 한 증인으로 우리는 2세기 기독교 문서인 『디오그네투스 서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오그네투스 서신』은 분명한 고기독론적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 ACTS 신학/신앙운동의 성격을 살펴본 대로, 『디오그네투스 서신』에서도 같은 신학적 강조점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한다: 1) 죄 사함의 복음에 대한 관심; 2) 산 신앙에 대한 강조; 3) 교회 연합에 대한 관심이라는 개념들이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안

필자는 ACTS 신학/신앙운동의 복음, 산 신앙, 교회 연합에 대한 관심이 현 시대 교회와 신학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ACTS는 복음주의 신학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한, 죄 사함의 복음에 대한 신앙고백에 기초하며, 또한 살아있는 신앙의 실천을 지향한다. 또한, ACTS의 신학은 특정한 진영의 신학 보다는, 칼빈과 웨슬리를 아우르는 폭넓은 복음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ACTS 신학/신앙운동의 방향성은 초대 교회 문헌과 더불어 재검토될 수 있다. 본 소논문은 이 점을 2세기 문헌인 『디오그네투스 서신』을 통하여 고려해보았다. 필자는 『디오그네투스 서신』이 ACTS 신학/신앙 운동을 공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신학적 신앙적 문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위와 같이 ACTS 신학/신앙운동의 성격을 간략하게 되돌아보았다. 위의 논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ACTS 신학/신앙운동은 성경과 초대 교회로부터 말미암은 뿌리를 지닌다. 한철하 박사는 죄 사함과 회개의 복음을 복음의 중심으로 천명하며, 이러한 관심은 『고대 기독교 사상사』에서도 반영된다. 산 신앙과 교회 연합적 가르침은 ACTS 신학/신앙운동의 중요한 성격이며, 이러한 관심도 『고대 기독교 사상사』에서도 암시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대 기독교 사상사』와 ACTS 신학/신앙운동의 어떤 연속성을 발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속성은 ACTS 신학/신앙운동의 토대의 성격을 보여준다. ACTS 신학/신앙운동이 칼빈-웨슬리의 가르침에 뿌리내려져 있지만, 그 이전에 한철하 박사는 『고대 기독교 사상사』에서 속사도 교부를 포함하는 초기 기독교 연구를 통하여 ACTS 신학/신앙운동에서 꽃 피울 중요한 전거들을 암시한다. 물론 이것은 한철하 박사의 초기 저작이 ACTS 신학 운동 제안에 담긴 "중심 진리"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철하 박사는 '죄 사함과 회개의 복음'과 관련된 중심 진리를 1989년 이후에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의 씨앗은 한철하 박사의 성경과 초대 교회 연구 속에서, 특히 『고대 기독교 사상사』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점을 본 논고는 제안한다.

또한 "산 신앙"에 대한 강조도 한국 교회에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죄 사함을 넘어서서, 회개와 중생과 성화에 이르는 과정을 한철하 박사의 저작과 ACTS 신학/신앙 운동의 문서들이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CTS 신학/신앙 운동은 내면적 측면 뿐 아니라, 윤리적, 공동체적, 사회적 함의를 지니는 통전적 신학/신앙 운동으로서 한국 교회에 실천적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는 ACTS 신학/신앙 운동이 교회 연합적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회 연합적 성격이 ACTS 신학/신앙 운동의 본질을 구성하며, 더 나아가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추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거스틴 뿐 아니라 속사도교부 문헌과 변증문헌과 같은 2세기 교회 문헌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동안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던 『디오그네투스 서신』 뿐 아니라, 개신교 신학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 2세기 저자들인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유스티누스, 아리스티데스의 문헌을 우리는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은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 ACTS 신학/신앙운동의 교회 연합적 성격을 깊이 있게 뒷받침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위하여 특별히 각 문헌의 역사적 정황과 장르, 구조 등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대 문헌, 특히 1차 문헌에 대한 엄밀한 학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후학들을 길러내는 것도, 신학 교육 기관으로서 ACTS의 역할일 것이다.

두 번째로 복음의 개인적 성격 뿐 아니라, 공동체적 성격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복음의 '민족적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이 공동체 형성(community formation)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 형성은 인종적, 민족적 관점에 따라 서술된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디오그네투스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혹은 유대인이라는 이전의 민족적 정체성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민족/인종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디오그네투스 서신』이 말하는 복음의 필연적 결과이다. ACTS는 선교 지향적 기관으로서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ACTS에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을 연마하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민족적 정체성은 ACTS가 교회의 일치가 새로이 나타날 수 있는 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ACTS에는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이 존재한다. 민족적/출신적 다양함 속에서 일치가 되는 공동체적 메시지를 ACTS가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향하여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결과이기 때문이다(참조: 갈 3:28).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며,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또한 복음은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며, 이 공동체는 죄 사함의 복음과 산 신앙의 한 결과일 것이다.

참고문헌

강창희. “ACTS의 정체성과 신학교육.”「ACTS 신학과 선교」12 (2008), 45-121.

김광채.『고대 교리사』. 서울: 보라상사, 2003.

김성진. “ACTS 신학-신앙 운동 이해와 나아갈 길.”「ACTS 신학저널」21 (2014), 139-174.

김재윤. “ACTS 신학-신앙운동, 그 공헌과 전망.”「ACTS 신학저널」24 (2015), 87-119.

김한성, “ACTS 신학-신앙 운동 이해와 교육 선교적 의의.”「ACTS 신학과 선교」13 (2013), 609-643.

박응규. “ACTS 신학공관과 교회사 연구 해석에의 적용.”「ACTS 신학저널」23 (2015), 103-156.

신성욱. “ACTS 신학-신앙운동을 중심으로 본 구속사적 설교의 한계와 대안.”「ACTS 신학저널」38 (2018), 247-293.

안점식. “ACTS 신학-신앙 운동과 선교지 신학교육에의 적용 가능성.”「ACTS 신학과 선교」13 (2013), 439-472.

이수인. “ACTS 신학-신앙운동, 그 신학적, 교회사적 의의.”「ACTS 신학저널」27 (2016), 119-173.

장해경. “‘ACTS 신학공관’이란 무엇인가?”「ACTS 신학저널」26 (2015), 141-187.

한상화. “‘ACTS 신학’의 정체성ㅡ‘신학공관’과 ‘기독교 중심진리’.”「ACTS 신학저널」28 (2016), 9-42.

한철하, “교리사에 있어서의 현대사조.”『신학지남』27 (1960), 30-49.

-----. “완전론자와 분리주의자에 대한 칼빈의 논박 - 칼빈 기독교강요 IV, I, 12-16.”『신학지남』30 (1963), 40-46.

-----. “내가 영향받은 신학자와 그 저서.”『기독교사상』8 (1964), 47-50.

-----. “한국 교회의 신학적 과제: 윤성범 교수에게 답한다.”『기독교사상』116 (1968), 84-89.

-----.『고대 기독교 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 “신앙이란 무엇입니까?”『우리의 신앙』. 평북노회신학사조연구위원회 편; 서울: 기독교문사, 1990, 9-41.

-----.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신학공관” 제안.”「성경과 신학」22 (1997), 7-28

-----. “한국교회의 진로: Calvin-Wesley의 신앙을 따라”,『ACTS 신학과 선교』5 (2001), 5-64.

-----. “죄사함과 회개의 복음으로 21세기를 살립시다.”「성경과 신학」Vol. 30 (2001), 11-17.

-----.『21세기 인류의 살길』(초판).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21세기 인류의 살길』(해설판). 양평: 칼빈아카데미, 2016.

-----. “ACTS 신학건설의 과제와 그 방법론.” (ACTS 교수세미나, 1993. 3. 22).

-----. “ACTS神學共觀 提案ㅡ A Proposal for ACTS Theological Synopsis ㅡ 롬 3:28; 눅 24:47; 딤후 3:15-17; 딛 2:14.” (ACTS 교수세미나, 1994. 8. 28).

-----. “ACTS 신학작업의 영광.” (ACTS 교수세미나, 1998. 9. 7).

-----. “ACTS 信仰運動의 方向.” (ACTS 교수세미나, 1999. 11. 3).

허주. “ACTS 신학-신앙운동.”『ACTS 신학과 선교』. 서울: 그리심, 2005, 198-228.

-----. “신학교육기관으로서 ACTS가 지향해야 할 신약학 분과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제언.”

「ACTS 신학저널」 38 (2018), 77-127.
Andriessen, P. “The Authorship of the Epistula ad Diognetum.” *Vigiliae Christianae* 1 (1947), 129-136.
Barnard, L. W. “The Epistle ad Diognetum: Two Units from One Author?” *Zeitschrift fu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56 (1965), 130-137.
Baumeister, Theofrid. “Zur Datierung der Schrift an Diognet.” *Vigiliae Christiαnae* 42 (1988), 105-111.
Carson, D. A. “Response to the ACTS Theological Synopsis.” 「ACTS Theological Journal」 7 (1988), 11-42.
Connolly, R. H. “Ad Diognetum xi-xxi.”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37 (1936), 2-15.
Crowe, Brandon D. “Oh Sweet Exchange!: The Soteriological Significance of Incarnation in the Epistle to Diognetus.” *ZNW* 102 (2011), 96-109.
Eschner, C. *Gestorben und hingegeben “für” die Sünder: Die griechische Konzeption des Unheil abwendenden Sterbens und deren paulinische Aufnahme für die Deutung des Todes Jesu Christi.* WMANT 12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10.
Foster, Paul. “The Epistle to Diognetus.” *Expository Times* 118 (2007), 162-168.
Frend, W.H.C. *The Rise of Christianity.* Minneapolis: Fortress, 1984.
Harnack, Adolf. *Lehrbuch der Dogmengeschichte I.* Freiburg: J.C.B. Mohr, 1888.
Jefford, Clayton N. *The Apostolic Fathers and the New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2006.
Lienhard, J.T. “The Christology of the Epistle to Diognetus.” *Vigiliae Christianae* 24 (1970), 280-289.
Marrou, Henri I. *À Diognète.* Paris: Cerf, 1951.
Meecham, H. G. “The Theology of the Epistle to Diognetus.” *Expository Times* 54 (1943), 97-101.

Part 3

논 평

한상화 박사 (조직신학)

김규섭 교수님의 “초기 교회 문헌 연구의 관점에서 본 ACTS 신학/신앙운동의 의의”에 대한 논찬

한상화 교수 / 조직신학

김규섭 교수님의 매우 훌륭한 논문에 대해 논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의 소감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ACTS 신학 공관 작업”의 학문적 진일보의 실현을 김교수님의 논문을 통해 보게 되어서 가슴에 벅찬 감동과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멋진 연구를 하신 김규섭 교수님께 다시금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교수님은 ACTS 신학-신앙 운동의 기초를 놓으신 한철하 박사님의 『21세기 인류의 살길』과 신학공관운동을 제안하신 후기 문서들에 나타난 주된 강조점을 세 가지 관심, 1) 죄사함의 복음에 대한 관심; 2) 산 신앙에 대한 강조; 3) 교회 연합에 대한 관심으로 집약하여 이 세 가지 관심에 집중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 관심이 한철하 박사님의 초기 저작인 『고대기독교사상사』에도 흐르고 있음을 자세히 살펴서 보여줌으로써 한박사님의 초기 사상과 후기 사상의 연속성을 주장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초대 교회의 변증 문헌인 『디오그네투스의 서신』에도 담겨있음을 자세한 문헌 분석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ACTS 신학/신앙 운동을 초대 교회 문헌 연구에 적용하는 매우 귀한 연구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짧은 논찬인 관계로 방대하게 연구하신 논문의 요약은 생략하고 바로 논평을 하겠습니다.

1. 김교수님이 설득력 있게 보여주신 한철하 박사님의 초기 사상과 후기 사상의 연속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김교수님도 여러 차례 언급하고 계시는 1989년 『우리의 신앙』에 실려 있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를 쓰는 과정에서 한박사님은 기독교 신앙에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고 그것을 계기로 “이 신앙의 중심점”[1]의 각도에서 칼빈 해석을 하시고 웨슬리 해석을 하시면서 “기독교 중심 진리” 개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에 중심이 있다는 발견은 마치 커다란 각성처럼 그 전과 후를 가르는 모종의 분수령과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대기독교사상사』 연구를 통해 제안하신 “회개와 죄사함을 통한 구원”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다는 한박사님의 깨달음의 씨앗이 초기에도 있었을 것이라는 김교수님의 제안은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제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박사님의 신학과 사상은 단순한 문헌 연구로만으로는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생애와 그 분에 대한 여러 직접적 경험들에 대한 자료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2. 김교수님께서 ACTS 신학-신앙 운동의 중심점을 특별히 세 가지 관심으로 집약하신 것에 대해 “ACTS 신학공관 선언서”에 표명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ACTS 신학공관 선언서”는 그 핵심이 물론 한박사님께서 강조하신 내용도 포함 하고 있지만 교수들의 합의를 위해 상당히 일반화된 언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한박사님의 중심진리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논의 측면들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본주의, 복음주의, 아세아 및 세계 복음화라는 우리 학교 설립이념의 표어화도 80년대 초의 한 박사님의 신학적 강조점에서 나온 것인데 그 중 특별히 신학의 목회, 선교 실천적 성격에

1) 이것을 ‘scopus fidei’(신앙의 목표)로 표현하며, 칼빈 연구에 적용하여 해석할 뿐 아니라 이 중심점이 바로 기독교 종교의 전체(summa)이고 각 부분들인 신앙의 조항들은 그 중심점과 관련지어 설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1세기 인류의 살길』 해설판 (2016), 280-9.

대한 강조도 교회 연합에 대한 강조 못지않게 중심이 되는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중심진리의 포괄적 측면과 다차원적인 성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3. 최초로 ACTS 신학-신앙 운동의 시각에서 『고대기독교사상사』를 분석하신 김교수님의 연구 의의와 공헌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한박사님의 초대 교리사 연구의 접근이 "통일점"을 중심으로 한 사상사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독교 중심진리 접근과 연결시킨 점은 매우 통찰력 있는 해석으로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교리 발전에 대한 기술 중심의 교리사 연구와는 차별화 된 신앙의 역사로서 성경에서 근원하는 사도들의 신앙의 가르침의 전승(paradosis)의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킨 점도 김교수님의 학문성 있는 날카로운 관찰이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실재로 세 가지 관점이 어떻게 초대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부분도 오늘 우리의 ACTS 신학 신앙 운동의 기초가 신앙 전통 속에 굳게 뿌리 박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논의라고 사료됩니다.

4. 제가 오래 강의해 온 변증학 시간에 2세기 변증교부들의 작품을 다룰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수려한 헬라어 문체로 쓰여진 설교식의 변증 문서라고 언급했던 『디오그네투스 서신』을 김교수님의 논문을 통해 직접 원문으로 만나니 참으로 반갑고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더더욱 고마운 것은 ACTS 신학-신앙 운동의 시각에서의 초대 교회 문헌 연구로서 이 권면(protrepsis)의 문서를 연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가 성경의 중심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여 고기독론을 전제하고 구원론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감미로운 교환"이 언급된 것을 보여주신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의 "즐거운 교환(fröhlicher Wechsel)"의 개념이 이미 2세기에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다만 김교수님의 감미로운 교환에 대한 설명을 읽다보면 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측면 위주로 설명되어 있는 듯이 느껴지는데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측면도 동일한 강도로 언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전가(imputation)라는 개념은 후에 종교개혁 당시에 비로소 부각되는 개념이지만 저는 항상 그 개념이 성경에 근거해 있는 개념이라면 분명 루터 이전에도 희미하게나마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2] 그것은 성경신학과 역사신학 분과 모두에게 걸쳐 있는 연구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섯째로 부수적인 질문입니다만 각주 91에 보면 김교수님의 계산으로 보면 『디오그네투스 서신』이 반영하고 있는 성경이 66차례이고 주로 바울서신과 베드로전서가 반복적으로 인용된다고 하셨는데 이 문헌이 2세기 중반 아니면 후반의 문헌이라면 신약성경의 정경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 중에 있는 문헌일텐데, 당시 그 무명의 저자가 어떤 방식으로 성경 각 권의 문서들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여섯째 『디오그네투스 서신』에 나타난 교회연합의 관심이라는 논제 설정 자체가 시대착오적인(anachronistic) 위험성이 있는 접근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그것을 매우 재치 있게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새로운 민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일치로 설명하셨으나 실제 우리 신학공관 선언문의 교회연합의 개념은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의 다양한 교파와 교단의 연합을 강조하고자 하는 분열된 현대 교회의

2) 원종천, 『칭의의 고민과 성화의 부진』 107-8에 보면 "전가" 개념이 루터에게서 비로소 나오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 개념의 성경적 뿌리와 루터 이전의 용례에 대해 궁금하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복음 중심의 신학과 신앙의 실천적 적용의 강조점, 즉 ACTS의 선교적 강조점을 말한다면 그 문서의 호교적 방향성에 잘 들어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래는 “ACTS 신학공관 운동”으로 제안되고 아울러 ACTS 신앙운동과 병행되었던 것이 학내사태 이후 제 3단계에서 현 교수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ACTS 신학-신앙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쓰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 자-의식적으로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명 신학운동으로서의 이 운동은 각 분과 연구 방법론과 접근에 대한 방법론적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공관의 분과별 적용은 기독교 중심진리를 각 분과의 중심에 놓고 연구할 때 어떤 방법론적 함의가 있는지 반성해보는 각 분과에 대한 자기 비판적 방법론적 성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 논문은 신약학자로서 김규섭 교수님의 신약학 연구 방법론에 적용하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해하는바 신학공관의 각 분과별 적용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김교수님의 논문 결론 부분에 제안하신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교부들의 원문 문헌 연구에 대한 강조와 각 민족 정체성을 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계 교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는 ACTS의 신학의 교육과 연구의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실하게 멋진 연구를 해주신 김규섭 교수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Part 4

신학교육기관으로서 ACTS가 지향해야 할 신약학 분과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제언

허 주 박사 (신약신학)

「ACTS 신학저널」 제38집 (2018): 77~129

신학교육기관으로서 ACTS가 지향해야 할 신약학 분과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제언*

허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신약학

한글초록

이 글은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라는 교육이념의 토대 위에 아세아 및 세계복음화를 목적으로 1974년에 설립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의 신학-신앙운동의 일환으로 집필된 것이다. 특히 신학교육기관으로서 ACTS의 신약학 분과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재조명한 글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신학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학적 용어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해석학적 방법론에 비추어 신약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였다. 이를 통해 ACTS 신학-신앙운동과 ACTS 신약학을 위한 제언과 사명을 다섯 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무엇보다 ACTS 신약학은 복음주의 성경신학적 틀 안에서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신학분야임을 주지하면서, 이론-실천적 항목들이 상호 연계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아래와 같다. (1) 바른 성경관에 기초한 성경주해 중심의 신약성경신학, (2) 교향곡적 신약성경신학, (3)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및 구원론 중심적 신약성경신학, (4) 통합적이면서도 연계학문적인 신약성경신학, (5) 종말론적이며 선교적 일상생활을 섬기는 신약성경신학. 이 운동은 일차적으로 ACTS 성경신학 교수들 및 모든 교수진이 함께 해야 할 연합운동이다. 동시에 ACTS에서 공부하고 있는 재학생들, 특히 석박사과정 중에 있는 한국 학생들 및 외국인 학생들을 통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ACTS 출판부는 ACTS가 추구하는 신학-선교적 사상과 비전을 현실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기능을 다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주제어 / ACTS 신학-신앙운동, 신약학, 신학, 성경신학, 신약성경신학, 신학기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국내외 주류 신약학 진영에서 진행해 온 학문 활동이나 경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늘의 신약학이 성경신학과 신학의 한 분과로서 본래의 목적과 사명의 줄을 놓치고 있거나 느슨히 붙잡고 있음에 대한 우려이다. 동시에 이 글은 오늘의 국내 개혁-복음주의 계열의 신학교 및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비(非)신학-신앙/윤리적 현실 앞에 한국 개신교 신학도로서 연대적 책임의 자성과 성찰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런 학문적이고도 시대상황적인 문맥을 고려하면서 필자는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신학교육기관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이하 ACTS)의 동료 교수들과 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일차적 독자로 간주하여 아래의 글을 나누고자 한다. 말하자면 이 글은 파편적이면서도 양극화 현상을 띄고 있는 오늘의 신학-목회/선교 상황 가운데 ACTS의 신약학/신약신학이 나아갈 나름의 방향과 길목에 대한 제언이다. 이를 통해 ACTS 공동체의 설립 비전과 목적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더욱 성경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가치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II. 국내외 신학적 좌표 및 용어

A. 신학적 좌표

미국 예일대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차일즈(B. S. Childs)는 서구 신학계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에 닥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성경신학 재건의 기치 아래 일련의 저서들을 발표하였다.[1] 한편 유사한 시점부터 서구 '성서학'(biblical studies)은 성서학적 가죽부대에 맞는 새로운 비평적 포도주를 준비함으로써 '신학'(theology)과 거리를 두면서 성서학 자체의 독자적 행보를 주장하였다. 주목할 것은 서구 성서학의 주도적 기관인 성서문헌학회(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는 2000년부터 세 개의 연구협의회(consultations)를 신설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바로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 및 '신약학과 후기식민지학'(New Testament studies and post-colonial studies)이었다.[2] 이것은 서구 성서학계에서 '성경신학'이 다시 주목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3] 또 한편으론 성서학이 비(非)신학적 연계학문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리는 서구 신학계의 대표적인 좌표인 셈이다.[4]

이런 서구 신학계의 동향은 국내 신학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다수의 한국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최종 학위를 서구권의 국가들에서 취득하고 돌아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국내에서 신학자들이 공동으로[5] 함께 모여 정기적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기관들로는 네 학회들을 소개

---

* 이 글은 "ACTS가 제창해야 될 신약성경신학: 현대 서구 신약학에 대한 'ACTS 신학-신앙운동'의 중요성과 과제를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ACTS 신학과 선교」 제8호(2004), 133-64에 발표된 것에 기초한다. 이번 ACTS 신학연구소 연구위원 모임(2018년 4월 18일) 및 ACTS 교수 신학세미나(2018년 6월 15일) 발제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문헌 업데이트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학술논문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된 논문임을 밝힌다.

1 B. S. Childs, *Biblical Theology in Crisi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0);『성경신학의 위기』박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2);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London: SCM, 1979); *The New Testament as Canon: An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1984); *Old Testament Theology in a Canonical Context* (Philadelphia: Fortress, 1985);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1993).

2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Call for Papers by SBL'(http://www.sbl-site.org), 12를 보라. SBL은 이미 2000년대 초기부터 다섯 개의 영역(Hebrew Bible; New Testament; World of Early Judaism and Christianity; Language, Linguistics, and Textual Criticism; Theory, Method, Interdisciplinary and Specialized Topics) 아래 각각 네 개 부분(57 Sections; 18 Groups; 7 Seminars; 13 Consultations)으로 나누어 각국의 신학/성서학자들을 미국 주요 도시에 초대하여 매년 11월 3박 4일로 학회 및 신학적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다. 'biblical theology'는 'Theory, Method, Interdisciplinary and Specialized Topics'에, 'New Testament studies and postcolonial studies'는 'New Testament' 영역에 2000년부터 각각 신설되었다. 참고로 2014년에 등록된 SBL 정회원은 8,302명이며, 2014년 11월 학회에 참석한 회원은 4,686명이다. 현재 개설된 연구/발표 프로그램 분야는 모두 174개이다. 'AAR/SBL Annual Meetings 2015 Handbook'과 홈페이지(http://www.sbl-site.org)를 참조하라.

3 성경신학이 다양한 이해 속에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문헌으로는 에드워드 클링크 3세 & 대리언 라킷,『성경신학의 5가지 유형: 이론과 실제의 비교』신윤수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15)가 있으며, 원서는 2012년 *Understanding Biblical Theology* 제목으로 출간된 바 있다. 참조. Scott J. Hafemann, "Biblical Theology: Retrospect and Prospect," in S. J. Hafemann (ed.), *BiBlical Theology: Retrospect & Prospect* (Downers Grove, IVP, 2002): 15-21.

4 애틀란타에서 열린 2015년 11월 학회에서는 '후기식민지학과 성서학'(Postcolonial Studies and Biblical Studies) 분야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성경과 영화'(Bible and Film)와 같은 영역도 개설되어 있다. 11월에 동일한 장소에서 앞서 열린 제67회 미국 복음주의신학회(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에서도 '성경신학' 분과는 두 번에 걸쳐 활발하게 논의된 바 있다. 'The 2015 ETS 67th Annual Meeting Handbook', (November 17-19, 2015; Atlanta, GA), 32, 53.

5 여기서 '공동으로'라는 용어는 신학의 각 분과(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학,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상담학, 실천신학 등)에 속한 전문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분과별 논문 발표와 더불어 전체 주제에 다

할 수 있다. (1) 한국기독교학회(회장: 노영상 박사),[6] (2)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 원종천 박사),[7] (3) 한국개혁신학회(회장: 이승구 박사),[8] 그리고 (4) 개혁신학회(회장: 이광희 박사).[9] 이 가운데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 개혁신학회는 그 신학적 노선을 분명하게 천명한 복음주의 또는 개혁주의 신학을 내세우는 반면, 한국기독교학회는 어떤 특정한 신학적 노선의 표방함 없이 학문적 차원에서 신학적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내에서는 2003년에 세 개의 학회가 추가로 신설되었다(한국장로회신학회/초대회장 이종윤 박사; 고려신학회/초대회장 최재건 박사; 성결신학회/초대회장 정상운 박사). 2002~3년에 창립된 학회들은 보수주의 진영의 신학자들이 주도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말하자면 개혁주의 내지 복음주의 캠프 안에서 교파-신앙적 배경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개혁주의 또는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와 정체성 이해에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내 준다. 이것은 보수주의 진영의 신학자들 안에서도 신학의 파편화가 더 가속화 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해준다.

B. 신학적 좌표 파악을 위한 용어

국내에서 출간되는 신학 도서나 전문 잡지에서 우리는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이란 용어를 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신학'이란 용어는 성경을 다루는 신학이라는 의미 내지는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는 '성서학'(biblical studies)의 의미로 통용되는 듯하다. 광의의 의미에서 이런 이해가 납득될 수 있으나 해외 신학계의 동향을 염두에 둘 때 몇 가지 관련 용어들을 나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신학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6 1970년 2월 10-11일 전국신학대학협의회(현 한국신학대학협의회)의 주관으로 제1차 한국신학공동학회를 개최한 이후, 제3차 정기학술대회가 열리는 1973년 8월 31일에 한국기독교학회(Korea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http://www.kacs.or.kr)는 시작되었다(초대회장: 서남동 박사). 이 학회는 2001년에 창립 30주년을 맞아 학회지『한국기독교신학논총』(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제 22권(주제: 세계신학과 한국신학: 회고와 전망) 출간과 함께『한국기독교학회 30년사』(한국기독교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를 발행하였다. 이 학회는 12개의 분과 학회(한국[이하 생략]구약학회; 신약학회; 교회사학회; 조직신학회; 실천신학회; 기독교교육학회; 기독교윤리학회; 목회상담학회; 교회음악학회; 선교신학회; 여성신학회; 문화신학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분과는 또한 독립적 학회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10월 20-21일,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공동학술대회 겸 제46차 정기학술대회(주제: 종교개혁과 오늘의 한국교회)를 개최했으며, 학회지『한국기독교신학논총』제107집(2018)이 발행되었다.

7 한국복음주의신학회(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http://www.kets.or.kr)는 1971년에 창설되었다가, 1981년 11월 4일 새롭게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초대회장: 한철하 박사). 현재 약 800여명의 신학교수가 회원으로 있으며 소속된 분과는 모두 10개(구약신학회; 신약신학회; 조직신학회; 역사신학회; 실천신학회; 선교신학회; 기독교교육학회; 기독교윤리학회; 기독교상담학회; 기독교음악학회)로서 각 분과가 독립된 학회로서 논문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학회지『성경과 신학』제1권이 1983년에 출간된 이후 현재 제86호(2018)가 발행되었으며, 2018년 4월 28일, 제71차 정기논문발표회(주제: 다문화와 한국교회)가 개최되었다.

8 한국개혁신학회(Korea Reformed Theological Society; https://krts.jams.or.kr/co/main/jmMain.kci)는 1996년 3월 30일 창립되면서(초대회장: 김영한 박사) 제1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한 이후로 2018년 5월 26일, 제44차 정기학술대회(주제: 도르트신경 40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한국교회)를 개최되었으며, 학회지 『한국개혁신학』제58권(2018)이 출간되었다. 이 학회에 소속된 분과는 모두 10개(조직신학; 신약학; 구약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기독교윤리학; 기독교철학; 기독교문학; 목회상담학)이며 각 분과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9 개혁신학회(Society of Reformed Theology; http://srt.or.kr)는 2002년 10월 칼빈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에 근거한 신학을 모토로 창립총회와 함께 시작되었다(초대회장: 김의원 박사). 2018년 4월 14일, '종교개혁 이후 교회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학술대회가 모였으며, 14개의 분과로 구성되었고 최근에 논문집 『개혁논총』 제44권(2018)이 출간되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다른 학문과 구별하는 차원에서 '신학'을 답변할 수 있다. 즉, 법학, 의학, 철학 등의 학문분야를 고려하면서 신학을 정의할 때, 신학(theology: *theos* + *logos*)은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하나님/신(*theos*)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의 분과로 정의할 수 있다.[10]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스룹바벨에 의해 건축된 제2성전이 파괴된 이후 유대인들의 관심이 성문화된 율법/토라에 더욱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특히 사도시대 이후 초대교회 교부들을 중심으로, 예수를 메시아와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내적 이유와 이단들로부터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외적 이유가 가장 큰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문으로서 신학의 결정적 진보는 인문주의 발원과 함께 시작된 종교개혁 시기 직후로 간주된다. 이런 면에서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신학을 초대와 중세 교부들의 신학에 기초한 '교회의 신학'(theology of the church) 내지 '교회를 위한 신학'(theology for the church)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은 (1) '성경적/바른 교회를 위한 신학'(theology for the biblical church)과 (2) '교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신학'(theology away from the church)의 두 물줄기로 나뉘어졌다고 평가된다. 즉, 16~17세기까지도 서구신학의 관심은 교회들이 고백하는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변증하는 교리중심의 신학(dogma-centered theology)이었다. 하지만 '일반 학문과 구별된 학문으로서의 신학'과 '교리중심적으로 이해된 신학'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학의 학문적 발전과 함께 수식어가 딸리게 되었다. 말하자면 '성경적 신학'(*theologicae biblicae*)이 '교리적 신학'(*theologicae dogmaticae*)과 구별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1787년 - 아래 글 참조). 19세기 말에는 기존의 구약 및 신약 분과와 별개의 영역으로서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 분과가 미국의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제공되었다(1894년). 한편, 20세기 초중엽에는 신구약 성경 연구에 있어 역사와 계시의 영역이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론 역사적 문서로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전문 영역이 깊어지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신학적 문서로서의 신구약 성경 상호관계성이 멀어지게 되면서, 비평적 학자들은 협의적 의미로 '신학'이라는 용어를 '성서학'(구약학/신약학)의 용어와 의식적으로 구별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신학'은 교회 공동체적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the Bible*)을 접근하는 신앙고백적 접근을 의미하며, '성서학'은 신앙고백적 접근을 배제한 채 성경(a bible)을 역사적 고대문서로서 비평적으로 접근하는 의미로 이해되곤 한다.[11] 이런 비평적 접근은 서구 신학과 교회의 정체성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으며. 국내 신학과 교회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12]

2. 기독교 신학

---

10 신학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 인간 및 우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Sidney I. Landau (ed.), *The Doubleday Dictionary for Home, School and Office* (Garden City, N.J.: Doubleday, 1975), 763; 스탠리 그렌츠 & 로저 올슨, 『신학으로의 초대』 이영훈 옮김 (서울: IVP, 1996), 42-43에서 재인용. G. Vos의 정의를 보라. "Theology is *the science concerning God.*", in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Eerdmans, 1948); 『성경신학』 이승구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3(원서: 저자의 강조). 그는 이 책 서언의 첫 페이지 첫 문장(v)과 '서론: 성경신학의 성격과 방법'을 다룬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장(18)을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진술로 시작하며 또한 끝을 맺고 있다. "(*Theologia*) *a Deo decetur, Deum docet, ad Deum ducit*(Theology is taught by God, teaches God, leads to God)." 즉, 신학은 하나님에 의해 가르쳐지며,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된다. 박봉랑, 『교의학방법론』 (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67-97에서 다룬 '신학이란 무엇인가?'도 참조하라.

11 P. R. Davies, *Whose Bible Is It Anyway?* (JSOTS 20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17-24를 참고하라.

12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 한철하는 '서양신학의 문제점과 신학의 과학성'이란 글을 통해 서구 신학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21세기 인류의 살 길』 (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90-104; 105-112를 보라.

신학이 학문의 영역으로 발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을 증언하고 기록한 문서로서의 '성경'(the Holy Bible)이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신앙 공동체의 신앙적/신학적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경들'을 소유하게 되고, 나아가 결국 '다른 하나님들'을 고백하는 셈이 된다. 크게 두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민족적 동질성을 잃지 않는 유대교 신앙공동체이다. 둘째는 민족적 개념을 초월하는 우주적 기독교 신앙공동체이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경을 말할 때, '히브리 성경'(the Hebrew Bible) 내지 (칠십인 역을 포함한) '유대인 성경'(the Jewish Bible)을 정경으로서 채택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히브리 성경뿐 아니라(구약), 1세기에 그리스어로 기록된 27권의 문서를 성경으로(신약) 신앙함으로써, 같은 용어인 '성경'(the Bible)을 말하면서도 실제에 있어 서로 '다른 성경'을 표현하는 셈이다.[13]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정경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공동체의 신학을 '기독교 신학'(Christian theology)이라 표현하고, 히브리 성경을 정경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신학을 '유대교 신학'(Jewish theology)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기독교 신학과 프로테스탄트/개신교 신학의 두 용어들을 어느 정도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천주교 신학을 염두에 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천주교가 채택하고 있는 정경(가경 포함)으로서의 성경이 개신교의 성경(가경 제외)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할 때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기독교 신학은 광의적인 면에서 공동체의 신앙 전통적 성격(장로교 신학, 침례교 신학, 감리교 신학, 성결교 신학, 오순절 신학 등) 내지 신학적 경향(근본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급진주의 신학 또는 해방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등)에 따라 더 세분화 될 수도 있다. 후자의 신학적 경향과 관련하여 필자는 기독교 신학을 –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신앙 고백하는 의미에서 – 좀 더 규명할 필요가 요구된다고 본다. 즉,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신학의 규범적 텍스트로서 신구약 66권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수납이다. 둘째는 이 명제를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 발휘되는 신학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은 용어상 결국 '자유주의 신학'(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성경을 인간의 이성에만 호소하여 초자연적 사건의 역사적 실재성을 부인하는 신학)과 거리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을 계시의 말씀으로 수용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 공동체'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해석공동체와 실제적으로 상이한 신앙체계를 소유한 '다른 종교'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예리하게 지적한 메이첸(J. G. Machen)의 견해에 필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 특별히 종교의 영역에 있어 현 시대는 갈등의 시대이다. 말하자면 늘상 기독교로 알려진 위대한 구속적 종교가 전혀 다른 유형의 종교적 신념과 투쟁 중인 셈이다. 그런데 이 종교적 신념이 전통적인 기독교적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신앙에 더욱 파괴적이다. 이와 같은 현대의 비(非)구속적 종교를 우리는 현대주의 또는 자유주의라 부른다.[14]

> 자유주의 신학자가 적군[계몽주의 세속철학]에게 기독교 교리를 하나 둘 양보하면서 무언가를 지탱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니며, 이미 기독교와 다른 범주에 속한 하나의 전혀 다른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이 기독교의 전통적 용어들을 사용할지라도 현대 자유주의는 기독교와 다른 하나의 종교일 뿐 아니라 종교들 가운데 전혀 다른 유형에 속한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15]

---

13 '두 성경'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해석학적 연구를 위해서 J. T. Barrera, *The Jewish Bible and the Christian Bible: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Bible* W. G. E. Watson trans. (Leiden: Brill, 1998)을 보라.
14 J. G. Machen, *Christianity & Liberalism*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23), 2(나의 번역).
15 J. G. Machen, *Christianity & Liberalism*, 6-7(나의 번역).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학'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미국 내 복음주의 계열의 성경대학(Bible college) 및 신학대학원(theological seminary)의 양적 규모와 복음주의 계열의 다수 출판사들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신학/신앙이 여러 면에서 미국의 신학/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과 한국의 많은 신학자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국내 신학대학원들이 미국 신학대학원들의 교과과정을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한국 신학대학원의 수업은 미국의 교과과정을 따라 대략 일곱 가지 이상의 영역에 제공된다. 즉 (1) 성경원어(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2) 구약학 (3) 신약학 (4) 성경해석학 (5) 조직/교의신학(변증학 포함) (6) 역사신학 (7) 설교학, 선교학, 상담학, 교육학 등을 포함하는 실천신학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 신학이라 할 때 신학의 각 전문 분야들이 상호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복음'과 '구원'이라는 성경적 가치를 근간으로 신학자와 공동체가 더욱 더 성경적이면서도 실천적인 바른 생활로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3. 성서학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구 신학계에서는 '성서학'(biblical studies)이란 용어가 '신학'(theology)이란 용어와 의식적으로 구별되고 있다. 서구에서 '성서(신)학'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활용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용어가 전문적인 차원에서 '신학'이란 용어와 의도적으로 비교 내지 구별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1970년대부터)로 간주된다.[16] 하지만 이 같은 구분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소급시켜 적용시킬 경우, 성서학(biblical studies)이라는 용어의 배아기는 신학에 있어서 '교리신학'과의 차별성을 요구하기 시작한 18세기 중엽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17] 여기서 우리는 1787년 3월 30일에 요한 필립 가블러(Johann Philipp Gabler)가 알트도르프(Altdorf) 대학교의 교수 취임강연 때 발표했던 논문 제목을 주목하게 된다. "*Oratio de justo discrimine theologicae biblicae et dogmaticae regundisque recte utriusque finibus*"(An address concerning the proper distinction between biblical and dogmatic theology and the proper determination of the goals of each / 성경적 신학과 교리적 신학의 적절한 구별과 그들 각각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정의에 대한 강연).[18]

---

16 P. R. Davies, *Whose Bible Is It Anyway?*, 18에서 언급하는 두 학자들과 시기를 주목하게 된다 - C. Evans, *Is Holy Scripture Christian? and Other Questions* (London: SCM Press, 1971)와 J. Barr, *Does Biblical Study Still Belong to Theology?* (Oxford: Clarendon Press, 1978). 이 두 영역의 관계를 집중해서 다룬 논문들이 E. J. Brill에서 발행하는 *Biblical Interpretation* 6.2(1998)에 기고되었다. 이 잡지에 실린 브레트(M. G. Brett)의 글 'Biblical Studies and Theology: Negotiating the Intersections'(131-41)은 기고된 글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해 준다.

17 18-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서구 신학계에서 '성서학'(biblical studies)과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 두 용어 간의 구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biblical theology'(*theologia biblica/biblische Theologie*)란 이름으로 폭넓고도 다양하게 때론 상이하게 사용된 것 같다. 그럼에도 내가 여기서 'biblical studies'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편의상 'biblical theology'와 'biblical studies'를 처음부터 (역사적으로 소급하여) 접근 경향에 따라 구분을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날 학계에서 '성서학'(biblical studies)과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신학'(theology)과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이란 용어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유익한 장치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국내 신학계에서 이런 용어들의 혼용은 신학적 전제나 의식 없이 사용되어짐으로써 한국 신학도에게 정확한 용어 이해에 혼란을 줄 여지가 많은 것 같다.

18 T. A. Gabler & J. G. Gabler, *D. Johann Philipp Gablers Kleinere theologische Schriften* (2 vols.; Ulm: Stettin, 1831), 179-98. L. T. Stuckenbruck, "Johann Philipp Gabler and the Delineation of Biblical Theology,"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2 (1999), 142 각주 8에서 재인용. 참조. G. Hasel, *New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Grand Rapids: Eerdmans, 1978), 22 각주 54('About the Correct Distinction of Biblical and Dogmatic Theology and the Right Definition of their Goals'). 라틴어로 기록된 가블러(Gabler) 논문의 영역본을 위해서는 J. Sandys-Wunsch and L. Eldredge, "J. P. Gabler and the

역사-서술적 성격을 지녀야 할 '성경적' 신학과 규범-교훈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교리적' 신학과의 차이를 주장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교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신학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즉, 18세기 이후에 기독교 전통 교리/신앙에 대한 의심은 학문으로서의 신학이라는 명제와 맞물리게 되었다. 이 시기에 사상적 배경이 되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영향, 특히 자연과학과 역사학의 세속이론에 힘입으면서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북미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접근을 위해 역사비평(historical-criticism)[19]이라는 분석의 틀을 도입하여 발전시켰다. 아울러 1970년대 이후로 성경 연구는 역사학 이외의 인접 학문(예를 들면, 언어학, 사회학, 문학)과 일반 해석학의 이론적 발달에 힘입으면서, 역사비평의 연장 또는 단절의 상이한 수용 속에서 후기구조주의적/후기현대주의적/해체주의적 성경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교리/신학 연구와 거리를 두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 서구에서 '성서학'(biblical studies)의 이름으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 신학부(theological department)보다는 종교학부(religious department)에 속하는 경향을 더 짙다.

이런 면에서 20세기 중반부터 의식적으로 표현되는 성서학(biblical studies)과 기독교 신학(Christian theology)의 개념적 상호관계는 마치 18세기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성경적' 신학(biblical theology)과 '교리적' 신학(dogmatic theology)을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와 사상적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기독교 신학과 달리 성서학은 구약학(Old Testament studies)과 신약학(New Testament studies)의 이름하에 각각의 연구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고, 나아가 각각의 범위(즉 구약과 신약) 내에서도 성경의 책별, 저자별, 장르별 분석에 있어 통일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상이성을 끊임없이 밝히려 함으로써, 어떤 주제에 대한 성경의 일관성 있는 구약신학(Old Testament theology)이나 신약신학(New Testament theology) 그리고 나아가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형편이다.[20]

4. 성경신학

철학적 영향 아래 성서학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성경에 대한 성서학적 접근은 성경 각 권과 개별 주제에 대해 다양하게 또한 상이하게 주장되면서, 성서학자들 안팎으로 염려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21]

Distiction between Biblical and Dogmatic Theology: Translation, Commentary and Discussion of His Originality,"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33 (1980), 133-58을 보라. 가블러 논문의 신학적 의의에 대한 스투켄브루크(Stuckenbruck)의 재조명은 우리에게 큰 흥미를 주지만, 19세기 이후로 '성경신학'이 '교리신학'과 구별되면서 발전하게 되는 데 있어 가블러의 논문이 큰 기폭제가 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 G. Bray, "Part 2: The Historical-Critical Method," in *Biblical Interpretation: Past & Present* (Leicester: Apollos, 1996), 221-460. 브레이는 이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나라별과 주요 학자별로 잘 소개하면서 참고해야 될 주요 문헌을 소개한다.

20 J. Webster, "Hermeneutics in Modern Theology: Some Doctrinal Reflections,"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1.3 (1998), 309-17; J. B. Green, "Scripture and Theology: Uniting the Two So Long Divided," in *Between Two Horizons*, 23-43, 특히 24-32를 보라.

21 성경 이해에 대한 '교회'(*ecclesia* - 경건/실천)와 '학교'(*academia* - 학문/이론) 상호간의 틈새가 점점 벌어지면서 유럽의 대학교에서 신학은 교회와의 역동적 관계를 사실상 상실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19-20세기 유럽 신학의 강물이 신학적 자유주의(theological liberalism)의 급물살을 타게 된 것에 기인한다. 이에 따른 파급 효과가 미국의 신학기류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서 미국의 대표적 장로교 신학교였던 프린스톤 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812 설립)가 1920년대에 신학적 난항을 거듭하다 메이첸(J. G. Machen: 1881-1937)을 중심으로 일군의 교수들(R. D. Wilson: 1856-1930; O. T. Allis: 1880-1973; N. B. Stonehouse: 1902-1962; Cornelius Van Til: 1895-1987)이 프린스톤을 사임하고 신학적 좌경화에 대한 대안으로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를 설립하였다(D. F. Wells, [ed.],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A Historical of Its Modern Develop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5]의 제 1부와 2부를 참조하라). 일반적으로 볼 때, 유럽의 개혁/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기존의 대학교 신학과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한 울타리 안에서 (수세에 몰리면서도) 학문적으로 방어했다면, 유럽과 달리 학교를 세우는 것에 비교적 자율성이 보장된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좌경화되는 신학교나 일반 대학교 신학과

서구 성서학의 이런 경향에 대한 반성과 경고의 소리가 '성경신학운동'(biblical theology movement)[22]이란 이름으로 194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23] 성경신학운동의 외침에는 교회를 위한 신학, 통일성 있는 신구약 성경, 역사와 계시의 조화와 같은, 학문으로서 신학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소홀히 하거나 도외시했던 이슈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당위성에 대한 도전이 깔려 있었다.[24] 즉, 성경신학운동은 20세기 서구 신학에 있어서 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성서학의 독자적 행보에 대한 신학적 대응 운동으로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신학을 변증하기 위한 학문적 몸짓이라 간주된다.

신앙과 역사에 대한 이분법적 색깔을 띤 성서학에 대한 성경신학운동의 대응은 나름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학자들이 제각기 다른 학문적, 신앙적, 방법론적 요소들로 인해, 무엇보다 성경신학에 대한 정의와 전개 방법에 대한 전제의 불일치로 말미암아[25] 성경신학 회복을 향한 항해는 19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후기현대주의의 큰 파도 속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26]

III. 신약학의 해석학적 방법론 재고: '집을 나간 탕자'

성경을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하는 서구 성서학의 강물은 지난 2세기 동안 몇 가지 비평의 물줄기로 나뉘게 되었다. 이런 비평의 물줄기들을 통틀어 역사비평적 방법(historical critical method)[27]이라 부르는데, 이를 자료비평(source criticism), 전승사비평(tradition-historical criticism), 양식비평(form criticism), 편집비평(redaction criticism)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성경에 대한 이 같은 비평적 접근은 성경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적 전제에 기인한다. 이에 비해 종교개

를 떠나, 다른 울타리를 치고 신앙/신학 양심에 따른 신학기관들을 설립하여 구별된 공동체 안에서 신학교육을 이어나갔다. 1970년대 이후로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일반 대학교 신학과 또는 신학대학원에 재입성하게 되는 것은 (내 판단에) 성서학 내에서 성경신학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의 흐름과 맞물리는 것으로 이해된다.

22 Childs, *Biblical Theology in Crisis*, 3-32(번역서); H. G. Reventlow, *Problems of Biblical The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Philadelphia: Fortress, 1986), 1-9.

23 예를 들어 '성경신학'에 우호적인 신학 정기간행물들이 연이어 창간된 연도들을 고려해 보라. *Theology Today*(1944); *Interpretation*(1947); *Scottish Journal of Theology*(1948).

24 하젤(Hasel)은 '성경신학운동'의 특징으로 여섯 가지를 나열한다. (1) 자유주의에 대한 대응(reaction to liberalism) (2) 신정통주의와의 연합(alliance with neo-orthodoxy) (3) 그리스 사상에 대한 히브리 사상의 재발견(Greek versus Hebrew thought) (4) 이스라엘 문화의 독특성 속에서 성경의 재발견(the Bible within its culture) (5)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biblical unity) (6) 역사 안에서 계시에 대한 긍정(revelation in history). G. F. Hasel, "Biblical Theology Movement," in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W. A. Elwell, ed. (Grand Rapids: Baker, 1984), 149-51을 보라.

25 이 성경신학운동의 선두주자로 차일즈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1970년까지 도달한 이 운동의 한계를 인정하면서(앞에서 인용한 그의 책 제목이 성경신학의 위기임을 유의하라), 이에 대한 극복으로 신학자들이 정경의 맥락 안에서 성경을 신학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Childs, 『성경신학의 위기』, 98-121을 보라). 이와 함께 J. A. Sanders의 *Canon and Community* (Philadelphia: Fortress, 1984)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학계에서는 이들과 이들의 입장을 수용하는 자들의 성경해석학적 방법을 정경비평(canonical criticism)이라 부른다. 차일즈와 샌더스와의 비교에 대해선 조휘, "B. Childs와 J. A. Sanders의 정경비평적 접근 비교를 중심으로 본 정경비평," 「ACTS 신학과 선교」 제8호(2004): 49-76을 참조하라.

26 성경신학의 정체성과 과제를 다룬 C. H. H. Scobie의 두 논문을 참고하라. "The Challenge of Biblical Theology," *Tyndale Bulletin* 42.1 (1991), 31-61; "The Structure of Biblical Theology," *Tyndale Bulletin* 42.2 (1991), 163-94. '(학문적) 성서학 내에서 (신앙고백적) 신학'을 할 수 있는 당위성과 이에 대한 발전적 모색을 위해 성경신학의 재정의를 위한 슬로건을 내세운 F. Watson의 두 책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Text, Church and Worl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Edinburgh: T&T Clark, 1994); *Text and Truth: Redefining Biblical Theology* (Edinburgh: T&T Clark, 1997).

27 이를 위해, S. L. McKenzie & S. R. Haynes (eds.), *To Each Its Own Meaning: An Introduction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11-99와 I. H. Marshall, (e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Essays on Principles and Methods* (Exeter: Paternoster, 1977), 126-95를 보라.

혁 이후 20세기 초까지 (특히 북미) 복음주의 성경신학자들은 역사-문법적 해석(grammatico-historical interpretation)을 적실한 해석학적 방법으로 수용하여 역사비평과 대립각을 세웠다. 구약학과 신약학에 적용되던 역사비평적 방법은 20세기 중반 이후 서구 신학계 내에서도 여러 도전과 비판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약학 연구는[28] 세 시기로 구분된다. (가) 역사비평 이전의 시기(pre-critical/modern period - 18세기 말까지), (나) 역사비평의 시기(critical/modern period -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중엽까지), (다) 역사비평 이후의 시기(post-critical/modern period - 20세기 중엽 이후로 현재).

역사비평 방법은 18세기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이 판단의 근거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수용되었다. 성서학자들이 인과관계에 근거한 역사실증주의의 관점을 통해 성경을 다른 고대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셈이다. 이런 접근을 통해 저자와 공동체의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고, 나아가 저자 배후에 가려진 역사를 '바르게' 재구성해 보겠다는 시도이다. 이런 흐름 아래 18세기 말부터 신약학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의 핵이 바로 '역사적 예수'(the historical Jesus)와 '신앙의 그리스도'(the Christ of faith)에 대한 상관성 이슈이다.[29] 이런 와중에 서구의 개혁-복음주의 신약학자들은 역사비평적 도구들을 역이용하여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는 사실이요 고백임을 증언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한편 철학에서 일반 해석학 이론들이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인식론이 20세기 중반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문학 이론가들에 의해 '새 비평'(new criticism)이 1920년대부터 대두되면서, 성경을 텍스트로 해석하는 데 방법론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30] 한편, 역사비평 학자들 안에서도 비평적 해석 방법의 객관성 내지 정당성에 회의를 품게 되면서, 성서학자들은 일반 철학적 해석학과 문학이론들을 수용하였고, 이와 더불어 새롭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해석을 시도하였다.[31] 문학비평을 비롯한 여러 새로운 방법론들을 대함에 있어 개혁-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여러 다양한 해석학적 방법론의 철학적 전제들과 요소들을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한편 성경 텍스트의 다층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우리는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개혁-복음주의가 추구하는 성경신학적 접근이 반지성적이거나 근본주의적 입장이 아님으로 우리는 학문적 대화에도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32]

이런 점에서 서사(敍事)비평(narrative criticism)을 비판적으로 짧게 생각해 보자. 서사비평은 문학/문예(文學/文藝)비평(literary Criticism)의 한 양식으로 이야기비평이라고도 불린다. 문학비평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성경이 문학적 형식(예를 들면, 이야기, 시, 편지와 같은 문학적 형식)을 빌어 기록되었다고 하는 텍스트의 성격에 근거한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어느 역사적인 시점에 어떤 역사적인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성경을 역사적 문서로 접근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후자의 방법이 통시적(通時的) 관점을 통해 성경의 텍스트를 창문(window)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면, 전자는 공시적(共時的) 관점을 통해 거울(mirror)로 읽는다고 비유할 수 있다.

---

28 F. F. Bruce, "The History of New Testament Study" in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I. H. Marshall, (ed.) 21-59; S. Neill & T. Wright,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Testament 1861-198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2nd edn.).

29 B. Witherington, III, *The Jesus Quest: The Third Search for the Jew of Nazareth* (Carlisle: Paternoster, 1995); G. Theissen and A. Merz, *Der historische Jesus: Ein Lehrbuch* (G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The Historical Jesus: A Comprehensive Guide* (trans., J. Bowden; London: SCM, 1998)을 비교하면서 보라.

30 D. Robey, "Anglo-Amenrican New Criticism," in *Modern Literary Theory: A Comparative Introduction*, A. Jefferson & D. Robey, eds. (London: B. T. Batsford, 1986, 2nd edn.), 73-91.

31 R. Morgan & J. Barton, *Biblical Interpre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203-68.

32 존 스토트, 『복음주의의 기본 진리』 김현회 옮김 (서울: IVP, 2002), 27과 Graeme Goldsworthy, *Gospel-Centered Hermeneutics: 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Evangelical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VP, 2006), 'III. Reconstructing Evangelical Hermeneutics"을 참조하라.

문학비평으로서 서사적 접근이 취하는 텍스트 분석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33] 첫째, 일차적이고도 주된 관심은 배후 세계나 저자의 세계가 아닌 텍스트 자체의 세계이다. 둘째, 텍스트가 유기적이면서 통일성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있음으로, 이야기에 내재된 저자(implied author)와 이야기 진행자(narrator)와 내재된 독자(implied reader)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텍스트 이해에 중요하다. 셋째, 이야기 형식에서 발견되는 이야기 진행자의 관점(point of view)과 화법(narration)의 특징을 주목한다. 넷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characters)과 벌어지는 사건들(events)이 어떤 인과관계와 배경들(settings) 속에서 시작되고 진행되어 종료되는 지를 파악하여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plot)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줄거리 문맥 안에서 인물과 사건을 해석하게 된다.

신약성경에서 서사적 접근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텍스트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다.[34] 이런 내러티브 관점을 통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분석할 경우, (역사적 접근이 소홀히 했거나 무시했던 사안들에 대한) 텍스트의 지평을 열어주는 통찰력이 적지 않다.[35] 첫째, 성경의 각 권이 (가설에 기인한 어떤 자료설 내지 양식 이론에 기대지 않은 채) 유기적이고 통일성을 갖춘 텍스트로서 있는 그대로 성경을 접하게 해 준다. 둘째, 완성된 최종적 텍스트로서 성경 본문 자체가 다른 어떤 외부 문헌들보다 더 중요한 일차 자료임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 인물들, 배경들, 이야기에 대한 텍스트 내적 관심에 연구의 초점이 집중되는 이점이 있다. 셋째, (역사비평과 달리) 이야기를 전개하는 화자 또는 내재된 저자에게 권위를 부여해 줌으로써 내재된 독자가 신뢰 가운데 텍스트 안에서 메시지를 찾도록 도와준다. 이때 독자가 성경의 텍스트를 중복해서 읽고 정밀하게 관찰하는 것은 서사비평의 중요한 읽기 방법이 된다. 마지막으로 해석자가 의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신학적 또는 역사적 요소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 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텍스트 해석에 있어 서사비평의 장점뿐 아니라 내재적 한계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36] 따라서 복음주의 성경신학자는 다양한 비평적 해석 접근들을 민감하게 평가할 책임이 있다. 성경에 대한 서사비평적 방법론의 문제점은 첫째, 다른 문학비평과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묘사하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역사성 그 자체에 소홀하기 쉽다. 이것은 역사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예, 지나친 역사적 재구성에 대한 관심)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극단적 견해(예, 역사를 배재한 문학적 구조에 대한 관심)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실제 저자의 의도를 텍스트의 내재적 저자나 화자와 차별을 두려고 시도함으로써 해석 의미나 목적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셋째, 고대 문서인 성경을 현대 문학이론의 틀에 적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시대착오적 오류의 불가피성이다. 넷째, 문학적 접근 내지 서사/문학비평 역시 역사비평과 유사하게 성경의 중심된 진리(*summa*)에 대한 탐구를 뒤로 한 채 학계의 지엽적이고 논쟁적인 이슈들(*pars*)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37]

성경에 대한 서사적 접근이나 정경비평은, 역사비평과 비교해 볼 때, 복음주의 진영과 더 친숙할 수 있는 공유점을 갖고 있는 듯하다(예, 유기적이고 완성된 텍스트로서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이란 관점에서 서사비평 역시 역사비평 못지않게 수용하지 못할 철학적/해석학적 전제나 특징이 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역사비평에 대한 입장과 마찬가지로 서사비평을 포함한 현대 성서학의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는데 있어 신중한 자세

---

33 신학자로서 내러티브 비평을 가장 용이하고도 핵심 있게 소개한 책은 M. A. Powell의 *What Is Narrative Criticism? A New Approach to the Bible* (London: SPCK, 1993)이다.

34 심상법은 복음서의 장르 인식에 있어 기존의 역사비평적 분석을 비판하고, 내러티브 비평을 활용하여 복음서의 장르를 '역사적/사실적 내러티브'(historical/realistic narrative)로 규명했다. "복음서의 역사적 본질에 대한 이해", 『신학지남』 248 (1996), 213.

35 Powell, *What is Narrative Criticism?*, 85-91; Longman,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58-62을 참조하라.

36 Powell, *What is Narrative Criticism?*, 91-98; Longman,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47-58을 참조하라.

37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 길』, 97-101을 참조하라.

를 견지해야 한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역사비평 시기까지 성경 해석의 목적과 관심은 성경 저자(들)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런 와중에 성서학에서 새로운 문학비평이 대두하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해석학적 관심의 초점이 저자로부터 텍스트로 넘어가버렸다. 관심의 초점이 저자에서 텍스트로 옮겨진 성경 해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을 텍스트로 읽는 독자와 독자가 처해 있는 공동체로 전이된 상황이다.[38]

20세기 초까지 서구 신학이 주로 철학과 역사학으로부터 이론적 틀을 형성했다면, 학문의 영역이 세분화 되어 더욱 발전하면서 신학/성서학은 이제 더욱 활발하게 연계-학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해석학(hermeneutics: M. Heidegger; H-G. Gadamer; P. Ricoeur), 언어학(linguistics: F. Saussure; L. Wittgenstein; N. Chomsky), 기호학(semiotics: R. Barthes; A-J. Grimas; U. Eco), 심리학(pyschology: S. Freud; C. Jung), 문학이론(literary criticism: W. Iser; S. Fish; M. Bakhtin; S. Chatman), (지식)사회학(sociology: M. Weber; J. Habermas), 문화학(cultural studies), 여/남성학(gender studies)과 같은 분야들이다.[39] 이제 '_비평'(criticism)이란 용어는 역사비평에 적용되었던 '비평적' 의미의 개념보다는 하나의 방법론적 차원의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40] 이런 해석학적 방법론의 일환으로 일반 학문 이론들이 성서학에 도입되면서, 20세기 후반부터 성서학은 성경주석에서부터[41] 신학적 주제들에 이르기까지[42]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 다양한 해석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다음과 같은 용어들은 이 같은 해석학적 경향을 잘 반영해준다. 구조주의 비평(structural criticism), 사회학적 비평(sociological criticism), 사회과학적 비평(social scientific criticism), 수사학적 비평(rhetorical criticism), 서사비평(narrative criticism), 독자반응 비평(reader response criticism), 후기구조주의 비평(post-structural criticism), 해체주의 비평(deconstructive criticism), 이데올로기 비평(ideological criticism).[43]

위에서 살펴 본 성경 해석학적 추이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틀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해석자의 관심이 (가) 저자의 의도를 밝히기 위함인가 - 저자 중심적 읽기(예, 역사문법적 해석과 역사비평), (나) 성경 텍스트의 자율적 세계 속에서 본문의 의미를 찾기 위함인가 - 본문 중심적 읽기(예, 구조주의비평과 문학비평), (다) 같은 성경이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독자들 또는 공동체

---

38 S. D. Moore, *Literary Criticism and the Gospels: The Theoretical Challeng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을 보라.

39 성경 해석에 대한 일련의 철학/이론적 흐름을 종합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잘 소개해 주는 책이 A. C. Thiselton, *New Horizons in Hermeneu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2)이다. 티슬턴의 작품이 최근 국내에도 소개되었다. 앤서니 C. 티슬턴, 『해석의 새로운 지평: 변혁적 성경읽기의 이론과 실제』 최승락 옮김 (서울: SFC, 2015). 참조. Stanley E. Porter & Jason C. Robinson,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to Interpretive Theory* (Grand Rapids: Eerdmans, 2011). 구약학 안에서 해석학적 흐름을 잘 파악하여 평가하고 있는 글로서 이한영, 『패러다임 맥락에서 본 성경해석학』 (서울: 나눔사, 2003); Han Young Lee, *From History to Narrative Hermeneutics* (New York: Peter Lang, 2004)을 보라.

40 예를 들어, 성서학에서 명명하는 서사비평(narrative criticism)은 일반 문학이론가들 사이에서 서사학(narratology)으로 부르는데('as a science concerning narrative' - S. Onega & J. A. G. Landa, [eds.], *Narratology*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6]), 성서학자들은 기존의 역사비평 내에서 활용하던 비평적 용어인 '_criticism'을 서사(narrative)라는 용어에 그대로 붙여 사용하는 형편이다.

41 예를 들어, 허주, 사도행전 주석 소개, 『성서사랑방』 7 (1999), 72-79을 보라. D. A. Carson, *New Testament Commentary Surve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7th edition)는 서구 주요 신약주석서들을 소개하기 위해 1986년 처음 발행되었으나, 그 이후 다양한 해석적 관점들에 의해 업데이트 되고 있는 문헌을 따라잡기 위해 일곱 번째 개정판을 발행하였다.

42 예를 들어, S. J. Roth, *The Blind, the Lame, and the Poor: Character Types in Luke-Acts* (JSNTS, 14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Steven A. Hunt, D. F. Tolmie, and R. Zimmermann, *Character Studies in the Fourth Gospel* (WUNT, 314; Tübingen: Mohr Siebeck, 2013)을 보라.

43 신약학에서 이런 방법론적 접근들을 소개하고 적용하는 문헌을 보라. E. S. Malbon & E. V. McKnight, *The New Literary Criticism and the New Testament* (JSNTS, 10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J. B. Green, (ed.), *Hearing the New Testament: Strategies for Interpretation* (Carlisle: Paternoster, 1995); S. L. McKenzie & S. R. Haynes (eds.), *To Each Its Own Meaning*, 103-251; 강성열, 오덕호, 정기철, 『설교자를 위한 성서해석학 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의 세계관에 따라 도출되는 의미들에 대한 관심인가 – 독자/공동체 중심적 읽기(예, 독자반응비평과 이데올로기비평).[44] 둘째, 성경의 텍스트와 저자(들)에 대한 주된 관심이 (가) 역사적인 것인가 – 역사적 읽기(역사문법적 해석과 역사비평에 있어 양식비평에 이르기까지), (나) 신학적인 것인가 – 신학적 읽기(편집비평과 교리적 해석), (3) 문학적인 것인가 – 문학적 읽기(구조주의적 접근과 서사비평). 이런 해석학적 변화를 살펴 볼 때, 신약학/구약학은 독자반응비평, 이데올로기비평, 후기현대주의비평과 같은 이론적 틀 속에서 성경의 독자적 권위를 상실한 채 전개될 전망이다.[45] 물론 필자는 21세기의 성서학이 이런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리라 보지는 않는다. 다만, 지난 100년 동안 견고한 성(城)처럼 간주되었던 역사비평의 요새가 20세기 중엽부터 그 성벽(城壁) 안팎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흔들거리고 있다는 현실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또 하나의 성(城)이 여러 모양의 색깔을 띠며 세워지고 있는 성서학계의 현실을 주목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구약학과 신약학이 '해석학적 사사시대'에 이미 돌입함으로써, '사람(독자로서의 학자, 학파, 교회, 교단, 민족, 등)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삿 21:25 참조) 다원주의적이며 해체주의적인 성향으로 나갈 소지가 많음을 뜻한다.[46]

IV. 기독교 신학의 분과로서 (신약)성경신학: '집에 돌아와야 할 탕자'

우리는 이제 서구 주류 신학계에 학문적으로 대항했던 '기독교 신학'으로서 하나의 성경신학적 접근(a biblical-theological approach)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 접근은 미국 프린스톤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들인 요셉 알렉산더(Joseph Addison Alexander: 1809-1860)와 윌리엄 그린(William Henry Green: 1825-1900)으로부터 발아하여,[47] 같은 신학교 교수로 39년(1893-1932) 동안 재직한 바 있는 게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 1862-1949)[48]에 의해 자리 잡게 된 해석학적 관점이다. 이것은 그

---

44 T. Longman, III,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7), 19-45. 참조. W. R. Tate, *Biblical Interpretation: An Integrated Approach* (Peabody: Hendrickson, 1991), 173-205. 테이트는 저자 중심을 '텍스트 뒤의 세계'(the world behind the text)에 대한 관심으로, 본문 중심을 '텍스트 안의 세계'(the world within the text)에 대한 관심으로, 독자 중심을 '텍스트 앞의 세계'(the world in front of the text)에 대한 관심으로 풀이하면서 자신의 책을 전개하였다.

45 성서문헌학회(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는 1970년대부터 현저하게 학회 학술지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를 통해 비(非)역사비평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들을 채택할 뿐 아니라 1974년에는 자매지로서 *Semeia*를 창간하게 되는데, 이 간행물의 부제가 '성서비평을 위한 하나의 실험적 학술지'(*an experimental journal for biblical criticism*)로 되어있다.

46 이런 나의 전망은 "개혁주의 성경신학과 현대 신약학의 만남: 21세기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의 적과의 동침?"이란 제목으로 2000년 2월 한국성경신학회에서 처음 발제되었으며, 학회지 「교회와 문화」 제5호 (2000), 5-38에 소개되었다.

47 보스(Vos)의 선두주자로서 이 두 학자들의 공헌에 대한 글이 발표되었는데, 알렉산더(Alexander)는 구속사로서의 성경역사를, 그린(Green)은 이런 관점 속에서 신구약의 중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했음이 지적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들이 모두 그 당시 유럽과 미국의 자유주의 학자들과의 학문적 대응 속에서, 동시에 근본주의적 학자들의 안일한 자세를 비판하면서 이 같은 시도를 했다고 하는 점이다(44): P. J. Wallace, "The Foundations of Reformed Biblical Theology: The Development of Old Testament Theology at Old Princeton, 1812-1932,"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59 (1997), 41-60을 보라. 월레이스(Wallace)는 앞선 두 선배 교수들과 비교하면서 보스의 공헌을 다음과 같이 논했다. "...[W]hat is unique to Vos is the methodological unification of the Princeton Old Testament tradition with the federal theology of Reformed orthodoxy in the concept of the covenant.", 42. 한제호, "게할더스 보스의 주경중심 성경신학의 현대적 가치",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한국총동문회 편집, 『웨스트민스터 역사와 신학』 (서울: 필그림, 2010), 426-449를 보라.

48 보스에 대한 전기적 소개를 위해서는 R. L. Webster, "Geerhardus Vos(1862-1949): A Biographical Sketch,"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XL (1978), 304-317; P. Wallace, "The Foundations of Reformed Biblical Theology," 60-69을 보라. 보스가 프린스톤 신학교에 재직할 당시 동료로는 워필드, 메이첸, 윌슨, 암스트롱, 그린 주니어, 보이드, 앨리스 등이 있었으며, 주로 강의한 과목들은 '신구약 성경신학', '아랍어', '시리아어', '구약의 종말론', '바울의 종말론', '히브리서의 신학', '8세기 선지자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강화', '예수의 메시아 의식' 등이 있었다. 보스는 그랜드 래피즈에서 1949년 8월 13일 토요일에 사망하였는데 장례예배(8월 15일 월)는 칼빈대학교의 헨리 미터가, 입관예배(8월 17일 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밴틸이 인

당시 역사와 계시의 이분법에 포로가 된 성서학에 대한 대안으로 소개된 성경신학적 관점이었다.[49] 이 관점은 성경 연구에 있어 '기독교 신학'의 적극적 대응이었다. 필자는 이것을 '개혁-복음주의적 성경신학'(a reformed-evangelical biblical theology)[50]이라 부르고자 한다.[51]

1894년 가을학기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신설된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의 초대교수로 취임했던 보스는 '학문과 신학적 분과로서의 성경신학의 개념'(The Idea of Biblical Theology as a Science and as a Theological Discipline)이란 취임연설 논문을 발표하면서[52] 그의 개혁파 성경신학적 접근을 선보였다.[53] 그 당시 보스는 신학을 네 개 분야 즉, 주경신학(註經神學), 역사신학(歷史神學), 조직신학(組織神學), 실천신학(實踐神學)으로 이해한 후, 구약과 신약의 본문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로서 성경신학을 '주경신학 내의 성경신학'으로 정의했다.[54] 그렇다면, 보스는 성경신학을 무엇이라 정의하는가? 그는 "성경신학이란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발전과정을 다루는 주경신학의 한 분야이다"(Biblical Theology is that branch of Exegetical Theology which deals with the process

---

도하였다. 보스의 장례 및 입관예배 때 프린스톤 신학교 인사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다.

49 우리는 여기서 보스가 (또는 Alexander와 Green도), 독일 내에서 18세기 초중반부터 형성된 구원사 학파(*Heilsgeschichte Schule*)에 속한 학자들(G. Menken: 1768-1831; J. T. Beck: 1804-1878; K. Von Hofmann: 1810-1877)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젤은 구원사 접근의 대표적 학자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 Theodor Zahn; Adolf Schlatter; Oacar Cullann, Geroge E. Ladd; Leonhard Goppelt; Chester K. Lehman; B. S. Childs. G. Hasel, *New Teatment Theology*, 38-43; 69-71; 111-32을 보라. 최근에 에드워드 클링크 3세와 대리언 라킷은 다섯 가지 유형의 성경신학과 함께 각 유형의 대표적 학자들을 이렇게 소개했다 - (1) 역사적 서술로서의 성경신학: 제임스 바(38-83), (2) 구속사로서의 성경신학: D. A. 카슨(86-136), (3) 세계관-이야기로서의 성경신학: N. T. 라이트(138-89), (4) 정경적 접근법으로서의 성경신학: 브레바드 차일즈(192-241), (5) 신학적 구성으로서의 성경신학: 프랜시스 왓슨(241-86).『성경신학의 5가지 유형』.

50 논문 앞부분에 이미 소개한 '성경신학(운동)'과 '개혁-복음주의 성경신학'은 경향과 접근에 있어서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분이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 성경신학적 접근에 있어서 전제의 출발점이 같지 않다는 점에 있다. 전자가 성서학의 강물에서 (반성적으로) 흘러나온 하나의 물줄기라면, 후자는 처음부터 독자적인 물줄기를 갖고 시작된 것이라 비유할 수 있다. 참조. "The biblical theology movement directed its efforts against the extremes of the historical-critical approach to the Bible, *while itself remaining faithful to the historical-critical method, its presuppositions, and its procedures*. The attempt of the movement was to move beyond the older liberal position *within the liberal framework of the study of the Bible*," Hasel, "Biblical Theology Movement," 149(나의 강조).

51 이런 면에서, 보스는 자유주의 성서학자들뿐 아니라, 중도 보수적 학자들과도 구별되는 '개혁파 성경신학자'(a reformed biblical theologian)라 칭할 수 있다. 보스는 1862년 화란에서 출생하여 미국 프린스톤 신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약 7년 정도 수학하여, 1888년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아랍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즉, 자유주의 성서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던 독일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안으로 '성경신학'을 제시했던 것이다. 개혁파 성경신학자로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약신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은퇴한 리차드 게핀(R. Gaffin)은 보스를 '개혁파 성경신학의 아버지'(the father of a reformed biblical theology)라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Richard B. Gaffin, Jr., "Introduction," in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The Shorter Writings of Geerhardus Vos*, R. B. Gaffin, Jr. ed. (Phillipsburg: P & R, 1980), xiv. 이 책이 한글로 번역되었지만 아쉽게도(그리고 이상하게도) 게핀이 원서에 첨가한 '서론'은 누락되어 있다.『구속사와 성경해석』이길호, 원광연 옮김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8). 보스의 성경신학적 접근의 배경 이해를 위해서는 xiv-xxiii(원서)을 보라. 황창기 편저,『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7-11도 참조하라.

52 R. B. Gaffin, Jr.,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3-24(원서).

53 우리가 보스의 성경신학적 방법을 그의 독창적이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해석이라고 간주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보스의 성경해석적 관점은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발견되는 원리들과 구속사적 접근을 시도했던 선배 학자들의 도움 아래 보스 자신의 성경에 대한 경외와 신학적 통찰력이 발휘되어 하나의 큰 성경신학적 틀로 자리 잡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스에 앞서서 이 같은 성경신학적 접근을 시도한 대표적 학자로는 당연 장 칼뱅(J. Calvin: 1509-1564)을 언급할 수 있다. 즉, 그의『기독교 강요』에 흐르는 신학적 세계관, 특히 제2권 'The Knowledge of God the Redeemer in Christ, First Disclosed to the Fathers under the Law, and then to us in the Gospel'을 보라. 보스와 같은 시기의 독일학자로서 아돌프 슐라터(Adolf Schlatter: 1852-1938)에 대한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조.『교회와 문화』제3호(1999)에 실린 3편의 논문들을 보라.

54 Vos, *Biblical Theology*, 4-5.

of the self-revelation of God deposited in the Bible)[55]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보스가 정의하는 성경신학의 주요 관심사가 하나님의 자기계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기계시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를 연구하는 것임에 주목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보스는 그의 성경신학을 간단하게 때론 더 선호하는 표현으로서 '특별계시의 역사'(the history of special revelation)로 정의하였다.[56] 이제 보스의 성경신학적 접근의 전제와 주요 특징들[57]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살펴보자.

첫째,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개혁-복음주의적 성경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또는 계시하셨다는 계시의존(啓示依存)의 신앙과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영감으로 온전하고 충분하게 나타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신앙에 기초한다(히 1:1-2; 딤후 3:15-17; 벧후 1:20-21 참조). 둘째, 성경의 특별계시는 역사적 점진성을 통해 드러난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역사 세계와 관련 지으면서 나타나는데,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구속, 즉 구원을 초점으로 한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다루고 있다. 이 특별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지속적 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된다(히 1:1-2 참조). 셋째, 역사적 점진성을 통해 나타나는 성경의 특별계시는 구원-언약사적 이해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된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속을 다루는 특별한 계시로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관계(예, 노아[창 9:8-17], 아브라함[창 12:1-9; 15:1-17; 17:1-19], 모세[출 19:1-6], 다윗[삼하 7:4-17], 예레미야[렘 31:31-34])를 맺음으로 가시화되고, 언약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예수의 출생, 사역, 죽음, 부활, 승천으로 내용과 성취에 있어 최절정에 도달하며(히 1:1-2; 눅 24:24; 행 13:32-33; 갈 3:15-18), 마침내 예수의 재림으로 완전 종결에 이르게 된다(계 22-22). 즉, 성경의 특별계시는 언약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구원 역사를 점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 역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져 계시될 뿐 아니라 성취되고 적용됨을 보여준다(요 5:39; 고후 1:20). 이런 면에서 개혁-복음주의적 성경신학적 접근은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사적 관점을 맥으로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58] 넷째,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 즉, 하나님 계시의 유기성[59]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해석과 실천을 추구한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사실은, 동일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신적 통일성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 시기에 여러 예언자들과 저자들로 하여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을 고려할 때 성경의 다양성을 읽을 수 있다.[60] 하지만 이 다양성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61]이다.[62]

---

55 Vos, *Biblical Theology*, 5.

56 Vos, *Biblical Theology*, 14. 보스가 '성경신학'의 용어와 함께 '특별계시의 역사'라는 표현을 강조한 이유는 그 당시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성경신학'이란 용어 정의에 대한 다양한 입장 차이로 인해 그에 따른 혼선을 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참조. 보스의 제자인 체스터 레만(C. K. Lehman)의 정의도 참조하라. *Biblical Theology*, vol. I, 35.

57 본 단락은 보스의 책 *Biblical Theology*의 개론에서 있는 성경신학의 주요 특징('Main Features': 5-9)과 원리('Principles': 11-14)와 방법('Method': 16) 및 그의 프린스톤 신학교 취임연설 논문("학문과 신학 학과로서 성경신학의 개념",『구속사와 성경해석』, 9-35)을 기초로 하여 네 가지로 정리해 본 것이다. 참조. C. K. Lehman, *Biblical Theology,* vol. I, 33-35.

58 R. B. Gaffin, Jr., *Rem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xvi-xvii, xx. 성경신학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이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위해서는 D. L. Baker, *Two Testaments One Bible: A Study of Some Modern Solutions to the Theological Proble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nd New Testaments* (Leicester: IVP, 1976); D. L. 베이커,『구속사적 성경해석학』오광만 옮김 (서울: 엠마오, 1989)을 보라. 좀 더 구체적 이슈로서 최근에 신약에서의 구약 인용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을 세 가지 유형으로(각 유형의 대표적 학자들로는 Walter C. Kaiser, Jr., Darrell L. Bock, Peter Enns를 각각 제시함) 소개한 문헌을 보라. Kenneth Berding & Jonathan Lunde, (eds.), *Three Views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08). 참조. 그레고리 빌,『신약의 구약 사용 핸드북』이용중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59 유기적 해석은 특정 본문을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 아래 해석하는 것이며, 이때 고려되어야 할 해석의 준거틀은 본문의 신학적 지평과 구속사의 전체 구조, 그리고 하나님의 포괄적 계시와의 관계성이다. 정창균, "구속사적 설교를 말한다",『그말씀』(1998년 11월), 10.

위에서 살핀 네 가지 특징을 고려할 때, 개혁-복음주의적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피되 구원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특별계시의 역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계시 역사의 초점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을 밝혀 주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학의 적극적 표현으로서 개혁-복음주의 성경신학은 출발부터 하나님 말씀인 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한 신앙고백을 해석학적 전제로 출발하는 접근인 것이다. 보스의 이 같은 성경신학적 접근은 메이첸(J. G. Machen: 1881-1937),[63] 루이스 벌코프(L. Berkohf: 1873-1957),[64] 코넬리우스 밴틸(C. Van Til: 1895-1987),[65] 존 머레이(J. Murray: 1930-66),[66] 에드몬드 클라우니(E. P. Clowney),[67] 메러디스 클라인(M. Kline),[68] 리차드 게핀(R. B. Gaffin, Jr.),[69] 싱클레어 퍼거슨(S. Ferguson),[70] 벤게머런(W. VanGemeren),[71] 번 포이스레스(V. Poythress),[72] 그레엄 골즈워디(G. Goldsworthy),[73] 트럼프 롱맨(T. Longman, III),[74] 존 프레임(J. M. Frame)[75] 등과 같은 개혁-복음주의 전통에 선 성경학자들에 의해 지금도 전수되어 발전하고 있다.[76]

---

60 성경이 담지하고 있는 '신적 다양성'(divine diversity)에 대해서는 V. S. Poythress, *Symphonic Theology: The Validity of Multiple Perspectives in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87), 48-49; 53-54; 85-86을 보라.

61 보스는 하나님 계시의 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을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는 유기적 관계로 비유하였다. *Biblical Theology*, 7.

62 이와 같은 성경신학의 관점은 예수뿐 아니라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성경적 세계관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의 성경 구절들은 신구약 관계성 이해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 히 1:1-2; 행 13:32-33상; 갈 3:15-16; 요 5:39; 눅 22:20; 참조. 히 7:22; 8:1-13; 렘 31:31-34; 눅 24:27, 44-45; 벧전 1:10; 고후 1:20.

63 *The Origin of Paul's Religion* (London: Hodder & Stoughton, 1921).

64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39).

65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Phillipsburg: P&R, 1974).

66 "Systematic Theology, Second Article,"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6 (1963), 33-46.

67 *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 (Phillipsburg: P&R, 1979).

68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Grand Rapids: Eerdmans, 1972).

69 *The Centrality of Resurrection: A Study in Paul's Soteriology* (Grand Rapids: Baker, 1978).

70 *The Holy Spirit* (Leicester: IVP, 1996).

71 *The Progress of Redemption: The Story of Salvation from Creation to the New Jerusalem* (Grand Rapids: Zondervan, 1988).

72 *The Shadow of Christ in the Law of Moses* (Brentwood: Wolgemuth & Hyatt, 1991).

73 *Gospel and Kingdom: A Christian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Exeter: Paternoster, 1981); *idem*, *According to Plan: The Unfolding Revelation of God in the Bible* (Leicester: IVP, 1991); *idem*, *Preaching the Whole Bible as Christian Scripture* (Grand Rapids: Eerdmans, 2000); 그레엄 골즈워디, 『그리스도 중심 성경신학』 윤석인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74 *God is a Warrior* (Grand Rapids: Zondervan, 1995).

75 *Worship in Spirit and Truth: A Refreshing Study of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Biblical Worship* (Phillipsburg: P&R, 1996).

76 대표적인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A.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1986); H. N. Ridderbos, *Redemptive History and New Testament Scriptures*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mpany, 1988); W. Dumbrell, *Covenant and Creation: An Old Testament Covenantal Theology* (Exeter: Paternoster, 1984); *idem*, *The End of the Beginning: Revelation 21-22 and the Old Testament* (Lancer: Baker, 1985); *idem*, *The Search for Christ: Biblical Eschatology in Focus* (Grand Rapids: Baker, 1994); M. Strom, *The Symphony of Scripture: Making Sense of the Bible's Many Themes* (Downers Grove: IVP, 1990). Scott J. Hafemann and Paul R. House, (eds.), *Central Themes in Biblical Theology: Mapping Unity in Diversit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의 집필자들과 황창기 편저,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10-11 각주 11에 있는 문헌 및 데스몬드 알렉산더, 브라이언 로즈너 편집 / 카슨, 골즈워디 편집자문, 『IVP 성경신학사전』 (서울: IVP, 2004)에 기고한 학자들을 보라. 또한 IVP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New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시리즈의 저자들과 성경신학적 주제들을 참고하라. 예., G. K. Beale,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 A Biblical Theology of the Dwelling Place of God* (NSBT, 17; Downers Grove, IVP, 2004); 그레고리 K. 비일, 『성전신학: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의 선교적 사명』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국내에서는 1998년 1월 창립된 한국성경신학회(초대회장: 한제호; 2대 회장: 황창기; 3대 회장: 박형용)가 매년 2회

V. ACTS 신학-신앙운동과 ACTS의 신약학을 위한 제언과 사명

ACTS 총장과 명예총장을 역임했던 학성(鶴聲) 한철하(1924~2017)에 의해 제안된 'ACTS의 신학적 과제'(1986)와 'ACTS 신학공관(神學共觀)'(1994)은 'ACTS 신학-신앙운동'의 뼈대 내지 골격과 같다. 학성의 오랜 신학적 성찰은 세속화 된 서구 신학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학성에 의해 주창되었고 ACTS 교수회에 의해 발전된 ACTS의 신학-신앙운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필자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소제목으로 주요 내용과 특징을 다룬 바 있다.[77]

> (1) 기독교에는 중심진리로서 구원이 있으며 이 중심진리에 집중해야 한다: 중심진리-구원운동.
> (2)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선한 행실을 맺어 천국 들어가기에 힘써야 한다: 신행일치-천국운동.
> (3) 서양신학을 재평가하여 신학의 거듭남을 촉구해야 한다: 신학의 잘못된 본질과 방법을 비판하는 선지자적 선포운동.
> (4) 오늘의 천국 서기관인 신학자와 말씀 교사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천국운동의 나팔수인 교회를 섬기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신학자의 제사장적 회개운동.
> (5)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21세기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려야 한다: 현세와 내세의 왕적 축복을 선포하는 선교-소망운동.

ACTS의 신학-신앙운동은 우선 국내외 개혁-복음주의 신학이 갖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와 연대의식과 사명을 함께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개혁-복음주의 노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아쉬움 내지 한계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혁-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학문적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친 스콜라주의적 편향에 합류되어 성경의 중심 내지 신학의 본질적 메시지(*summa*)보다는 학계와 학파의 관심 아래 논의되는 신학적 주제 또는 성경에서 자주 논의되지 않은 주변 요소들(*pars*)을 다루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 것에 대해 경종과 우려를 표할 수 있다.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ACTS 신학-신앙운동이 학문의 가치나 중요성을 배척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기독교 신학도로서 교회와 선교 현장을 의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학 행위의 동기와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개혁-복음주의 신학적 노선 안에서도 ACTS 신학-신앙운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칼빈주의'와 '웨슬리주의'로 구분된 국내외 기독교 신학-신앙의 양 공동체에 도전하는 자성과 이에 따른 극복의 가능성이다. ACTS 신학-신앙운동은 양 진영의 신학-신앙 공동체 상호 간의 신학적 통합이나 교회 정치적 일치를 일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운동이 환기시키고자 하는 초점과 방향은 각각의 교회 역사적 전통이나 제도를 상호 존중하되, 동일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양 진영이 같은 주, 같은 성령, 같은 세례를 믿고 있는 형제의식과 상호존중 아래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고양하기 원함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자 지혜이다. 실제로 ACTS 공동체는 지난 44년 동안 국내외 다양한 교단/교파 배경을 갖고 있는 ACTS 동문들을 통해 복음 안에서의 개신교 연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학회 모임과 학회지 「교회와 문화」를 통해 '성경신학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77 허주, "'ACTS 신학-신앙운동'의 이해와 의의: 한철하 박사의 주요 논문을 중심으로," 『ACTS와 21세기』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176-207.

지금까지 나눈 내용에 기초해서 이제 필자는 신학교육기관인 ACTS 교수회 일원이자 신약분과 교원으로서 ACTS의 신약학 정체성과 역할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 글을 읽는 독자가 ACTS 신학-신앙운동에 대한 나름의 이해와 전제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아래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78] 필자는 여기서 신학교육기관인 ACTS의 특징과 관련하여 세 가지 특징만 환기시키고자 한다. (가) ACTS는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라는 교육이념 속에 설립 시기부터 지금까지 교회/교단/교파 연합적 채색 옷을 빼앗기지 않고 그 옷을 즐거이 입어왔다는 점과 (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래를 대망하는 비전속에서 아세아와 세계 복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79] 그리고 (다) 비서구권의 신학 환경 속에서도 아시아와 세계를 품는 국제적 성격의 대안적 신학-선교교육기관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ACTS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비전과 목적은 설립이후 44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유효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ACTS 공동체의 리더들이 이 핵심가치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구현하고자 힘써왔으며 지금도 이것을 위해 그 동기와 목표를 잘 발휘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ACTS의 신약학은 현대 성서학의 다양한 해석학적 방법들과 연구주제들을 어떤 원리나 체계 아래 반응할 것인가? 21세기에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신약학과 성서학의 연구물들을 어떤 전제와 근거 속에서 평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 두 질문들과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과 함께 다섯 가지 입장을 ACTS 교수 동료들 및 국내외 개혁-복음주의 동역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필자는 ACTS의 신약학이 '기독교 신학'의 토대 위에 역동적 신약성경신학(a dynamic biblical theology)으로 나아가기를 제안하고 싶다. 이것은 앞 단락에서 다룬 '개혁-복음주의 성경신학'의 해석학적 전제와 특징을 메타-성경신학적 기초(meta-biblical-theological foundation)로 수용하는 입장이다.[80] 이런 접근을 계승하되 창조적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말하고 싶다. 아래의 진술들은 ACTS의 신약학이 역동적 신약성경신학으로 나아가는 성격 내지 과제로 고려될 수 있다.

1. 바른 성경관에 기초한 성경주해 중심의 신약성경신학

ACTS 신약학은 바른 성경관 아래 성경원어에 기초한 성경주해를 통해 역동성 있게 연구되어야 할 성경주해 중심의 신약성경신학(an exegetical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on the basis of the Bible as God's revelation)이어야 할 것이다.[81] 따라서 ACTS의 신약학은 신구약 66권을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학문과 경건의 절대 준거점(the absolute frame of reference)으로 받아들인다(딤후 3:16-17 참조). 이것은 화란의 기독교 철학자 헤르만 도여벨트(Herman Dooyeweerd)의 '초월적 방법론'(transcendental criticism)과 미국의 개혁파 변증학자 밴틸(Van Til)의 '전제적 인식론'(presuppositional epistemology)의 출발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82] 이와 같은 성경관의 전제에 따를 때 우리의 학문적 작업은 국내외 성경 비평에서 나타나는 비

78 이를 위해서는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 길』 (양평: 칼빈아카데미출판부, 2016 증보해설판); 허주, "ACTS 신학-신앙운동의 이해와 의의", 『ACTS와 21세기: 한철하 박사 팔순연 기념 학술논문집』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175-207; 강창희, "ACTS의 정체성과 신학교육", 「ACTS 신학과 선교」 제12호(2011), 47-121; 장해경, "'ACTS 신학공관'이란 무엇인가", 「ACTS 신학저널」 제26.4호(2015), 141-87; 한상화, "'ACTS 신학'의 정체성: '신학공관'과 '기독교 중심진리'", 「ACTS 신학저널」 제28.2호(2016), 9-40.

79 "ACTS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global evangelization with its vision for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연구원/신학연구소 편, 『ACTS 신학과 선교 30년』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17.

80 즉, 성령의 인침을 통해 바른 신앙고백을 하는 자들이 성경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을 수종 든다고 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반영되는 성경신학이다.

81 Graeme Goldworthy, *Gospel-Centered Hermeneutics*, 234-72를 참조하라.

82 한철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신학공관' 제안,"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29차 논문발표회(1997년 4월) 논문,

(非)신앙적 전제들 내지 해석학적 방법들을 비판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ACTS의 신약학은 바른 성경관의 플랫폼을 매우 중요한 해석학적인 거점으로 간주한다.

2. 교향곡적 신약성경신학

ACTS 신약학은 성경의 신학적 주제와 그에 따른 해석의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통일성을 추구하는 교향곡적 신약성경신학(a symphonic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을 지향한다.[83] 이 같은 성경에 대한 이해는 신약성경 각 권에서 나타나는 신학의 독특한 소리들과 더불어 신구약 성경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장엄한 성경신학적 소리와 어우러지는 신약성경신학을 추구한다. '모든 성경'을 존중한다는 것은, ACTS의 신약학이 다루는 텍스트가 신약성경 27권으로 제한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신약성경의 역사적-신학적 전거(典據)가 되는 구약성경 39권과의 유기적 관계를 깊이 있게 고려하는, 성경신학적 문맥 내지 구속사적 흐름 안에서 발휘되는 신약성경신학이다.[84] 이것은 또한 성경이 궁극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낸 여러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품으시는 단 하나의 이야기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향곡적 신약성경신학은 성경의 주요 주제 내지 개념을 단편적으로 끊어서 읽지 않으려는 성경 해석학적 틀이라 할 수 있다. 즉, 성경의 구원역사적 흐름과 이야기 문맥 안에서 신학적 중심 용어 내지 개념(예, 하나님 나라, 언약, 구원, 메시아, 교회, 종말,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읽기이다. 말하자면 ACTS 신약학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메타-내러티브를 읽어나감으로써 열방 가운데 자기 백성을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도적이고도 점진적인 뜻/계획을 추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각 복음서의 첫 시작을 참조해 보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온전하신 계획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으로 성취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새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재창조/회복의 기쁜 노래를 부름으로 마지막 음표를 찍게 된다(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어린양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참조하라). 이런 성경의 교향곡적 독법은 성령 안에서 놀라운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읽기이다. 실제로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메시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그 시대의 (구약)성경 안에서 '교향곡적으로' 읽기 시작한 개척자들이라 할 수 있다(예, 갈 3:6-14, 15-16, 4:21-5:1; 롬 9-13장; 고전 10:1-13; 고후 3:1-18; 히 10:32-12:13; 벧전 1:10-12; 마 2:13-18; 막 1:1-3). 물론 이 해석의 원조는 구약과 신약의 주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이다(예, 마 5-7장; 막 12:1-12, 18-27, 28-34, 35-37; 눅 4:16-30; 24:25-27, 32, 44-49; 요 2:13-22; 5:39-47; 6:31-59). 따라서 우리의 교향곡적 성경 읽기 역시 신약학의 옛 것과 새 것의 방법론적 도구들을 우리의 해석학적 전제의 창고에서 잘 취사선

34.

83 "진리는 내재적으로 풍성하고 복합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러하시기 때문이다.", Vos, *Biblical Theology*, 24(번역서). 이런 이해는 보스에게 큰 영향을 받은 포이스레스(Poythress)의 제안이기도 하다. 그의 책 *Symphonic Theology*, 69-91을 보라. 포이스레스는 여기서 '교항곡적 신학'의 열두 가지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신학적 또는 성경적) 범주나 범주들의 체계도 우리에게 궁극적 실재를 제공하지 못한다."(5. No category or system of categories gives us ultimate realty.); "다른 인간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의 책들 사이에서 차이들은 또한 **신적** 차이들이다."(저자 강조).(7. The differences between biblical writings by different human authors are also *divine* differences.); "우리는 진리를 상대화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주제들을 활용한다."(9. We use different motifs not to relativize truth but to gain truth.); "우리는 사용하는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본다."(10. We see what our tools enables us to see.); "신학적 논쟁에 있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12. In theological debates, we should preempt the other person's strong points.).

84 ACTS 구약학 교수진에 의해 2004년 5월에 공동으로 작성된 "ACTS 구약성경신학의 방향"(미발행 발표문)에서도 ACTS의 구약학이 구약성경뿐 아니라 신약성경과 함께 통합적으로 마땅히 활용되어야할 것을 잘 지적하고 있다. 한편, ACTS 신약학은 '유대 중간기 문헌'을 정경 내지 계시문서로 간주하지 않지만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와 동일하게) 이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는 1세기 유대교 환경뿐 아니라 신약성경을 역사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도 필연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전과 분별이 요구된다. 나아가 ACTS 신약학은 성경의 디테일한 주제를 연구하고 평가하되, 신약학이 씨름해야 하는 본문은 (성경의 텍스트와 더불어) 오늘의 교회목회 및 선교현장의 텍스트라는 점을 인식하고자 한다.

3.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및 구원론 중심적 신약성경신학

ACTS의 신약학은 구약학과 더불어 성경의 기록 목적과 신학의 방향 내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될 사명이 있다.[85] 메타-내러티브는 메타-인물/사건으로 구성되면서 메타 주제/용어가 파생되기 때문이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눅 24:44-49).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막 1: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참조. 롬 1:16). ACTS 신약학은 교회를 세우며, 덕을 끼치고, 말씀의 진리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 중심의 신약성경신학(the Kingdom of God and salvation-oriented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for the faithful community)을 지향하게 된다. 예수님에 따르면 모든 성경이 자신에게,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사건의 의미를 예언하고 성취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것은 결국 성경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주로 고백하는 기독론적이면서도 구원론적 가치와 이 가치를 드러내는 선교적 함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증인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인 '위로부터 능력' 즉 성령으로 옷 입음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면서 구원론 중심의 성경 읽기가 또한 성령의 인도/능력 가운데 선교적 열매로 나타나고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된다.[86]

신약성경에서는 '회개'와 '죄사함'을 비롯한 여러 구원론적 용어(예, '믿음,' '중생,' '칭의,' '성화,' '화목/화해,' '평안,' '구속,' '입양,' '새사람,' '영생,' '하나님 나라/천국')들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 내지 개념은 구원을 예정-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성부/성자/성령 하나님에 대한 연구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구원'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신학적 주제임을 알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성경적 주요 개념과 용어들을 그리스도 중심성을 넘어 삼위일체적(三位一體的) 틀 안에서 풍성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ACTS의 신약학은 예수께서 친히 언급하신 내용에 기초해서 그 개념을 소화해야 하며('예수의 성경신학'(예, 눅 4:16-21; 24:25-27, 44-47), '바울의 성경신학'(예, 고전 10:1-4; 엡 1:3-14)과 '다른 신약저자들의 성경신학'(예, 벧전 1:3-12; 히 11:1-12:2)을 본받는 신학이다. 나아가 이것은 15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1483-1546)와 장 칼뱅(1509-1564)의 신학운동과 18세기 영적 각성을 일으킨 조지 윗필드(1714-1770), 요한 웨슬리(1703-1791), 조나단 에드워즈(1703-1758)의 신앙운동과 그 맥을 함께 하는 신학적 접근이기도 하다. 오늘날 신학도가 신학함의 일차적 사명은 신앙공동체 회원들의 목양적/구원론적/선교적 관심 속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신앙고백적 사명과 맞물려 있다(요 20:31; 눅 1:1-4; 계 1:1-3 참조).

---

85 한철하, "신앙의 목표,"『21세기 인류의 살 길』, 323-358을 참조하라.

86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정옥배, 한화룡 옮김 (서울: IVP, 2010)를 참조하라. 라이트는 눅 24:45-47에 근거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은 메시아적으로 그리고 선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36)고 주장한다. 나는 여기에서 (구약)성경을 메시아적이고 선교적으로 읽는 함의와 더불어 이것을 실제화 시키는데 있어 '예수의 증인'이 '위로부터의 능력'(눅 24:49; 행 1:4-8; 참조. 요 20:21-23)으로 옷 입는 것, 즉 성령의 능력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함을 첨언하고 싶다.

이것은 신앙공동체를 무시하려고 하는 오늘의 성서학의 경향에 대한 ACTS 신약학의 소명이자 사명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신학은 단순히 교회를 위한 성경신학이라기 보다 바른/성경적 교회를 위한 성경신학이어야 하기에, 퇴색될 수 있는 전통적 교리에 대해서도 성경적 검증의 열린 자세를 잃지 않는, 해서 늘 성경적으로 바르게 개혁됨으로 다음세대 신앙공동체를 섬기는 성경신학이 되어야 한다.[87] 이런 점에서 ACTS 교수진과 강사진은 지금보다 더 민감하게 ACTS 설립비전과 목적에 맞는 교육적 틀과 학교 행정적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ACTS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좁아질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4. 통합적이면서 연계학문적인 신약성경신학

ACTS 신약학은 정경으로서 신구약 성경을 함께 연구할 뿐 아니라 신학 안에서의 다른 제 분야들(구약학, 신약학, 성경해석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학, 설교학, 교육학, 상담학, 등)과 신학 밖에서의 다른 학문적 제 분야들(철학, 해석학, 언어학, 문학이론, 사회학,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판적 수용을 통하여 창조적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어야 하는 통합적 신약성경신학(a holistic and interdisciplinary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이 되길 기대한다. 해석학적 방법론에 국한시킬 때, 우리는 삼중적 두 가지 국면(three-fold two dimensions)의 역동적 적용을 고려하게 된다. (가) 통시적/구속역사적 접근과 공시적/문학적 접근의 만남을 통한 통합적 성경신학적 해석과 (나) 저자와 텍스트와 독자(개인 및 공동체 포함)와의 상호관계를 통한 의미의 역동성이다.[88] 이와 같은 접근은 ACTS 신약학의 개별과목 강의나 연구 자체가 우리의 동기나 목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ACTS 신약학은 좀 더 큰 틀로서 성경신학과 신학을 세워나가야 할 학문의 한 분야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ACTS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고 연구되는 모든 학문 분야는 하나님 계시문서로서 성경의 중심성과 가치를 더욱 의식함으로써 건강한 성경신학과 대화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또한 기대한다.

5. 종말론적이며 선교적 일상생활을 섬기는 신약성경신학

ACTS 신약학은 종말론적이며 선교적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는 신약성경신학(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for everyday mission-oriented life)을 지향한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소유하고(예를 들면, 바른 신관, 인간관, 종말관, 물질관, 등), 이 세상에서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종말론적이며, 매일의 삶이 선교적이어야 함을 깨우쳐 주는 성경신학이다. 이것은 신약성경 텍스트 자체가 저자 및 독자(들)과의 목회-선교적 문맥 가운데 소통하면서 기록된 1세기 역사신학적 정황을 신중히 고려하는 신약성경신학을 뜻한다.[89]

---

87 머레이(J. Murra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상 개혁교회가 개혁되어지듯이(*ecclesia reformata reformanda est*) 개혁신학도 개혁되어져야 한다."(*theologia reformata reformanda est*)., 황창기 편저,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65에서 재인용.

88 이와 같은 해석학적 방법론을 성령 이해에 적용한 필자의 글을 보라. Ju Hur, *A Dynamic Reading of the Holy Spirit in Luke-Acts* (JSNTSS, 211;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26-36. 허주, "누가 성령론 이해와 평가", 「ACTS 신학저널」, 19/1 (2014): 7-58.

89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39-83. 라이트는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넘어 '성경의 선교적 기초'라는 관점 아래 '선교적 해석학'을 성경신학적으로 풀어낸다. 하워드 마샬의 진술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신약성서신학은 본질적으로 선교신학이다. 내가 한 이 말의 의미는 신약성서의 문서들은 두 부분으로[예수의 선교와 그의 제자들의 선교] 이루어진 선교의 결과물로 탄생했다는 것이다." 『신약성서 신학』 박문재 · 정용신 옮김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6), 37. William J. Larkin, Jr. and Joel F. Williams, (eds), *Mission in the New Testament: An Evangelical Approach* (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 Series, 27;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8); Andreas J. Köstenberger and Peter T. O'Brien,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Downers Grove: IVP, 2001); Stanley E. Porter and Cynthia Long Westfall, (eds.),

이것은 위의 네 번째를 고려할 때, ACTS 신약성경신학은 긴밀하게 (공동체를 위한) 조직신학과 (일상생활을 위한) 실천신학과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90] 이런 동기와 관심을 고려할 때 향후 ACTS는 설립 초기의 비전을 따라 '다수세계'(the majority world), 즉 비서구권에서 사역하는 신학자와의 교류와 이에 따른 교과과정 계발에도 힘쓸 것을 요청 받게 된다. 말하자면 비서구권의 목회/선교 현장에 적용해야 할 성경신학이라는 실제를 더욱 성실하게 살피고 섬기는 관심과 배려를 의미한다.

VI. 나가는 말

그렇다면, ACTS 신약학 및 ACTS가 지향해야 할 성경신학을 누가 세울 것인가? 우선은 ACTS 신학-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본주의와 복음주의적 신앙고백 아래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ACTS 신구약 교수들 및 모든 ACTS 교수진의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신학적 전문분야(신약학, 구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교육학, 상담학, 선교학, 복지학 등)를 계속 익히면서, 성경을 모든 신학의 준거점으로 잡고 타 분야와의 끊임없는 연계적이고도 대화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신학이 아닌 다른) 일반학(예를 들어, 철학, 역사학, 언어학, 국문학 등)의 전문 학자들과의 연계-학문적 대화에도 힘써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신학이 전문 학자들과의 교류로 온전해질 수 없다. ACTS에서 공부하는 학부/대학원 재학생들의 교육과정 및 동문들과의 교제 가운데 이런 신학적 사상운동을 폭넓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ACTS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원생들에게 이와 같은 신학을 나누며 또한 함께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석박사과정의 논문을 지도할 때 이런 해석학적 틀과 성경신학적 관점을 고려하면서 아시아/아프리카 문맥 아래 창조적인 접근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ACTS 출판부는 ACTS가 추구하는 신학-선교적 사상과 비전을 연동시키는데 매우 필연적 도구가 된다. 이런 점에서 ACTS 신약학/성경신학은 바른 복음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ACTS 성경신학 교수들 및 모든 교수진이 중심을 이루되 함께 연대의식을 갖고 교류할 수 있는 국내외 형제 신학교육기관 및 신학자/목회자/선교사들과 함께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연합운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91]

학문의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는 국내외 신학적 행보를 '집을 나간 탕자'에 비유했다고 해서 어제와 오늘의 신약학/성서학의 공헌과 기여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너무 쉽게 잃어버렸거나 포기한 시대상황 아래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신약학/성서학의 현주소를 좀 더 직시하기 원함이다. 어찌 보면 '개혁-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집에 있는 탕자'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면서 연구하고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다(에 7:10; 눅 10:25-37; 요 5:38-47;행 20:28-35; 딤전 4:13-16).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마 16:16; 막 8:29; 눅 9:20; 행 2:36; 5:42; 9:22)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받았다는 사실(행 11:26;

Christian Mission: Old Testament Foundations and New Testament Developments (Eugene, 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11); 딘 플레밍, 『신약을 선교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화룡 옮김 (서울: 대서, 2015)을 참조하라.

90 "성경신학 연구에 있어서 결정적인 네 번째 측면은 계시의 실제적 적용성(practical adaptability)에 있다. ... 계시는 학교가 아니고 언약이다. ...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 보이신 모든 것은, 그것들이 역사 중에 나타날 때 그의 백성의 종교적인 필요의 실제성에 적합하게끔 주어졌던 것이다.", Vos, *Biblical Theology*, 25(번역서). Thiselton, *New Horizons in Hermeneutics*, 8-10도 참조하라. 티슬턴은 그의 책의 마지막 두 장의 제목을 '목회신학의 해석학'(The Hermeneutics of Pastoral Theology [I, II])으로 정하고, 성경해석과 일상생활 안에서 삶의 현장과의 관계를 논했다.

91 이런 점에서 ACTS 공동체는 국내외 로잔운동(www.lausanne.org) 및 아시아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 www.ataasia.com)과 이곳에 속한 회원 신학교들과 더욱 책임 있고 활발한 상호유대관계를 요청받는다. 로잔운동을 위해서는 Darrell Bock (ed.), *The Cape Town Commitment: Bibliographic Resources* (Eugene, Oregon: Wipf & Stock, 2013)를 참조하라.

26:28; 벧전 4:16)은 ‘기독교 신학자’ 역시 (학자이기 이전에) 먼저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바울이나 누가와 같은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자기이해가 그 어떤 정체성보다도 우선했다는 사실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성열, 오덕호, 정기철. 『설교자를 위한 성서해석학 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강창희. "ACTS의 정체성과 신학교육." 「ACTS 신학과 선교」 제12호(2011): 47-121.
라이트, 크리스토퍼. 『하나님의 선교』. 정옥배, 한화룡 역. 서울: IVP, 2010.
마샬, 하워드. 『신약성서 신학』. 박문재 · 정용신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6.
박봉랑. 『교의학방법론』 (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보스, 게르할더스. 『성경신학』. 이승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베이커, D. L. 『구속사적 성경해석학』. 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1989.
빌, 그레고리. 『신약의 구약 사용 핸드북』.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스탠리 그렌츠 & 로저 올슨. 『신학으로의 초대』. 이영훈 역. 서울: IVP, 1996.
스토트, 존. 『복음주의의 기본 진리』. 김현회 역. 서울: IVP, 200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연구원/신학연구소 편. 『ACTS 신학과 선교 30년』.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알렉산더, 데스몬드, 브라이언 로즈너. 편집. 『IVP 성경신학사전』. 서울: IVP, 2004.
에드워드 클링크 3세 & 대리언 라킷. 『성경신학의 5가지 유형: 이론과 실제의 비교』. 신윤수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15.
이한영. 『패러다임 맥락에서 본 성경해석학』. 서울: 나눔사, 2003.
장해경. "'ACTS 신학공관'이란 무엇인가." 「ACTS 신학저널」 제26.4호(2015): 141-87.
조휘. "B. Childs와 J. A. Sanders의 정경비평적 접근 비교를 중심으로 본 정경비평." 「ACTS 신학과 선교」. 제8호 (2004): 49-76.
플레밍, 딘. 『신약을 선교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화룡 역. 서울: 대서, 2015.
한상화. "'ACTS 신학'의 정체성: '신학공관'과 '기독교 중심진리'." 「ACTS 신학저널」. 제28.2호(2016): 9-40.
한제호. "게할더스 보스의 주경중심 성경신학의 현대적 가치." 『웨스트민스터 역사와 신학』.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한국총동문회 편집. 서울: 필그림, 2010, 426-49.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 길』. 양평: 칼빈아카데미출판부, 2016 증보해설판.
허주. "'ACTS 신학-신앙운동'의 이해와 의의: 한철하 박사의 주요 논문을 중심으로." 『ACTS와 21세기』.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176-207.
_____. "누가 성령론 이해와 평가." 「ACTS 신학저널」. 19/1 (2014): 7-58.
_____. "ACTS 신학-신앙운동의 이해와 의의." 『ACTS와 21세기: 한철하 박사 팔순연 기념 학술논문집』.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175-207.
Barrera, J. T. *The Jewish Bible and the Christian Bible: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Bible.* W. G. E. Watson trans. Leiden: Brill, 1998.
Beale, G. K.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 A Biblical Theology of the Dwelling Place of God.* Downers Grove, IVP, 2004. 『성전신학: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의 선교적 사명』. 서울: 새물결플 러스, 2014.
Berding K. & Jonathan Lunde. (eds.). *Three Views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08.
Berkohf, L.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39.
Bock, D. (ed.). *The Cape Town Commitment: Bibliographic Resources.* Eugene, Oregon: Wipf & Stock, 2013.
Bray, G. "Part 2: The Historical-Critical Method." in *Biblical Interpretation: Past & Present.* Leicester: Apollos, 1996, 221-460.
Childs, B. S. *Biblical Theology in Crisi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0). 『성경신학의 위기』.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2.
_____.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London: SCM, 1979.
_____. *The New Testament as Canon: An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1984.
_____. *Old Testament Theology in a Canonical Context.* Philadelphia: Fortress, 1985.
_____.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1993.
Clowney, E. P. *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 Phillipsburg: P&R, 1979.
Davies, P. R. *Whose Bible Is It Anywa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Dumbrell, W. *Covenant and Creation: An Old Testament Covenantal Theology.* Exeter: Paternoster, 1984.
_____. *The End of the Beginning: Revelation 21-22 and the Old Testament.* Lancer: Baker, 1985.
_____. *The Search for Christ: Biblical Eschatology in Focus.* Grand Rapids: Baker, 1994.
Ferguson, S. *The Holy Spirit.* Leicester: IVP, 1996.
Frame, J. M. *Worship in Spirit and Truth: A Refreshing Study of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Biblical Worship.* Phillipsburg: P&R, 1996.
Gaffin, R. B. Jr. "Introduction." in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The Shorter Writings of*

Geerhardus Vos. R. B. Gaffin, Jr. ed. Phillipsburg: P & R, 1980.
_____. *The Centrality of Resurrection: A Study in Paul's Soteriology.* Grand Rapids: Baker, 1978.
Goldsworthy, G. *Gospel-Centered Hermeneutics: 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Evangelical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VP, 2006.
_____. *Gospel and Kingdom: A Christian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Exeter: Paternoster, 1981.
_____. *According to Plan: The Unfolding Revelation of God in the Bible.* Leicester: IVP, 1991.
_____. *Preaching the Whole Bible as Christian Scripture.* Grand Rapids: Eerdmans, 2000. 『그리스도 중심 성경신학』.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Green, J. B. (ed.). *Hearing the New Testament: Strategies for Interpretation.* Carlisle: Paternoster, 1995.
Hafemann, Scott J. "Biblical Theology: Retrospect and Prospect." in S. J. Hafemann (ed.), *BiBlical Theology: Retrospect & Prospect.* Downers Grove, IVP, 2002: 15-21.
Hafemann, S. J. and Paul R. House. (eds.). *Central Themes in Biblical Theology: Mapping Unity in Diversit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Hasel, G. *New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Grand Rapids: Eerdmans, 1978.
Hoekema, A. 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1986.
Hunt, S. A., D. F. Tolmie, and R. Zimmermann. *Character Studies in the Fourth Gospel.* Tübingen: Mohr Siebeck, 2013.
Hur, J. *A Dynamic Reading of the Holy Spirit in Luke-Acts.*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Kline, M.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Grand Rapids: Eerdmans, 1972.
Köstenberger, A. J. and Peter T. O'Brien.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Downers Grove: IVP, 2001.
Larkin, W. J. Jr. and Joel F. Williams. (eds). *Mission in the New Testament: An Evangelical Approach.*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8.
Longman, T. III.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7.
_____. *God is a Warrior.* Grand Rapids: Zondervan, 1995.
Machen, J. G. *Christianity & Liberalism.*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23.
_____. *The Origin of Paul's Religion.* London: Hodder & Stoughton, 1921.
Malbon, E. S. & E. V. McKnight. *The New Literary Criticism and the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Marshall, I. H. (e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Essays on Principles and Methods.* Exeter: Paternoster, 1977.
McKenzie, S. L. & S. R. Haynes. (eds.). *To Each Its Own Meaning: An Introduction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Moore, S. D. *Literary Criticism and the Gospels: The Theoretical Challeng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Morgan R. & J. Barton. *Biblical Interpre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Murray, J. "Systematic Theology, Second Article."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6 (1963): 33-46.
Neill, S. & T. Wright.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Testament 1861-198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Onega, S. & J. A. G. Landa. (eds.). *Narratology.*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6.
Porter, S. E. & Jason C. Robinson.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to Interpretive Theory.* Grand Rapids: Eerdmans, 2011.
Porter, S. E. and Cynthia Long Westfall. (eds.). *Christian Mission: Old Testament Foundations and New Testament Developments.* Eugene, 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11.
Powell, M. A. *What Is Narrative Criticism? A New Approach to the Bible.* London: SPCK, 1993.
Poythress, V. *The Shadow of Christ in the Law of Moses.* Brentwood: Wolgemuth & Hyatt, 1991.
_____. *Symphonic Theology: The Validity of Multiple Perspectives in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87.
Reventlow, H. G. *Problems of Biblical The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Philadelphia: Fortress, 1986.
Ridderbos, H. N. *Redemptive History and New Testament Scriptures.*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mpany, 1988.
Robey, D. "Anglo-Amenrican New Criticism." in *Modern Literary Theory: A Comparative Introduction.* A. Jefferson & D. Robey. eds. London: B. T. Batsford, 1986, 73-91.
Roth, S. J. *The Blind, the Lame, and the Poor: Character Types in Luke-Ac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Sanders, J. A. *Canon and Community.* Philadelphia: Fortress, 1984.
Sandys-Wunsch, J. and L. Eldredge. "J. P. Gabler and the Distinction between Biblical and Dogmatic Theology: Translation, Commentary and Discussion of His Originality."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33 (1980): 133-58.
Scobie, C. H. H. "The Challenge of Biblical Theolog.," *Tyndale Bulletin* 42.1 (1991): 31-61.
_____. "The Structure of Biblical Theology." *Tyndale Bulletin* 42.2 (1991): 163-94.
Strom, M. *The Symphony of Scripture: Making Sense of the Bible's Many Themes.* Downers Grove: IVP, 1990.
Tate, W. R. *Biblical Interpretation: An Integrated Approach.* Peabody: Hendrickson, 1991.
Theissen, G. and A. Merz. *Der historische Jesus: Ein Lehrbuch.* G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The Historical Jesus: A Comprehensive Guide.* J. Bowden trans. London: SCM, 1998.
Thiselton, A. C. *New Horizons in Hermeneu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2. 『해석의 새로운 지평: 변혁적 성경읽기의 이론과 실제』. 최승락 역. 서울: SFC, 2015.
VanGemeren, W. *The Progress of Redemption: The Story of Salvation from Creation to the New Jerusalem.* Grand Rapids: Zondervan, 1988.
Van Til, C.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Phillipsburg: P&R, 1974.
Wallace, P. J. "The Foundations of Reformed Biblical Theology: The Development of Old Testament Theology at Old Princeton, 1812-1932."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59 (1997): 41-60.
Watson, F. *Text, Church and Worl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Edinburgh: T&T Clark, 1994.
_____. *Text and Truth: Redefining Biblical Theology.* Edinburgh: T&T Clark, 1997.
Webster, J. "Hermeneutics in Modern Theology: Some Doctrinal Reflections."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1.3 (1998): 309-17.
Webster, R. L. "Geerhardus Vos(1862-1949): A Biographical Sketch."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XL (1978): 304-317.
Wells, D. F. (ed.),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A Historical of Its Modern Develop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5.
Witherington, B. III. *The Jesus Quest: The Third Search for the Jew of Nazareth.* Carlisle: Paternoster, 1995.

Abstract

A Proposal toward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Goals of New Testament Studies Department of ACTS as Theological Institution

Ju Hur
Professor of New Testament Studies, ACTS

This paper has been designed in terms of the theological-religious movement of ACTS which was established in 1974 for the purpose of evangelization of Asia and the world based on theocentricism and evangelicalism as her educational value. It aims to elaborat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goals of New Testament Studies Department (NTSD) of ACTS as theological institution. I, first of all, will define several theological terms such as 'theology', 'Christian theology', 'biblical studies' and 'biblical theology.' Then I also briefly sketch with some comments the New Testament studies past, present and future in light of their hermeneutical methods.

After doing so, I propose five suggestions as tasks for NTSD of ACTS as part of ACTS theological-religious movement. Considering that NTSD of ACTS should be organized and developed within the reformed-evangelical biblical theology, this paper claims these theoretical-practical elements are to be presented in an inter-relational academic framework. These elements are as follows: (1) the Bible exegesis centered NT biblical theology based on the sound doctrine of the Scripture, (2) the symphonic NT biblical theology, (3) the NT biblical theology focusing on such themes of Christology, Kingdom of God and salvation, (4) the NT biblical theology as an integrated and interdisciplinary department and (5) the NT biblical theology which serves eschatological and missional life in everyday situation.

This academic movement is driven by both the ACTS biblical theology professors and other members of ACTS faculty. In a similar vein, this is to be well actualized in ACTS Korean and international students, particularly who are engaged in ThM and PhD programs. One way for this academic movement to be practically promoted is through the ACTS Press in a sense of publication, which can be considered a vital and effective tool in making the ACTS theological-religious thoughts and her vision realized.

Key Words

ACTS Theological-Religious Movement, NT Studies, Theology, Biblical Theology, NT Biblical Theology, Theological Institution, ACTS

Part 5

논 평

이한영 박사 (구약신학)

“우리는 신약학을 무엇이라 하는가?
신학교육기관으로서 ACTS가 지향해야 할 신약학 분과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제언”

저자: 허주 / ACTS 신약학
논평자: 이한영 / ACTS 구약학

논문요약

허주 교수님은 본고에서 ACTS의 신약학이 나아갈 나름의 방향과 길목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언하고 있다.

1. 먼저, 본 논의에 앞서 본고는 국내외 신학적 좌표 및 용어들을 설명한다. 보스(G. Vos)가 1894년 프린스톤 신학교에 ‘성경신학과’(Dept. of Biblical Theology)를 개설한 이후 1970년대에 이르러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의 재건을 위한 학회들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 성서학(biblical studies)은 신학(theology)과 분리되는 행보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성경신학’이란 용어가 신구약에 대한 신학과 비신학적 성서학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3. 이러한 성경신학/성서학의 이분법적이며 혹은 비신학화적인 학문으로서의 결정적 진보는 인문주의 발원과 함께 시작된 종교개혁 시기(16-17세기) 직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교회의/교회를 위한 신학’에서 (1) ‘성경적/바른 교회’와 (2) ‘교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신학’으로의 전환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는 ‘교리적/신앙고백적’ 접근을 배제한 채 성경을 역사적 고대문서로서 비평적으로 접근하는 성서학으로 이해된다.

4. 허주 교수님은 본고에서 기독교 신학(Christian Theology)이란 두 가지의 전제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1) 신학의 규범적 텍스트로서 신구약 66권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수납; (2) 이 명제를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 발휘되는 신학이다. 이는 성경의 초자연적 사건의 역사적 실재성 즉 신적계시를 부인하는 역사비평과 인문학적 접근에 의한 자유주의 신학과 성서학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5. 오늘날 20세기 중반부터 성서학은 구약학과 신약학의 이름하에 가각의 연구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나아가 각각의 범위 내에서도 더욱더 세분화되어가고 있는 연구의 경향으로 인해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출할 수 있는 성경신학(구약/신약신학) 연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6. 인문학적인 접근으로서의 성서학으로 인한 상이한 주장들에 대한 염려와 반성으로 1940년대부터 기독교 신앙공동체와 교회의 신학을 변증하기 위한 ‘성경신학운동’(biblical theology movement)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각기 다른 학문적, 신앙적 방법론적 요소들로 인해 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후기현대주의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7. 이러한 난항은 신약학의 해석학적 방법론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이는 신적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역사실증주의의 관점에서 18세기 말부터 끊이지 않는 '역사적 예수'(the historical Jesus)와 '신앙의 그리스도'(the Christ of faith)의 논쟁에서 볼 수 있다.

8. 그런가 하면 이러한 와중에 서구의 개혁-복음주의 신약학자들은 역사비평적 도구들을 역이용하여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는 사실이요 고백임을 증언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 역사비평 학자들 내에서의 회의와 전통적인 인식론에 대한 철학적 비평이 활성화되면서 성경을 텍스트로 해석하는 '새 비평'(new criticism)의 방법론이 일기 시작했다. 따라서 개혁-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성경 텍스트의 다층적 성격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역사비평학적 접근들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9. 이런 점에서 개혁-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텍스트자체의 세계를 분석하는 서사비평(narrative criticism)을 특별히 신약성경에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해석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역사비평학과는 달리 이야기를 전개하는 화자(narrator) 또는 내재된 저자(implied author)에게 권위를 부여함으로 텍스트 안에서의 메시지를 찾는데 유익하다. 그러나 이는 동시 본문의 역사성 약화, 저자와 화자의 혼란, 고대기호법과 현대 문학이론의 상이성 등, 여러 내재적 한계와 문제들을 동반한다.

10. 오늘날 성경해석학의 주요 논쟁은 저자와 텍스트와 독자와의 관계성에 집중하며 다양한 해석학적 접근들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역사비평에서 이데올로기 비평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보다 더 다학제간적인 연계-학문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 구약학과 신약학은 '해석학적 사사시대'에 이미 돌입하여 다원주의적이며 해체주의적인 성향으로 나갈 소지가 많음을 뜻한다.

11. 위와 같은 경향에 맞서 허주 교수님은 본고에서 뚜렷한 '기독교 신학의 분과로서의 성경신학'을 제언하며 이를 '개혁-복음주의 성경신학'(reformed-evangelical biblical theology)이라고 명한다.

12. 본고는 '개혁-복음주의 성경신학'의 기초를 G. Vos의 성경신학에 대한 정의로 요약한다. "Biblical Theology is an organic progress of supernatural revelation in its historic continuity and multiformity." 이는 하나님의 계시(성경)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피되 구원을 중심으로 성경에 대한 신앙고백을 해석학적 전제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특별계시 역사에 집중하는 접근이다.

ACTS 신학-신앙운동과 ACTS의 신약학을 위한 제언과 사명

13. 한철하 박사님에 의해 제안된 'ACTS 신학-신앙운동'은 세속화된 신학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허주 교수님은 이 운동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5가지로 요약한다. (1) 기독교 중심 진리로서의 구원운동; (2) 죄에 대한 회개와 신행일치-천국운동; (3) 세속적 신학과 방법론에 대한 선지자적 비판; (4) 신학자의 제사장적 회개운동; (5) 현세와 내세의 왕적 축복을 선포하는 선교-소망운동. 이는 교회와 선교현장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학행위이다.

14. 또한 ACTS 신학-신앙운동은 초교파적인 운동으로서 개혁-복음주의 노선 안에서 '칼빈주의'와 '웨슬리주의' 간의 본질적인 통합과 각 진영특성들의 상호보완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도모한다.

15. 이러한 운동을 기반으로 허주 교수님은 ACTS의 신약학이 추구해야 할 '개혁-복음주의 성경신학'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바른 성경관에 기초한 성경주해 중심의 신약성경신학. 이는 신구약 66권을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준거점으로 고백하는 메타-성경신학적 기초로부터 출발한다.

- 교향곡적 신약성경신학(V. Poythress). ACTS 신약신학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메타-내러티브를 읽어나감으로써 열방 가운데 자기 백성을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도적이고도 점진적인 계획을 추적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오늘의 교회목회 및 선교현장에서 구현되는 신학이다.

-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및 구원론 중심적인 신약성경학. 이는 성경텍스트의 기독론적, 선교론적, 개혁론적 그리고 구원론적인 해석을 의미한다.

- 통합적이며 연계학문적인 신약성경신학. 다학제간적인 방법론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창조적 대화를 시도하는 통합적 신약성경신학이 되기를 기대한다.

- 종말론적이며 선교적 일상생활을 섬기는 신약성경신학. 특별히 비선구권의 목회/선교 현장에 적용해야 할 성경신학을 더욱 성실하게 추구한다.

논평자의 몇 가지 질문

허주 교수님의 본 소고는 성경신학과 해석학의 역사를 간결 기술한 하나의 교재와 같은 형태를 갖췄고, 그동안 우리 ACTS 교수들이 함께 고민하며 논의해 왔던 'ACTS 신학-신앙운동'을 면밀하고 논리정렬하게 요약한 것으로서 이미 ACTS 공동체의 합의를 본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문에 대한 문제나 비평을 제기하기 할 만한 요소들을 찾기가 어렵다.

이에 비평보다는 좀 더 명시적인 설명을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1. 용어에 있어 ACTS에서 이해하고 있는 '성경신학'과 현재 한국복음주의신학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경신학'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

2. '교회를 위한 신학'을 말할 때 이를 '실천신학'이나 '기독교윤리학'을 통하지 않고 '성경신학'이 직접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3. 이미 세속적인 의미로서 '성서학'이 고착된 상태에서 '개혁-복음주의적인 성서학'이라는 용어가 가능한가 묻고 싶다.

4. 저자와 텍스트와 독자의 역동적인 관계를 고려한 '교향곡적' 접근이 이론적으로는 설득이 되어도 과연 실제적으로 가능한지를 묻고 싶다. 또한 G. Hasel의 Multiplex Approach와는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5. 우리 ACTS 공동체가 항상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연 ACTS 신학-신앙운동이 일반적인 보수진영의 개혁-복음주의 운동과 어떠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ACTS라는 단어만 빼면 똑같은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허주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 저에게는 ACTS 신학-신앙운동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명확해졌습니다. 이 21쪽의 논문을 잘 정리해서 작은 책자로 출판해 ACTS 학생들 전체에게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학 학생인 제가 신약학을 이렇게 칭찬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이한영 교수의 논평에 대한 답변

허주

나의 글(“우리는 신약학을 무엇이라 하는가?: 신학교육기관으로서 ACTS가 지향해야 할 신약학 분과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제언”)에 대해 논평해 주신 이한영 교수께 감사드린다. 분주한 학기 중에도 ‘면밀하게’ 읽으시고 주요 논점을 적실하게 요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나의 논지와 흐름에 대다수 동의해 주심에 힘과 격려가 되었다. 이한영 교수의 몇 가지 유익한 코멘트 및 실제적 질문에 응답하면서 나름의 답변을 하고자 한다.

1. “용어에 있어 ACTS에서 이해하고 있는 ‘성경신학’과 현재 한국복음주의신학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경신학’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

신학적 경향이나 방향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차이점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나의 생각엔 한국복음주의신학회뿐 아니라 (서구)복음주의신학회(ETS)에서 이해하는 ‘성경신학’이란 개념이 (가) 나의 글에서 밝힌 ‘기독교신학’의 정체성이 ‘무의식적으로도’ 약화되고 있다는 흐름이 있고 (나) 동시에 ‘구약과 신약’의 유기적 관계성에 대한 의식적인 접근 내지 시도도 소홀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발표회의 구약/신약 분과 논문들이나 학회지 성경과 신학에 발표되는 글들 참조) 이런 점에서 ‘ACTS 성경신학’의 이름으로 우리 ACTS 구약/신약 분과 전임교수들이 ‘구약과 신약 안에서 계시의 유기적이고도 점진적 특징’을 민감하게 의식하는 해석학적 접근과 신학적 주제를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연구해서 출판해도 좋을 것 같다. 이때 ACTS에 소속된 구약/신약 석박사 과정 학생들도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교회를 위한 신학’을 말할 때 이를 ‘실천신학’이나 ‘기독교윤리학’을 통하지 않고 ‘성경신학’이 직접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가능하다고 본다. ‘성경신학’에서 다루는 해석학적 접근이나 신학적 주제에 있어 ‘실천신학’ 또는 ‘기독교윤리학’에 비해 상대적 제약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석학적 전제 및 성경신학적 목적을 고려할 경우 ‘개혁-복음주의적 성경신학’(또는 ACTS 성경신학)은 필연적으로 ‘교회를 위한 신학’을 신학 행위의 중요한 꼭짓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성경 저자들이 문서를 기록하고자 했던 그들의 글쓰기 동기 및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이라 이해된다. 말하자면,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를 섬기기 원했던 구약과 신약 저자들의 글쓰기 목적과 결을 같이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안에 다양한 부품들이 제각각 조합을 이루어 각 포지션에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조립된 제품들(엔진, 바퀴, 핸들, 기어, 등)이 실천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목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다.

3. “이미 세속적인 의미로서 ‘성서학’이 고착된 상태에서 ‘개혁-복음주의적인 성서학’이라는 용어가 가능한가 묻고 싶다.”

국내외 성서학 주류 안에서 쉽지 않은 현실이라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개혁-복음주의적 성경신학’이란 용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성서학’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성서학을 구속할 책임’은 개혁-복음주의 구약학/신약학 학자들(특히, 우리 ACTS 교수들)에게 위임된 또 하나의 사명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학파 형성 내지 출판 프로젝트를 통한 지속적 노력과 성과가 병행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4. “저자와 텍스트와 독자의 역동적인 관계를 고려한 ‘교향곡적’ 접근이 이론적으로는 설득이 되어도 과연 실제적으로 가능한지를 묻고 싶다. 또한 G. Hasel의 Multiplex Approach와는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먼저 내가 말한 ‘교향곡적 신약성경신학’은 저자-텍스트-독자와의 역동적 관계성보다는 성경 66권 안에서 주요 신학적 주제들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통전적 접근을 지시하는 표현이었음을 밝힌다. 이런 접근의 ‘실제성’ 내지 ‘적용성’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교향곡적 접근은 ‘하나의 작품’ 내지 ‘한 사람의 걸작’으로 표현되기 보다는 여러 지체들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적 작품이자 지향점’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교향곡적 접근은 출발과 마침도 중요하지만 ‘여정으로서 신학함’(doing theology on the way)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교향곡적 신학’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 친히 지휘자로 서시는 그 날까지 미완성 교향곡으로 남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접근은 최선을 다하되 겸손하면서도 여백이 있는 신학함이다.

게르하르트 하젤의 ‘다차원적 접근’은 내가 제안하는 ‘교향곡적 접근’과 유사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성경의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역사적 접근을 존중하면서 신학적 내지 주제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도 같은 입장이다. 하나의 신학적 주제가 (그것이 거대담론의 주제라 할지라도) 성경의 광대한 맥을 온전히 다 풀어낼 수 없다는 인식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 하나의 신학적 주제가 여타 주제들과 긴밀하게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는 것과 방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유사점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교향곡적 접근에서 찾고 싶다. (가) 성경의 여러 주요 주제들을 골고루 살피되 “인간(들)이 만들어 낸 여러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품으시는 단 하나의 이야기”(18쪽)라는 ‘메타-내러티브 안에서의 읽기’이다. 말하자면 다차원적 주제들을 풀어내고 묶어주는 구원역사적 스토리의 오선지 악보 안에서 읽어내는 접근인 셈이다. 교향곡적 접근이 고려하는 또 다른 가치는 (나) “성령 안에서 놀라운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읽기”(18쪽)로서 나사렛 예수와 신약 저자들의 (구약)성경 읽기를 나름 계승하는 접근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교향곡 지휘자와 단원들을 통해 동일한 악보(텍스트)가 재해석 되고 재적용 됨으로써 청중에게 하나의 ‘새로운 음악’으로 재탄생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특히 비(非)서구권의 시대상황과 교회요청에 더욱 귀 기울이기를 힘쓰는 해석학적 고민이 여기에 담길 수 있다.

5. “우리 ACTS 공동체가 항상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연 ACTS 신학-신앙운동이 일반적인 보수진영의 개혁-복음주의 운동과 어떠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ACTS라는 단어만 빼면 똑같은 것이 아닌가?”

ACTS 신학-신앙운동이 국내외 개혁-복음주의 기관 및 진영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 생각된다. 이것은 신학적 포지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ACTS의 리더십과 행정 및 교과과정과도 깊이 맞물려 있다고 본다. 나는 이런 점에서 두 가지 성격을 의식적으로 특성화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외 형제 개혁-복음주의 기관과의 (가) 보편성/공유점과 (나) 차별성/특이점을 각각 그리고 함께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할 당위성이다.

우리의 주제로 국한시킬 때 ACTS 신학-신앙운동은 국내외 개혁-복음주의 운동과 적지 않은 공유점을 갖고 있다. (또한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차별성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나는 ACTS 신학-신앙운동의 차별성을 (내용 보다는 틀과 방향성을 고려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해 보고 싶다(이전 글을 통해 ‘내용’의 차별성은 나름 언급했다고 생각함). (가) ‘신학-신앙운동의 공공성(publicness)’이다. 어느 한 교단/교파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초지일관 하나님 나라를 의식적으로 지향하는 운동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나) ‘신학-신앙운동의 똘레랑스(tolerance)’이다. (신학뿐 아니라) 일반 ‘보수진영’에서 자주 나타나는 완고함 내지 무례함을 극복하면서 여러 교단/교파에 속한 개인과 기관을 신학적 대화 파트너로 존중해 주는 ACTS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 (다) ‘신학-신앙운동의 초점화(focalization)’이다. ACTS는 설립비전에 더욱 천착하여 아시아 중심적이면서도 국제적이고 선교지향적 가치를 ACTS 신학-신앙운동의 교육 및 행정 시스템에 적극 담아내길 원한다. (라) ‘신학-신앙운동의 공동체성(communityness)’이다. ACTS 교수진을 중심으로 그간 함께 진행해 온 신학-신앙운동을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갈 때 ACTS는 복음 중심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바른 신학과 순수한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강력한 신학교육기관이라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가치의 밑그림을 잘 깔아놓을 수 있다면 ACTS 신학-신앙운동은 국내 개혁-복음주의 형제 기관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는 ‘오늘의 두란노서원’으로 쓰임 받으리라 믿는다.

이한영 교수의 사려 깊은 논평을 통해 나의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감사를 드리면서 논평에 대한 나의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Part 6

ACTS 신학연구소 소개

http://ti.acts.ac.kr

ACTS 신학연구소 소개

연혁

1984년	ACTS 신학 연구소의 시원인『ACTS Theological Journal』1호 발간
1988년	ACTS 신학 연구 방향 제안 논문 한철하 박사의 “The Theological Task of ACTS” 상기 저널 3호에 출판
1993년	3월 교수 주례 세미나에서 한철하 박사에 의해 “ACTS 신학 건설의 과제와 방법론” 제안
1994년	8월 교수 주례 세미나에서 한철하 박사에 의해 “ACTS 신학 공관 운동 제안”
1997년	제72회와 제74회 ACTS 이사회는 ‘신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 산하에 ‘신학연구원’을 설치하기로 결의 신학연구원의 업무는 ‘본 대학교의 신학적 입장 명시 및 신학 수립을 위한 연구와 지도’라고 규정
1998년	3월 신학연구원 설립. 조직은 원장(한철하)과 부원장(박일철) 외에 4인의 전임연구교수로 구성 (강창희, 최종태, 장해경, 정흥호) ‘주례신학연구회’(Weekly Study: WS)와 ‘교수세미나’(Faculty Seminar: FS) 시작 ‘ACTS 신학공관’ 운동 시작 9월 ‘ACTS 신학공관’ 운동에 ‘신앙운동’을 병행하기 시작
2006년	3월 강창희 교수 원장 선임 5월 학내사태로 인하여 신학연구원 활동 중지
2011년	3월 ACTS가 정상화되어 신학연구원 활동 재개 (원장 강창희, 부원장 장해경, 서기 한상화, 전임연구교수 우심화, 원종천, 정흥호). ‘격주례신학연구회’(Bi-Weekly Study: BWS)와 ‘교수세미나’(FS) 다시 개최 12월 이사회 신학위원회 산하기구였던 신학연구원을 대학의 부설 연구소(‘신학연구소’)로 변경·설치
2012년	9월 전임연구교수진 중 우심화 교수 사임과 박응규 교수 선임
2013년	9월 장해경 교수 소장 선임과 한상화 교수 부소장 선임과 안경승 교수 전임연구교수 선임 대학의 부설 연구소가 된 신학연구소의 운영규칙을 대학의 규정에 통합시켜 수정·보완하고, 별도의 내규 제정
2014년	3월 신학연구위원(구. 전임연구교수) 중 원종천 교수 사임과 조휘 교수 선임 및 서기 겸임
2015년	4월 ‘ACTS 신학공관’ 선언문 통과 6월 제1차 ‘ACTS 신학포럼’ 개최 (발표: 장해경 · Saleem Younas · 조권수 · 박종원) 10월 제2차 ‘ACTS 신학포럼’ 개최 (주제: '기독교 중심진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의 성화/ 발표: 안경승·Vemagiri Jeevan Prakash Kumar·문영득 · 박균상)
2016년	3월 신학 연구위원 개편 (소장: 한상화, 서기: 김준수, 전임연구교수: 정흥호, 장해경, 원종천, 이한영) 4월 제3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기독교 중심진리'와 교육/ 발표: 한상화 · 이숙경) 10월 제4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 신학공관과 선교신학의 중심진리/ 발표: 정흥호 · 김영미)
2017년	4월 제5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 신학공관과 역사신학/ 발표: 박응규 · 조권수) 11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ACTS 국제 학술대회’ 개최 (주제: 복음과 개혁/ 발표: Frank A. James III · Nelson Jennings) 12월 신학연구위원 개편 (소장: 한상화, 전임연구위원: 원종천, 정흥호, 이한영, 안경승, 허주)
2018년	4월 제6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 신학공관과 기독교사회복지/ 발표: 손신 · 정준희) 8월 신학연구위원 개편 (소장: 박응규, 전임연구위원: 원종천, 정흥호, 이한영, 안경승, 허주) 10월 제7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 신학과 기독교 문화, 예술/ 발표: 금동철 · 김다니엘)
2019⊠ 현재	3월 신학연구위원 개편 (소장: 허주. 전임연구위원: 박응규, 이한영, 정홍열, 안경승, 안점식) 4월 제8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 신학과 신약신학의 과제/ 발표: 김규섭 · 허주)

ACTS 신학포럼 (1차 ~ 현재)

제 1 차 ACTS 신학포럼 (2015. 6. 8)	논문	**장해경**. "ACTS 신학공관이란 무엇인가?"
	논문	**Saleem Younas**. "The hatta't as Both Expiatory and Purificatory Offering"
	논문	**조권수**. "어거스틴과 루터의 인간론과 그 결과론적인 칭의론 비교연구"
	논문	**박종원**. "한국 문화를 통해 본 한국 교회 목회 리더십의 문제점과 신학적 고찰을 통한 대안 제시"
제 2 차 ACTS 신학포럼 (2015. 10. 26)	**주제 : '기독교 중심진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의 성화**	
	논문	**안경승**. "기독교 상담에서의 칭의와 성화"
	논문	**Vemagiri Jeevan Prakash Kumar**.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in Perspective - Theological Changes and Challenges"
	논문	**문영득**. "기독교의 중심진리로서 성화: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을 중심으로"
	논문	**박균상**. "조나단 에드워즈 '성화론'과 ACTS 신학의 기독교 중심 진리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 성화의 필연성과 적용의 관점을 중심으로"
제 3 차 ACTS 신학포럼 (2016. 4. 18)	**주제 : '기독교 중심진리'와 교육**	
	논문	**한상화**. "'ACTS 신학'의 정체성: '신학공관'과 '기독교 중심진리'"
	논문	**이숙경**. ""구원하는 믿음"의 성격에 비추어 본 기독교교육의 근본 원리 및 과제"
제 4 차 ACTS 신학포럼 (2016. 10. 24)	**주제 : ACTS 신학공관과 선교신학의 중심진리**	
	논문	**정흥호**. "ACTS 선교신학의 본질"
	논문	**김영미**. "해석학적 공동체로서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연구"
제 5 차 ACTS 신학포럼 (2017. 4. 24)	**주제 : ACTS 신학공관과 역사신학**	
	논문	**박응규**. "ACTS 신학공관과 교회사 연구·해석에의 적용"
	논문	**조권수**. "ACTS 신학공관과 루터의 인간론과의 연관성 고찰"
	논평	**원종천**. "조권수 박사의 논문, "ACTS 신학공관과 루터의 인간론과의 연관성 고찰"에 대한 논평"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ACTS 국제학술대회 (2017. 11. 13)	**주제 : 복음과 개혁**	
	논문	**Frank A. James III**. "Reformation and Rediscovery of the Gospel"
	논평	**원종천**. "A Response to 'Reformation and Rediscovery of the Gospel'"
	논문	**Frank A. James III**. "ACTS Theological Synopsis: A Historical, Theological and Pastoral Response"
	논평	**장해경**. "A Response to 'ACTS Theological Synopsis: A Historical, Theological and Pastoral Response'"
	논문	**Nelson Jennings**. "ACTS Theological and Pastoral Consult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Quincentennial of the Reformation"
	논평	**신성욱**. "Comments on Dr. Jennings' lecture"
제 6 차 ACTS 신학포럼 (2018. 4. 23)	**주제 : ACTS 신학공관과 기독교사회복지**	
	논문	**손신**. ""21세기 인류의 살길"에 대한 사회복지적 적용"
	논문	**정준희**. "EMPOWER 기독교 복지사상 연구"
제 7 차 ACTS 신학포럼 (2018. 10. 15)	**주제 : ACTS 신학과 기독교 문화, 예술**	
	논문	**금동철**.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자아의 존재방식과 기독교의 중심 진리"
	논평	**이숙경**.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자아의 존재방식과 기독교의 중심 진리'에 대한 논평"
	논문	**김다니엘**. "Theo-Drama 공연제작으로 인한 신학교육과 타문화선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Resurrectio" 공연 사례 연구"
	논평	**정홍열**. "'Theo-Drama 공연제작으로 인한 신학교육과 타문화선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Resurrectio" 공연 사례 연구'에 대한 논평"
제 8 차 ACTS 신학포럼 (2019. 4. 22)	**주제 : ACTS 신학과 신약신학의 과제**	
	논문	**김규섭**. "초기 교회 문헌 연구의 관점에서 본 ACTS 신학 - 신앙운동의 의의"
	논평	**한상화**. "김규섭 교수님의 "초기 교회 문헌 연구의 관점에서 본 ACTS 신학/신앙운동의 의의"에 대한 논찬"
	논문	**허주**. "신학교육기관으로서 ACTS가 지향해야 할 신약학 분과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제언"
	논평	**이한영**. "'신학교육기관으로서 ACTS가 지향해야 할 신약학 분과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제언'에 대한 논평"

2019년 신학연구위원 소개



허주 연구위원 (juhur@acts.ac.kr) 소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약신학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B. A.)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 Div.)
Sheffield University (Ph. D.)



이한영 연구위원 (hyl@acts.ac.kr)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구약신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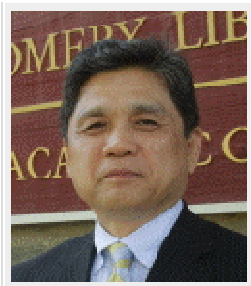
Universidade de Brasilia (M. D.)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M. Div.)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M. A.)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S. T. M.)
Universiteit vir Potchefstroom (Ph. D.)



정홍열 연구위원 (totushomo@hanmail.net)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B. 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Th. M.)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Dr. theol.)



박응규 연구위원 (ungkpak@acts.ac.kr)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총신대학교 (B. A.)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 Div.)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Th. M.)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 D.)



안경승 연구위원 (kshalom@acts.ac.kr)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학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B. A.)
총신대학교 (M. 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h. D.)



안점식 연구위원 (ajs@acts.ac.kr)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서울대학교 (B. A.)
서울대학교대학원 (M. A.)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 Div.)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Ph. D.)

ACTS 신학연구소 조직도

